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5호

1999

-
- 어떻게 해서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 졌는가 A. V. Vorontsov 1
 - 한일 전통희극 ‘탈춤’과 ‘교갱(狂言)’의 비교 연구
-연극적 특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장 기 권 12
 - The problem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as a national identity issue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pular historical writings V. M. Tikhonov 40
 - 學部 編纂 國語 教科書와
修身.倫理 教科書의 指示語에 대하여 佐野 三枝子 71
 - 『倭語類解』의 口訣과 그 쓰임에 대하여 정 승 혜 88
-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어떻게 해서 1950년 한국전에 중국의용군의 개입이 이루어 졌는가

A. V. Vorontsov

1950년에서 1953년에 발발했던 한국전 역사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흥미가 최근 몇 년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얼마 전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이 전쟁의 40주년 기념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가, 정치학자 그리고 사료학자들의 연구활동과 함께 2차대전 이래 대규모로 여러 나라가 참전한 이 분쟁의 결과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 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참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가국들의 역할 및 참여정도에 관한 연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회담들은 이 주제의 연구에 더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해 당사국들의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상이함은 회담 참가국 여부에 관한 문제 결정조차 어렵게 하고 있기도 하다 : 잠시 그 회담형태 제의에 대한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북한측의 제안인데, 1953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인 북한-중국-미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3자 회담이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한국과 미국에 의해 1996년 4월 16일에 제안된, 전쟁의 직접적 참가국인 대한민국-북한-미국-중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4자 회담이다. 마지막으로는 모스크바의 구상인데, 즉, 남북한과 일본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 위원국,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유엔의 특별 기구들의 대표들까지도 참가하는 한국문제에 관한 다자간 국제회의의 형태를 들 수 있다. 역사적 논거들은 또한 북한이 1953년의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미-북간 직접교섭을 제안하는 데에도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휴정협정 이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여 한반도 및 그 주변국들의 우려와 긴장을 자아낸 바 있다).

최근 몇 년간 학계에 공개된 많은 역사 문서와 자료들 - 이러한 일들은 1991년 이후 러시아 및 여타국가들에서의 문서기록 공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은 한국 문제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새로운 사료연구의 수준에서 한국전 역사의 결정적 문제에 관한 토론이 재개되었다. 즉 누가,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으며, 누가 이 전쟁의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문서기록국에 보관된 기록들 중 특히 A.M. 레도프스키의 문서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전 시기에 중국주재 소련외교관이었고 이시기의 직접적인 증인이자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문서기록상에서의 그의 학문적 연구결과는 충분한 관심을 끄는 자료¹⁾

가 되었다.

한국전의 과정에서 결정적 사건중의 하나는 1950년 10월 19일의 중국 참전이 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참전은 북한을 전쟁의 파멸로부터 구출해냈으나 중국 측은 이 대가로 200 만명 이상의 중국 의용군을 희생시켰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에 관련되는 중국 지도부와, 특히 스탈린과 마오쩌둥(모택동)간의 의견일치를 위한 과정의 다양한 변화 양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측 연구가들에게도 충분한 흥미를 유발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즉각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시의 소련 지도부는 프롤레타리아 인터네셔널이라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련 안보와 관련된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서라도 소련에 우호적인 북한을 지키고 미국이 소련과 국경을 마주하는 사태를 막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쩌우언라이(주은래)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1950년 소치에서 한국에 중국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스탈린은 린뽀오(임표)가 김일성에게 빨치산 전투로의 전환과 또는 중국 영토 내로 잔류 군대를 철수 시키도록 건의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중국에 대한 모든 필요한 장비 및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회주의 동맹국인 북한의 패전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군의 직접적인 참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국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마오쩌둥은 미군이 단지 북한을 궤멸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공산당까지 제거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명료하게 이해하고(미국이 중국의 일부 지역에 폭격을 감행했으며, 항구들 중 하나를 점령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중국의용군을 한반도에 투입하면서 이 결정은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임을 그 이유로 들었다. 여기서 중국 지도부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관계를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는 말로 묘사하였다.

중국의용군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은 소련 지도부의 약속이 공고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소련은 즉각 소련-북한 국경 지대에 5개의 탱크 사단을 포함한 자신의 병력을 그리고 중국 영토에는 대규모 공군기 편대를 배치시켰는데 이는 미국에 중대한 억제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북한에는 대규모 군사 전문가 및 고문단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북한군과 중국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북한에 대해서라면-쩌우언라이(주은래)와의 회견에서 스탈린은 말했다-

Vorontsov Alexander Valentinovich

- 역사학 박사, 러시아 과학원 동양학 연구소 수석연구원. 동북아 문제 전문가.

1) 레도프스키 A.M. : A. I. 미코얀의 중국일사(1949년 1-2월) - 극동지역의 문제, 1995, №2-3.

1949년 12월 스탈린과 마오쩌둥간의 회담 - 1950년 2월- 새로운 그리고 가장 새로운 역사,

1997, № 1; . 1952년 8-9월 스탈린과 조 엔라이 간의 회담 속기기록,- 새로운 그리고 가장 새로운 역사, 1997년 №2.

북한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요.”²⁾

북한영토의 옹호를 위해 참전한 소련 비행사들은 소련 공군의 엘리트들이라고 불릴 만 했다. 그들은 2차대전의 시련을 이겨냈고 한국전에서도 미국기와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38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지령 및 연료공급 제한 등으로 전투행동반경에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르는 요새”로 불리는 미 공군의 B-29폭격기 200대를 포함하여 총 약 1300 대의 미군기들을 북한 상공에서 격추시켰기 때문이다. 소련의 많은 영예로운 에이스(많은 적기를 격추한 비행사)들은 소련방의 영웅 칭호를 얻었으며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 이들 중 135명은 전사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그리고 많은 다른 사건들은 중국군의 한반도 투입이후에 생겨난 일들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내용은 소련과 중국의 최고위층이 미국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중국군을 참전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면서 이 결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양상들의 전개와 가능한 결과들을 신중히 고려해 보던 아주 짧지만 중요한 기간을 다루게 된다.

일부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중국 측의 관점은 러시아 역사가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이 문제에 있어서 위키국면에서 스탈린이 북한 수호에 대한 동요를 보였으며 중국 지도부는 자체 내에서 스스로의 무력으로 북한을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이타르타스 통신 북경주재 특파원인 G.A. 아르슬라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근 중국간행물들을 보면, 북한을 수호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해 스탈린은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그는 소련과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김일성 정권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⁴⁾

이와 관련해서 동방역사연구북경센터소장인 쉰취후아의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 대한 이견들 : 중국의 대답”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는 호기심을 자아낸다. 여기서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 연방에 보관중인 자료들을 폭넓게 이용하면서, 이 중요한 문서에 관한 두 개의 상이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제 이 기사의 주요 명제들을 서술해보겠다.

「이미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은 절대적인 중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의도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한국전 발발 이후에 특히, 북한측에 전쟁의 양상이 불리한 측면으로 전환되고 나서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 대한 지원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었다. 소련이 스스로가 한국전에 관련되는

2) 레도프스키 A.M. ‘1952년 8-9월의 스탈린과 초우앵라이와의 회견에 관한 속기기록 75 페이지 참조.

3) Vestnik PVO (防空誌) 1990년 №2, 83페이지 참조

4) 아르슬라노프 G.A. 한반도, 어떻게 전쟁에서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 디프꾸리에르(外交伝達使), 1996, № 7(33), P.48.

것을 심하게 우려하고 있었을 때와 동시에(그 당시 소련은 이미 북한의 공산정권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중국은 한국전 참전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방위전략을 만들어 내었다. 새로이 탄생한 중국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제는 중국 지도부의 주요한 목표였다. ‘미국에 저항하고 북한을 도우며,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자’는 슬로건을 내건 중국 지도부로서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저자는 다음과 같이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나서 북한 체제가 붕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1950년 10월에 중국의 참전이 최종 결의되었다. 9월 28일에 조선노동당정치국은 소련과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원조를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9월 28일과 29일에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두 통의 서한을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각각 보냈다. 스탈린은 즉각적으로 이 사항을 중국측에 떠넘겼다. 10월 1일자로 마오쩌둥이 받은 전보에서 스탈린은, 소련 측이 북한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이 즉시 5-6개 이상의 사단병력을 38선 지역으로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전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북경에서 마오쩌둥과 그의 동지들은 북한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중국이 주요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중국군을 한반도에 파병할 것을 요청하는 스탈린과 김일성에게 중국지도부는 어떻게 답변했을까? 이에 대한 쉐쥬후야의 말이다. “이 문제는 중국과 외국 학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1950년 10월 2일로 되어있는 스탈린에게 보낸 마오쩌둥의 상반되는 내용을 가진 두 개의 전보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에 마오쩌둥의 원고선집 제 1권이 인민공화국 창설일을 기념해서 ‘내부 열람용’이라는 공식인장이 찍힌 상태로 발간되었는데, 거기에는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10월 2일자 전보의 주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1) 중국은 우리 병력의 일부를 ‘중국 의용군’이라는 명칭으로 하여 미국과 그의 앞잡이인 이승만 정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을 지원키 위해 한반도에 파병한다. 우리는 이 사명을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 의해 점령당하고 북한혁명세력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면 미국은 더욱더 큰 야욕을 품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은 전 아시아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2) 우리는 미군과의 전투를 위해 한반도에 중국병력을 파병하기로 한 이상 반드시 미국과 그 외 여러 나라들로 구성된 점령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비록 ‘중국의용군’이라는 명칭하에서이지만)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미국이

중국내의 많은 도시들과 연안지역에 공군.해군병력을 동원하여 공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비하여야만 한다.

3) 우리에게 당면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번째, 한국전에서 과연 중국군이 미군을 격퇴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만일 우리 군대가 미군을 격퇴할 수 있다면, 특히 미 8군(베테랑급으로 구성된 미군부대이다)을 격퇴할 수 있다면, 비록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전포고라는 중대한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중국과 혁명전선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즉, 한국전은 미국의 패배로 종결될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미국이 북한의 승리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쟁은 형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리고 설사 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심지어는 미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더라도 향후 대처상태는 소규모에 그칠 것이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군대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요병력을 격퇴하지 못할 경우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에 더하며 미국이 동시에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여 경제개혁을 시작한 중국에 치명상을 가해 전쟁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민족부르주아와 일련의 다른 주민 계층의 불만을 사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도 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인접한(38선에 꼭 가깝게 배치하려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남부 만주지역으로 사전에 이동 배치한 12개 사단을 파견하기로 10월 15일에 결정했다. 이 부대들은 38선 이북으로 침입해 들어오려고 시도하는 적군들과만 교전을 벌인다는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다. 우리 군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크지 않은 규모의 적군들과 전투를 벌이는 방어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군대는 무장을 위해 소련측으로부터의 보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련에서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만이 중국군대는 북한군과 협동하여 미군 침략세력에 역습을 가하게 될 것이다.

5)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개개의 미군부대(2개 육군사단과 1개 기계화 사단)마다 탱크와 고사기관총을 포함하여 70mm에서 240mm까지의 구경을 가진 1500문의 대포로 무장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군대는 3개 사단마다 각각 36문의 포로 무장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적군은 제공권을 장악하게 될 것인데 반하여 우리 공군은 이제 훈련비행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빨라야 1951년 2월쯤에야 300대의 군용기를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미군을 완전히 격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기로 한 이상 만일 미군사령부가 우리와의 전투를 위해 1개 부대를 투입할 경우 우리는 그 한 병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 그 4배의 병력을 투입해야 하고 화력에 있어서도 1.5배에서 2배의

우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다시 말해서 70mm또는 그 이상 구경을 가진 2200에서 3000문의 대포를 동일 규격을 가진 1500문의 적군대포와 맞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6) 위에 언급한 12개 사단 외에도 북한의 2차 3차 군사지원을 위해 24개 사단을 양쯔강, 샴히구안슈 강 유역에서 룡호이, 텐진(천진)-삿꼬우와 북경-남만주 철도 지역으로 이동 배치시킬 것이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 사단병력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년 봄-여름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학자는 전보가 완전히 공포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위와 같은 텍스트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말부터 한국전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은 1950년 10 월초에 중국 지도부 특히 마오쩌둥이 한국전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에 있어서 폭넓게 이 전보를 인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서 쉐쥔후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러시아 측 문헌의 공개결과 마오쩌둥은 N.V. 로신 중국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1950년 10 월 2일 스탈린에게 위에 언급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신(소련 측)의 1950년 10월 1일자 전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적군이 38선 이북을 넘어 진격해 올 경우 처음에 북한에 군사원조를 위한 몇 개의 의용군 사단을 파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면밀한 고려 결과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로는 몇 개의 사단규모로는 한국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우리 군대의 무장상태는 매우 빈약하며, 미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군은 우리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참전은 미국과 중국간의 공개적인 충돌을 유발하여 결국은 소련까지 전쟁에 참가하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약관화하게 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대다수 동지들은 이 상황에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군의 한국전 불참은 현재 곤경에 처해 있는 북한에게는 아주 불리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에 적군이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다면 이것은 미국과 중국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유발하여 우리의 평화건설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어 많은 인민들의 원성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전쟁으로 입은 인민의 상처는

아직 채 아물지 않았으며, 우리는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군대 파병을 자제하고 적군과의 전쟁시기가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북한은 일시적인 패배를 겪고 나서 전투형태를 바꾸어서 빨치산전투를 감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앙위원회 내에 다양한 부서를 관장하는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중앙위원회의를 소집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최종결의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논의와 또 중국과 한반도의 상황 보고를 위해 즉각 비행기편으로 짜우언라이(주은래) 동지와 린뽀오(임표) 동지를 당신이 계신 휴양지로 보낼 생각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측 견해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동아시아연구북경센터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가진 두개의 1950년 10월 2일 전보를 관찰해 볼 때 과연 1950년에 북경과 모스크바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쎄쭈후아는 1995년 워싱턴 소재 윌슨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목받은 논의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데, 이것은 위 문제에 대한 논의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러시아측 학자인 A. 만수로프는 마오쩌둥이 보낸 러시아 측 전보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지도부는 한국전의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1950년 10월에 북한에 파병하기로 했던 애초의 입장에서 완전히 물러섰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마오쩌둥 선집에 실린 전보내용의 진위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두가지 전보의 문체와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는 러시아어로 된 전보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문서 보관국의 그것을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 전보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어 전보는 신빙성이 없고 부정확한 데다 보내지지도 않았을 것이며, 게다가 날짜도 날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텍스트가 역사적 견지에서 정치적 이념적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변경되었거나 날조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주장했다. 중국 측 학자의 견해는 이와 같은 만수로프의 의심이 다음과 같은 단순 명료한 결론에 의거하고 있다고 본다 : “두 전보의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고 러시아어 전보가 보다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 전보는 옳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쎄쭈후아의 논문의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다.

쎄쭈후아는 만수로프가 내린 결론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러시아어 전보가 발견되고 나서 중국의 당 문서보관담당자들은 중국공산당 중앙문서국에 보관중인 마오쩌둥의 서류를 주의깊게 연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발간된 텍스트보다 더 많은, 그 전보와 같은 내용의 마오쩌둥의 친필문서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 문서의 형식은 마오쩌둥 당기구에 의해 발송일자와 함께 서명된 대부분의 다른 유사한 전보들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즉, 중국어 전보의 진위성이 입증되었다 하더

라도 그것이 발송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중앙문서보관국에 러시아어로 된 전보가 없다는 사실을 쉐쥬후아는 그 문서의 형식을 근거로 해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마오쩌둥의 직통전보가 아닌 로선 소련대사를 통한 전보에 포함된 서한이었고, 그 서한은 로선 대사에게 구두형식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측 학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왜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보낼 전보의 초고(중국어판)를 만들었으며, 왜 다른 서한(러시아어판)을 소련대사를 통해 보냈을까?

최근에 입수된 문서들에 근거해서 쉐쥬후아는 중국지도부에 의한 이 문제의 결정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

《한국전의 발발 이후 중국지도부는 심각하게 한국전 참전 문제를 검토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나서 이 계획을 실현에 옮길 듯이 보였으나 1950년 10월 1일까지 중국지도자들은 공식적으로 이 결의를 논의하지 않았다. 10월 1일 스탈린의 전보를 받고 나서 마오쩌둥은 같은 날 밤에 마오쩌둥 자신과 쑤더(주덕), 리우사오치(유소기) 그리고 쟈우언라이가 참석하는 중국공산당중앙위서기국을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중국군의 한반도 파병에 관한 의견일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위급 군 지도자를 포함하는 확대된 형태의 중앙위서기국을 다음날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의 후에 마오쩌둥은 가오간에게 긴급전문을 보내 동북지역에서 북경으로 신속히 와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국동북지역 국경에 배치된 군대에 언제라도 한국전에 개입할 태세를 갖추 것을 지시했다.

10월 2일에 열린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은 즉각적인 중국군의 한국파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중국군 사령관으로 평더화이(평덕회)를 임명했을 뿐, 군대파병문제는 10월 4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은 10월 1일 당시 스탈린의 전보에 대한 답을 보낼 수가 없었다. 사실상, 게다가 10월4-5일에 걸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한반도 파병에 대한 지도부 대다수의 심각한 반대로 인해 결의는 채택되지 못했다. “참전여부의 필요성이 확실히 대두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지론이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쉐쥬후아는 마오쩌둥이 한국에 병력을 파견하려 했으며 개인적으로 스탈린의 10월1일자 전보에 대한 답신을 준비했으나 당지도부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이 전보를 보내지 않고 지금 러시아 문서기록국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내용의 전보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950년 10월 2일자 로선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내용-마오쩌둥은 한국으로의 파병을 원하지 않았으며 중국공산당지도부의 한국문제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게 되었다-을 근거로 한 만수로프의 주장과 논쟁을 벌이면서 중국 측 학자는 마오쩌둥은 한국전 파병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한국전으로 인해 중국이 겪게 될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내심 자신들의 동료들이 가진 우려와 반발에 동조하고 있었

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 측 저자는 두 개의 다른 정보내용을 비교 분석해 볼 때 마오쩌둥은 자신의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술만을 바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스탈린에게 직설적인 긍정적 답변을 하기보다는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지도층에게 한국전 참전을 설득하기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스탈린과의 향후 대화(이를 위해서는 찌우언라이를 급히 보내기로 제안되었다) 에서도 더 많은 가능성을 남겨 놓을 수 있는 기회주의적인 애매한 답변을 선택했다. 마오쩌둥이 한국전 참전에 대한 의향을 버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가 정치국회의에 참여한 대다수의 반발을 극복해 내고 10월 5일에 결국 그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전 참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신속하게 채택하였다는데에 있다.

펑더화이(펑덕회)의 회고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고 나서는 우리는 3개 병력의 파견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것은 수십만명의 인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이었다. 만일 선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이것은 국내 정치 상황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뿐더러 우리 영토의 일부를 상실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우리가 수수방관한다면, 사회주의 연대에 대한 대화는 한낱 공허한 말에 그치고 말 것이다.”⁵⁾

중국측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 저자들은 중국이 한국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간주하면서도, (남한군대가 아닌) 미군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해 올 경우에만 참전하겠다고 중국이 경고한 점, 그리고 정작 10월 2일에 이러한 일은 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회주의적 회피전술”을 사용하면서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필요한 전적인 군사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스탈린에 대한 압력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한국에 참전한 중국군대와 중국영토에 대한 공중엄호요구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전 참전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간주되는 것들이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10월 1일자 스탈린의 정보에는 위와 같은 중국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겠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쉐쥬후야의 연구는 아르슬라노프가 인용하는 중국학자들의 학문적 탐구의 궤도선상에 있다. 그 연구에서는 스탈린의 우유부단함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탈린은 특히 중국군의 공중엄호 사명을 띤 소련비행사들의 작전반경을 제한하려 했으며, 중국과 소련사이에 군사원조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기대하는 소련의 공중엄호를 더 늦추기로 재검토까지 했던 것이다. 일련의 자료들 중 특히 중국의 “당 역사 공보”지에는, 찌우언라이(주은래)가 소련에서 돌아와 중국공산당 중앙위 비공개실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데, 그 것에 의하면 초우엔라이가 회담에서 소련의 공

5) 인용. Kapitsa M.C. ‘다양한 평행선상에서’ 외교관 기록 M. 1966년 P.220.

중엄호를 요청했을 때 스탈린은 잠시 주저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중국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다면 군대를 파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북한을 잃게 될 지라도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는 건재할 것이요.”⁶⁾

비록, 첫 번째 텍스트에서 마오쩌둥의 동요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과 중국이 애초의 계획에서 물러나 한반도 파병을 재고하려하는 태도에 대한 로선소련대사의 우려가 나타나 있긴 하지만, 바로 이 궤도선상에서 쉐쥬후아는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내는 1950년 10월 2일자 러시아어와 중국어로 된 각각 두 개의 전보의 내용의 상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소관계의 역사적 성찰이라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바라본 로선의 서한 내용과 한반도에서의 분쟁에 대한 분석은 스탈린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1950년 10월 1일자 전보를 소련과 중국지도부사이에 공동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분담”이라는 모종의 비밀협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국 쪽의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쉐쥬후아의 시각을 받아들이고, 마오쩌둥이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0년 10월 2일을 전후로 한 사건의 일관성을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

첫 번째로, 소련과 미국의 무장 충돌 및 3차 대전을 유발할 지도 모를 한국전예의 참전에 대한 소련 지도부의 강한 회피의향은 중국으로서는 갑작스런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크레믈린측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국과 북한 지도부와의 회담에서 언급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평행선상에서의 외교관 기록”이라는 M. C. Kapitsa 의 회고록에 따르면, 1949년 3월 5일 스탈린과 김일성의 회담에서 소련 지도자는 “우리 인민은 전쟁에 지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숨돌릴 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전쟁의 참가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했으며, 1949년 9월 24일에 개최된 쏘소연방공산당 중앙위 회의에서 한국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북한의 남침은 무모한 행동⁷⁾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소련, 중국, 북한의 지도자들은 한국전 발발시에 중국이 북한지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에 사전에 즉, 1950년 4-5월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Kapitsa는 1950년 4월에 김일성은 한국의 통일을 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스탈린을 설득하였고, 스탈린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 김일성이 중국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최종결정은 중국의 입장에 달려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일 마오쩌둥이 남침을 반대한다면 전쟁을 연기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오쩌둥은 1950년 5월에 북한 지도자들 중의 한 사람인 김일에게 “한국에 인민해방군을 파병하게 될 경우, 나는 한반도의 통일은

6) Arslanov G.A. 명령. P. 52.

7) Kapitsa M.C. 명령. P.216-217.

무력에 의해서 만이 가능하며, 미국이 남한이라는 하찮은 나라 때문에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⁸⁾”라고 언급했다.

전 소련 외무차관이자 1950년 4월에 소련 북한 회담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던 Kapitsa의 의견에서 볼 때, 1950년 10월에 “마오쩌둥이 한국전 파병결정을 채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쉐쥬후아의 주장은 다소 신빙성을 잃게 된다.

세 번째로, 중국인 학자들은 한국전에서 중국이 홀로 미국과 대항하기로 한 용감한 결정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리고 쉐우언라이(주은래)가 모스크바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한 후 하루가 지나 마오쩌둥이 정치국회의를 소집해서 “소련의 공중엄호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중국군대를 1950년 10월 19일에 한국에 파병한다⁹⁾”라는 공식적인 결의를 내렸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사실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미루고 있다:

a) 미군의 중국-한국 국경으로의 맹렬한 진격은 미국의 중국영토 침입이라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지고 있었다.

b) 소련과 공식화된 연맹관계를 맺고있지 않았던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미국과 접전을 벌이면서 1950년 2월 14일에 서명된 중소상호원조협력조약에 의지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미국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행사했으며, 백악관 측은 이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만 했다. 헨리 트루먼 미 대통령의 비망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만일 우리가 공산국가인 중국으로까지 전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만 했을 것이다. 북경과 모스크바 측은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약에 의해서도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공산국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반드시 러시아의 개입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⁰⁾

물론 이러한 사실이 소련에서 높이 평가된 중국의 한국전 개입 결정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쉐쥬후아의 연구는 전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의 논의의 논리와 논증체계 그리고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1950년 10월 2일의 두 가지 전보는 확실한 출처를 가진 진본이지만, 중국어 전보는 전술적 이유로 모스크바에 송달되지 않았다는 최종결론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이다. 그 당시 마오쩌둥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한국전 참전 개입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임을 입증했다. 중국 지도자는 이 전술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큰 규모로 소련의 군사지원과 공군의 엄호를 받기 위한 압력을 스탈린에게 가하려 했던 것이다.

8) 同一. P. 218 - 219.

9) Arslanov G. A. 명령. P. 51.

10) Kapitsa M. C. 명령 P.223.

한일 전통희극 ‘탈춤’과 ‘교겐(狂言)’의 비교 연구

-연극적 특성과 풍자성을 중심으로-

장 기 권

A comparative study of traditional comedy:
Korean “TALCHUM” and Japanese “KYOGEN”

This research deals with Korean “TALCHUM” and Japanese “KYOGEN” that represent the traditional comedies in both countries. Both comedies are folk dramas that have backgrounds going back to the early and late Middle ages, and depict the human world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mon people in plain and humorous terms. Especially worth noting is the quality of humor and satire. There are a few studies that deal with either TALCHUM or KYOGEN, but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compares both of them.

I hope to clar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ALCHUM and KYOGEN through comparison from various angles. In this study, I place importance on the peculiarity of their satire and the dramatic peculiarities of both dramas.

I will give an example of the dramatic peculiarities.

In both dramas, there are many scenes including the words and dance that apparently have no connection to the main story. This means that both dramas put more emphasis on adding pleasure and fun rather than on the total line of a story.

In KYOGEN’s script, you can find many isolated scenes as the definitive form, while TALCHUM has many of them not only in the script but added by improvisation by players or audiences.

Next, I will give some reference about the satire of both dramas: that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laughter.

Satire is, poking fun at unreasonableness that seems to deviate from a perceived desirable state in human society. By laughing with satire, people are released from restrained daily lives and feel comfortable.

Among the characters of TALCHUM and KYOGEN you can find many examples of an opposing structure of ruling class and ruled class (i.e. master-servant, higher monk-lower monk, husband-wife). But in many cases,

the structure is reversed.

KYOGEN has the ability of touching the universal weakness of human beings, but it lacks definite satire. In TALCHUM, satire is the most important and indispensable element. Its satire is mainly against noblemen or depraved monks.

Both dramas fulfill their function as not only humorous comedy but also “dramatic revolt” to give people release from their daily lives and the actual world and to give them relaxation.

1.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과 한일 문화 교류의 방향

최근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 환경은 다방면에 걸쳐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일 영수회담을 통해 발표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선언은, 한일간의 문화교류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21세기의 유력한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중문화 상품을 한국에 마음껏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지만¹⁾, 그에 못지 않게 한국으로서는 극일(克日)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화(globalization)를 향한 열린 자세를 내외에 표방한 정신적 성취도가 높은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필자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을 지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대중문화의 범람, 다시 말하면 서브 컬처적인 요소들이 문화 개방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중문화가 강력한 전략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지금, 상업적 효용성이 높은 요소만이 주목을 받기 십상인 것이다. 특히, 개방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폭력·마약·과도한 성묘사” 등과 같은, 이른바 “유독(有毒) globalization”의 폐해는 자못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요즈음의 양국간의 문화 교류·문화 수출입 현황을 볼 때,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중문화의 특성으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중문화 개방을 선언한 이상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양질의(?) 문화 교류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라도 행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상호간의 전통문

장기권 - 오사카대학 언어문화연구과 박사과정 3년

1)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으로 인한 국산 영화, 가요, 비디오, 애니메이션의 손실액은 전체 시장규모 1조 142억원의 5~6%(2002년 기준), 금액으로는 200억~250억원 규모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김휴종, 신형암 분석)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경제적 효과분석』 『중앙일보』 1998년 8월 25일.

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다. 이는 당장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상업적 가치로서가 아니라, 문화의 정신적 가치를 교감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좀처럼 불식되지 않는 양국간의 불신과 편견은 서로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를 통한 문화 교류는, 이러한 숙제를 풀어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판소리·농악·탈춤 등, 우리 것을 일본에 알리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의 특수한 계층(문화 산업 관계자나 한국 관련 연구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층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모름지기 문화 교류란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흐름이 되어서는 옳지 않는 법, 우리의 자랑거리를 일본에 전파하는 노력만큼이나 우리 또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접근 방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이용해 간접 체험을 하는 방법이다. 또는 서적이거나 자료를 통해 보다 심도있는 지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공연이 최고라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상호 교환 공연이나 동시 공연 등은 절차상 까다롭긴 하겠지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자들의 연구 또한 중요한 몫이다. 보고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거침으로써, 서로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역사성과 미래의 발전 가능성까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필자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일본에 보급하고, 일본의 전통문화를 한국에 전달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개인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개인적인 토대를 다져나갈 생각이다.

‘탈춤’과 ‘교경’²⁾에 관한 이번 연구의 목적 또한, 한일 양국의 전통문화의 한 분야인 전통연극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 ‘탈춤’과 ‘교경’에 관한 비교 연구의 영역과 본고의 범주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희극 ‘탈춤’과 ‘교경’은, 중·근세 시대의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심사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풍속극(風俗劇)이다. 동시에 ‘양극

2) 이후, 교경(狂言)에 대한 표기는 ‘교경’으로 통일한다. ‘교경’의 종류나 등장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본어의 발음에 준하여 표기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을 경우 한자를 덧붙인다. 참고로 탈춤에 대한 표기도 ‘교경’의 경우처럼 ‘탈춤’으로 통일한다.

(兩劇)³⁾ 모두 생활 속의 희노애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대사극이기 때문에 당시의 민중들의 생활상과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탈춤’과 ‘교궤’는 극의 배경이나 흐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연극적 특성과 주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중·근세를 배경으로 한일 양국의 민중의식의 발생과 성장 과정을 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극(兩劇)’을 비교 고찰하는 작업은 여러모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물론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 또한 적지 않게 드러나지만, 유사성과 더불어 상이점을 규명해 나가는 것 또한 비교연구의 중요한 의의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탈춤’과 ‘교궤’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의 실례(實例)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탈춤’의 경우는 196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탈춤’을 외국의 민속극과 비교 고찰하는 작업은 그다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탈춤’에 대한 연구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우선은 ‘탈춤’ 자체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중요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지금까지 국내의 ‘탈춤’ 연구가들에게 외국의 민속극을 심도있게 접할 기회가 그다지 풍부하게 주어지지 않는 사실이다.

일본의 전통연극과의 비교 연구만을 보자면, ‘가부키(歌舞伎)’나 ‘노오(能)’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몇 편 보이지만 ‘교궤’는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노오’의 경우는 주로 과거와 사(死)의 세계를 다루는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고 연희한다는 점, 춤과 노래가 중심이 되는 가무극(歌舞劇)이라는 점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내용과 주제의 측면에서는 ‘교궤’가 가장 근접해 있는 연극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앞으로 ‘탈춤’과 ‘교궤’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연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이다. ‘양극(兩劇)’에 관한 비교 연구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야를 생각할 수 있다.

<표1> ‘탈춤’과 ‘교궤’의 비교 연구 분야

- | | | |
|----------------|--------------|-----------------|
| ①발생(기원)과 변천 과정 | ②분류 방법 (유형화) | ③연극적 특성 |
| ④연희 집단, 연기, 연출 | ⑤등장인물 | ⑥무대, 장식(도구), 가면 |
| ⑦대본, 음악, 춤 | ⑧웃음, 풍자 | ⑨사회적 기능 |
| ⑩현대적 계승 | | |

3) ‘탈춤’과 ‘교궤’를 합하여 편의상 ‘양극(兩劇)’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탈춤’과 ‘교궐’이 지니고 있는 “연극적 특성”과, ‘양극(兩劇)’의 가장 두드러진 희극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풍자성”에 중점을 두고 비교 고찰한다. 또한 풍자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다 보면, 그 “사회적 기능”에 접근해 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그리고 ‘탈춤’과 ‘교궐’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극(兩劇)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현황”을 짚어 보기로 한다⁴⁾.

3. ‘탈춤’과 ‘교궐’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증대

한국에서 ‘탈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탈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던 것은, 일제의 민족문화 탄압으로 인한 오랜 공백기를 거치면서 올바른 전승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다, 해방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탈춤’이 제대로 인식되고 연구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은 탓이라 할 수 있다.

‘탈춤’의 가치와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탈춤’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붐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폭발적이었다. 이렇게 붐처럼 번진 관심의 증폭은 대학 캠퍼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극 분야 뿐만 아니라 국문학이나 민속학 분야의 연구로까지 확산되어 나갔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의 암울한 정치·사회적 현실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식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탈춤’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양반과 승려를 당시의 권력층이나 자본가로 상정하여 통렬하게 비판함으로써,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연대감을 느꼈던 것이다.

당시의 정치·사회·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탈춤’이 이루어낸 역할과 성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정치·사회적 암흑기를 딛고 민주화를 실현한 지금, ‘탈춤’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 또한 “탈춤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분야는 본고(本稿)의 범주와는 거리가 있지만, 향후 연구의 가치가 있는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1960년대를 기점으로 ‘탈춤’은 오랜 동면기를 끝내고 다시금 세상 빛을 보게 된 것이다. ‘탈춤’에 대한 연구 또한 이 때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궐’은, ‘노오’, ‘가부키’, ‘분라쿠(文樂)’와 더불어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연극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해외는 물론이고 일본 국내에서조차 ‘교궐’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연극적인 차원에서 이유를 찾는다면,

4) ‘탈춤’과 ‘교궐’의 구성요소는 크게 춤·노래·대사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각각 무용·음악·문학적 요소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세가지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경시하는 바 아니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사 즉, 문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노오’의 부속물로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연구의 중요도가 ‘노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일본인의 연극에 대한 감각은 일반적으로 희극보다는 비극을 선호한다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웃음보다는 눈물에 더 큰 가치와 무게를 둔다고나 할까! 일본의 어느 극장에서 연극을 보던 관객들이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슬픈 장면이 나오지 않자, “도대체 언제쯤 눈물을 흘리게 해 줄거야?”라고 소리치더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교갱’에 대한 주목과 연구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 고전문화를 애호하는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교갱이 다른 고전연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식과 구성면에서 자유롭고, 대사가 알아듣기 쉽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사회가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인 여유가 증대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일본인의 정서에 파고들기 어려웠던 ‘웃음’과 ‘유머’, 혹은 ‘희극’이 서서히 즐기는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여유로부터 ‘교갱’ 붐이 일어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는 민주화와 자유를 열망하는 표현으로써, 다시 말해 항거의 일환으로써 ‘탈춤’의 붐이 일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연극적 특성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이 상대성이, ‘탈춤’과 ‘교갱’의 풍자성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시사하고 있다. 즉, 희극의 풍자성이 갖는 사회적 기능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4. ‘탈춤’과 ‘교갱’의 연극적 특성과 분류

‘탈춤’과 ‘교갱’은 연극적 특성에 있어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미있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양극(兩劇)’의 연극적 특성에 관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고찰해 보기로 하자.

그런데, 코리아학의 세계에 있어서 ‘탈춤’은 비교적 그 내용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초적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교갱’은 연극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노오’와 혼동하기 쉬운 측면도 있으므로, 먼저 ‘교갱’을 ‘노오’와 대비해 가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어서, 효과적인 설명과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적인 분류법에 따라 ‘양극(兩劇)’의 유형을 알아 보기로 한다.

4. 1. ‘노오’와의 대비를 통해 본 ‘교갱’의 성격

‘교쟁’은 ‘노오’와 통칭해서 ‘노가쿠(能樂)’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교쟁’과 ‘노오’를 혼동해서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다. 더구나 무로마치(室町)시대 초기인 14세기 중엽 이후 약 600여년에 걸쳐, 같은 무대에서 교대로 연희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혼동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두 연극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해 보면, 매우 이질적인 연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대조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먼저 극의 성격면에서 ‘노오’는 비극적인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교쟁’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희극 또는 소극(笑劇)이다. 따라서 ‘노오’는 전통 비극의 일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역사극·시대극적인 요소가 강하고, 신불(神佛)·귀족·무사가 주역을 담당한다.

반대로 ‘교쟁’은, 당시로서는 현대라고 할 수 있는 중·근세가 무대이면서, 신분이 낮은 서민들이 극의 흐름을 주도하고 활약을 한다. 또한, ‘노오’는 노래와 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무극(歌舞劇)인데 비해서, ‘교쟁’은 가무가 활용은 되지만 어디까지나 말이 중심이 되는 대사극이라 할 수 있다.

4. 2. ‘탈춤’과 ‘교쟁’의 분류

‘탈춤’과 ‘교쟁’의 계통이나 분류 방법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아니지만, ‘양극(兩劇)’, 특히 ‘교쟁’의 용어 정리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전문 배우들이 유파(流派)를 형성하고 세습에 의해 전수를 해 온 ‘노오’나 ‘교쟁’과는 달리, ‘탈춤’은 비전문 연희자인 일반 민중들에 의해 전해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탈춤’의 경우는 정형화된 유파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소연희 집단에 의해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형태로 발전, 전승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탈춤’의 분류는 자연히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춤’을 분류하는 방법론에는 몇 가지 다른 주장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분류법에 대한 깊은 접근은 유보하고, 지역성과 계통을 고려하여 편의상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⁵⁾.

- ①서남국 계통: 하회 별신굿 탈춤, 강릉 관노굿 탈춤 등
- ②산대도감 계통: 양주 별산대 탈춤, 송파 산대놀이 탈춤 등
- ③해서 계통: 봉산 탈춤, 강령 탈춤, 은율 탈춤 등
- ④오광대 계통: 통영 오광대 탈춤, 고성 오광대 탈춤,

5) 金東旭.崔仁鶴.崔吉城.金光彦.崔來沃『개정판 韓國民俗學』새문社, 서울, 1994년 개정판, p.234참조.

가산 오광대 탈춤 등

⑤야유 계통: 동래 야유 탈춤, 수영 야유 탈춤 등

⑥기타: 북청 사자 놀음

‘교갱’은 현재 ‘오쿠라류(大藏流)’와 ‘이즈미류(和泉流)’라는 양대 유파에 의해서 작품이 전수, 공연되고 있다⁶⁾. 이 두 유파에 전수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대본집을 통해 현재까지 전해지는 작품을 모두 합하면 4~500편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현재 공연되고 있는 작품수는 ‘오쿠라류’가 약 200편, ‘이즈미류’가 약 250편이다. 단, 이들 작품은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두 유파의 작품을 합하여 정확히 263편이 현재 공연되고 있다.

‘교갱’의 작품은 주요한 등장인물이나 주제에 따라 비교적 짧은 단막극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유형별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제에 따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교갱’의 분류법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오쿠라류’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7종 분류법”을 활용하기로 한다⁷⁾. 이 “7종 분류법”은 각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이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①와키 교갱(脇狂言): 축의(祝儀), 경사스러운 일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교갱.

②다이묘 교갱(大名狂言):

지방의 실권자 또는 지주격이라 할 수 있는 ‘다이묘(大名)’가 주역인 교갱.

③쇼묘 교갱(小名狂言):

하인 또는 심부름꾼인 ‘다로카자(太郎冠者)’가 주역인 교갱.

④사위.여인 교갱: 처가를 방문하는 사위, 현모양처를 기원하는 남자, 악처를 둔 남편 등, 남자들의 실패담이 중심이 되는 교갱.

⑤오니.야마부시 교갱(鬼.山伏狂言): 귀신이나 도깨비가 사람을 괴롭히는 내용, 또는 ‘야마부시(山伏)’라고 하는 수도자의 실패담이 중심이 되는 교갱.

⑥숫게.자토교갱(出家.座頭狂言): 종교적 특권층인 ‘승려(出家)’의 무지와 탐욕을 풍자한 교갱. 그리고 ‘맹인(座頭)⁸⁾’이 주역인 교갱.

⑦집교갱(集狂言):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잡다한 일

6) ‘교갱’은 17세기 무렵부터 ‘오쿠라류(大藏流)’와 ‘이즈미류(和泉流)’ 외에 ‘사기류(鷺流)’를 덧붙여, 3대 유파 시대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그 중 ‘사기류(鷺流)’는 19세기 중엽의 메이지 유신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서는 소멸되고, 현재는 지방의 군소 집단이 남아 있을 뿐이다.

7) 小學館 편, 『日本古典文學全集 狂言集』東京, 小學館, 1972. p.18~27 참조.

8) 장애자를 골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장 저급한 수준의 웃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교갱’의 무대가 되는 중.근세의 서민 세계에 있어서는 아직 그러한 의식이 뿌리 내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탈춤’에서도 오광대와 야유 계통에 일명 “황봉사”가 등장한다.

화(싸움.도둑.사기 등)들이 모여 있는 교경.

4. 3. ‘탈춤’과 ‘교경’의 연극적 특성

(1)구성의 특징

‘양극(兩劇)’의 형식, 즉 구성에 관하여 살펴 보자. ‘탈춤’은 독립된 여러 개의 ‘과장(科場)’ 또는 마당이 어우러져 한 편의 작품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 인물이나 주제가 과장과 더불어 계속 바뀌면서 이어져 나간다.

이에 비해서, ‘교경’의 경우는 한두 사람의 주요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비교적 짧은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예를 들어 ‘교경’의 각 작품은 마치 한 편의 “단막극”과 같고, ‘탈춤’은 이를 합성한 “옴니버스 또는 단편집”이라고나 할까! 달리 표현하면, ‘탈춤’의 각 과장은 그 길이와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한 편의 ‘교경’과 흡사하며, 전체적으로는 주제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교경’을 연속해서 연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표2>탈춤과 교경의 작품 유형 대비⁹⁾

내 용	탈춤의 과장 유형	교경의 작품 유형
종교.허위 비판	노장 과장	出家.山伏狂言
권력.권위 비판	양반 과장	大名.小名狂言
서민 생활의 애환	할미 과장	集狂言

작품의 구성과 길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2>와 같이 주제면에서 흥미로운 대비가 가능해진다. 내용과 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비사실주의적 정형성(定型性)

일반적으로 동양의 전통극은 서양 연극식의 사실주의적 전개를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가『시학』에서 규정한 연극(비극)의 여섯 가지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¹⁰⁾. 다시 말해 전통적인 동양 연극은 서구

9) ‘탈춤’에서 주로 불교와 승려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과장은 ‘탈춤’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노장 과장.노승춤 과장.상좌춤 과장.팔목중춤 과장 등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특별한 전제가 없는 한 대표적으로 노장과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양반 과장의 경우, 오광대와 야유 계통에 영노 과장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양반 풍자 과장이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양반 과장만을 대상으로 한다.

10)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비극을 대상으로 연극이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내적 요소인 줄거리(플롯).성격 묘사.사상과, 외적 요소인 대사의 구성.음악.무대 의상이다. 『世界の大思想 4.アリストテレス.詩學 他』, 東京:

적,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연극과는 형식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탈춤’과 ‘교쟁’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정한 줄거리의 연결성, 즉 플롯의 개념이 거의 등한시되고 있다. ‘양극(兩劇)’에 있어서의 스토리의 전개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비연속적이면서 양식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를 연극의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Bertold Brecht가 중국의 무극 연구에서 지정한 바 있는 “소외 효과의 기법”에 포함될 수 있다¹¹⁾.

이렇게 양식화된 성향이나 비연속적, 소외 효과적 특성을 가리켜 “정형성”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탈춤’과 ‘교쟁’에서 볼 수 있는 정형성의 유형을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① 등장인물의 자기 소개 또는 상호간 소개

‘교쟁’의 등장인물은 거의 예외없이 가장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체적으로 극의 시작 부분에서 자기 소개가 모두 끝나지만, 도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는 그 시점에서라도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교쟁’에서는 이러한 자기 소개의 방식을 가리켜 “나노리(名乘; なのり)”라고 하는 고유한 명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양식화되어 있다.

“나노리”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¹²⁾.

- | | |
|-------------------------------------|--------|
| ㉑다이묘(大名): 먼 나라에서 온 틀림없는 다이묘라오. | 「墨塗」 |
| ㉒서민(百姓): 느닷없이 나타난 이 몸은 …… 나라의 백성이오. | 「餅酒」 |
| ㉓다이묘(大名): 나는 누구나 잘 알 만한 인물이오. | 「二人大名」 |
| ㉔주인(主): 나는 이 근방에 사는 덕이 많은 사람이오. | 「千鳥」 |

㉑㉒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보통이지만, ㉓㉔처럼 우회적인 소개를 통하여 관객의 추측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특이할 만한 사항은, 자기 소개에 사용하는 대사의 형태가 대부분의 경우 위와 같은 예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쟁’의 정형화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탈춤’의 경우 역시 비슷한 기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교쟁’에 비해서 그 형태가 다양한 편이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간에 서로 소개를 한다든지, 먼저 등장한 인물이 다음에 나오는 이를 소개하기도 한다.

河出書 房新社, 1974. p.361-362 참조.

11) Brecht, Bertold. "Alienation Effect in Chinese Acting" *Brecht on Theater*, Trans and Notes. John Willet. London: Methuen and Co, 1964. p.92.

12) ‘교쟁’의 대사는 다음 문헌에서 인용.

岩波書店 편, 『日本古典文學大系 42-43 狂言集 上, 下』 東京: 岩波書店, 1960.

단지 등장을 알리기만 한다면, 한마디 말을 거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등장인물의 정체를 감지하게 하는 형태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¹³⁾.

㉞말뚝이: 쉬-, 양반 나오신다. 양반. ……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봉산탈춤」
 ㉞양반: 나온 집에 말뚝이나 한 번 불러볼까. 이놈, 말뚝아-. 「고성오광대」
 ㉞완보: 너이들이 대관절 명색이 무어냐?
 팔목중들: 우리들은 중이다. 「양주별산대놀이」
 ㉞할미: 영감아-. 영감아-. ……
 (관중을 향하여) 여기 영감 한 분 안 지나갑디까? 「동래야유」

이처럼 ‘양극(兩劇)’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자기 소개 방식은, 사실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연극으로서의 플롯을 무시한 단순한 기법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지엽적인 부분을 축약하고 보다 빠르게 주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등장인물의 신분과 내력 그리고 현재까지의 상황 등이 보다 복잡하고 긴 전개 과정을 통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빠른 템포로 전개되는 희극으로서의 장점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양극(兩劇)’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기 소개의 기법은, 풍자극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의 일치 또는 무구별

‘탈춤’에서는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동일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송파산대놀이」의 ‘신장수춤’에 등장하는 신장수는, 관중들을 둘러보면서 “아하! 장 한번 잘 췄다. …… 옛이나 한번 팔아 보자. 옛 사시오, 옛!” 하며, 공연 장소인 송파 시장을 극중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극의 도중에 관객이나 악사가 참여하는 행위도,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를 구별하지 않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교쟁’의 경우, 무대가 극의 내용에 맞게 장식되지 않았는데도 무대의 일부를 극중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연 장소 자체를 극화하거나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는 무대극으로서의 ‘교쟁’이 마당극인 ‘탈춤’에 비해 보다 연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13) ‘탈춤’의 대사는 다음 문헌에서 인용.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중요무형문화재 탈춤대사집』

③관객과 악사의 참여

대부분의 동양 전통극에서는 관객의 참여적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 정신적·공간적 측면에서 연기자와 관객이 엄격하게 차단되어 있는 서양 연극과는 달리, 관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때때로 극중에 연기자 쪽에서 관객의 동참을 유도하는 경우조차 있다.

‘탈춤’의 경우도, 고정된 무대가 따로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이 곧 공연의 장소가 되는 특성 때문에, 관중석까지 포함한 놀이판 전체가 무대화되어 관객의 참여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극중에서 전개되는 내용에 대해 관객이 비난이나 동의의 감탄사를 발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다. 나아가 연희자가 관객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물음으로써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또한 ‘잰이’라고 하는 악사가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응수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 관객의 참여가 비교적 돌발적인데 비하여, 잰이의 참가는 대사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탈춤’에 있어서 관객이나 악사의 참여는 극의 흐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연기자와 관객 간에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 때 관객은 객관적·배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동체적인 참가자로 변모하는 것이다.

또한 관객이 극중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극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 전개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할멈: 아이고 허리야.

잰이: 윈 할멈이야?

할멈: 나도 윈 할멈이올세.

잰이: 난지 본향을 말협소.

할멈: 난지 본향, 난지 본향, 전라도 망막골 …… . 「강령탈춤」

‘탈춤’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비사실주의적 양식은 연극적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연극을 연극적인 규약의 세계에 가두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로서 즐기는 자연스러움과 어우러짐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사실주의의 한국적 재창조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이다.

이에 비해, ‘교경’의 경우는 역사극·비극적 성향이 강한 ‘노오’와 오랫동안 공존의 길을 걸어 왔기 때문에, 희극적 자유로움이나 즉흥성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탈춤’과는 달리 무대극이기 때문에 관중의 참여는 자연히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극중 사건의 전개에 대해 관객이 웃음이나 탄성을 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거의 없다. 그리고 연기자가 관객에

게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도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무대극인 ‘교갱’에 비해 마당극인 ‘탈춤’이 누리는 즉흥성이 훨씬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다.

(3) 등장인물의 유형

‘탈춤’과 ‘교갱’은 발생 당시의 현실세계를 무대로 삼아 서민들의 관심사와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그린 풍속극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일상세계와 관련되는 여러 형태의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하지만 풍속극으로서는 등장인물의 종류가 의외로 다양하지 않고, 그 유형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탈춤’의 경우는 한 편의 작품에 주제가 다른 여러 종류의 과장이 들어 있으므로, 각 작품마다 여러 부류의 등장인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를 과장별로 구분해 보면, 결국 수 명의 인물에 의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교갱’은 한 편의 길이가 짧은 만큼 등장인물도 적은 편으로, 대부분 2~4명 정도이다. 등장인물의 인원에서도 ‘탈춤’의 한 과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가 있으므로 등장인물 또한 당시의 서민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비교적 여러 형태의 인간상이 출현한다.

그런데, 이들의 호칭은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보다는 신분이나 직업, 또는 인물의 성격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호칭이, 곧극의 배경이나 주제를 암시한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양극(兩劇)’의 등장인물을 대비한 <표3>을 보면, 호칭의 상징성은 물론이고 인물의 유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탈춤’과 ‘교갱’의 주요 등장인물 비교

등장인물의 유형	탈춤의 등장인물	교갱의 등장인물
종교(불교)문제 관련 인물 ~ 승려.파계승	노장.먹중.취발이	승려.山伏(야마부시) ~ 종교적 특권층
사회(계층)문제 관련 인물 ~ 지배층.지주	양반.샌님	大名(다이묘).小名(쇼묘) 主(주인)
가정(생활)문제 관련 인물 ~ 일반 서민	영감.할미.첩	농민.상인.職人 아내.여자
풍자를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	말뚝이.취발이	太郎冠者(다로카자)
기 타	소무.봉사 원숭이.사자	座頭(맹인).도둑.사기꾼 동물들

등장인물들의 이러한 상징적인 호칭을 통하여, ‘양극(兩劇)’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층이나 집단의 문제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한편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크게 종적인 관계와 횡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종적인 관계란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를 의미하며, 횡적인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말한다.

<표4> 등장인물의 상호 관계

상호 관계	탈 춤	교 갱
종적인 관계	①양반.샌님 ↔ 말뚝이 ②노장 ↔ 취발이	①大名.主 ↔ 太郎冠者 ②승려.山伏 ↔ 민중
횡적인 관계	영감.할미.첩.소무 봉사	농민.상인.職人.아내. 여자.맹인.도둑.사기꾼

<표3>과 <표4>를 통하여, ‘탈춤’과 ‘교갱’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유형과 관계 설정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구도(양반/다이묘, 노장/승려)가 거의 동일하며, 이들과 대립하여 비판을 주도하는 인물이 비슷하게 존재한다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5. ‘탈춤’과 ‘교갱’의 諷刺性에 관한 고찰

5. 1. 풍자의 정의와 효용

웃음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해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듯이, 풍자 또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애써 그 의미를 규정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

풍자란, 사회 또는 개인이 안고 있는 특정한 현실에 대하여 결함이나 약점, 과실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이끌어 내어, 그 “모순에 대해 웃음을 통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인간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희극적 심판이라고나 할까!

동시에 이러한 비판과 냉소의 배경에는 불합리한 현실과 대조되는 일종의 이상적인 형태의 사회나 인간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분히 주지적이고 의도적인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사회나 인간상이 풍자를 통해 조금이나마 달성될 수 있다면, 그 경우의 풍자는 충분한 효과를 얻은 셈이 된다. 더구나 그것이 웃음으로서의 풍자에 그치지 않고 희극 속에서 나타나는 풍자일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 즉 교정(矯正)의 효과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희극 속에 내포되어 있는 풍자의 목적은 관객에게 단지 유쾌함만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교정의 효과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파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보통 희극에 있어서의 풍자의 소재는 개체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인 요소가 부각된다. 즉 희극에서의 풍자는 보편성을 바탕에 두었을 때 의도하는 교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의도와 이상을 가지고 행해지는 풍자도 있으려니와, 단지 일상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보편성에서 벗어나는 요소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건강한 웃음을 유도하는 풍자도 있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골계적 풍자 또는 해학적 풍자라고나 할까!

희극의 풍자성을 반드시 사회 계몽적인 관점이나 민중의 저항 의식적인 측면으로만 보려는 시각은 지나치게 의도적인 해석이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탈춤의 웃음에 관한 60~80년대의 연구들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향인데, 그러한 분석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비판하는 자세 또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5. 2. '양극(兩劇)'의 풍자에 담겨 있는 “3대 갈등구조”

그렇다면 ‘탈춤’과 ‘교쟁’에서 펼쳐지는 풍자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자.

유형과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탈춤’에서 나타나는 풍자의 형태는 대부분 다음과 같이 “3대 갈등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①노장의 탐욕과 파계 ⇒ 종교(불교) 문제

②양반의 무능과 실권 ⇒ 사회(계층) 문제

③영감의 외도와 할미의 질투 ⇒ 가정(처첩) 문제

이러한 구도는, ‘탈춤’의 대표적인 3대 과장인 “노장 과장.양반 과장.할미 과장”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런데, ①②③이 각각 종교.사회.가정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다른 문제 또한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②에는 기존의 신분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유교적 질서에 대한 반발이라는 종교적 갈등의 측면을, 그리고 ③에는 당시의 혹독한 서민들의 생활상이 엿보이는 사회 문제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표3>과 같이, ‘탈춤’에는 당시의 민중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되어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각각 뚜렷한 주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간에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위의 “3대 갈등 구조”는, <표2>와 <표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①종교 문제에 대한 갈등 구조는 “숫케(出家).야마부시(山伏)교쟁”에 나타나며, ②계층 문제의 갈등은 주로 “다이묘(大名).쇼묘(小名)

교경”에서 볼 수 있다. ③가정 문제의 경우는 ‘탈춤’과는 다소 색깔을 달리 하지만 일단 “집(集)교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양극(兩劇)’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들어 보자면, ‘교경’에는 종교적 갈등의 하나로서 야마부시(山伏)라고 하는 일종의 수도자들에 대한 풍자가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이 가정 문제의 형태가 ‘탈춤’의 “처첩 문제”와는 달리 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탈춤’에 비해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야기나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더욱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점이다.

결국 위의 “3대 갈등구조”는 ‘양극(兩劇)’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모두가 일상적 질서에 대한 비판 내지는 저항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갈망의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중심으로 ‘양극(兩劇)’에서 나타나는 풍자성의 특성을 구분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단,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양극(兩劇)’의 대표적인 풍자의 세계가 그려져 있는 “종교 문제”와 “계층 문제”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가정 문제와 서민들의 생활상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할 생각이다.

5. 3. 종교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

(1) ‘탈춤’ : 노장의 환속(還俗)과 신구(新舊) 대립

한반도에 있어서 불교는 4세기 후반에 고구려와 백제에 전래된 이래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상하를 막론하고 폭넓게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고려 중엽 이후 불교에 대한 지배층의 숭배가 과도해지면서 부패한 사찰이 늘어나게 되었다. 심지어 백성을 사취하고 정권을 농락하는 승려가 등장하는 등, 민심을 어지럽히는 타락상이 이어졌다. 따라서, 당시 민중들의 불교에 대한 반감은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이른바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으로 인하여 사찰의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나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민중들에게는, 속세의 탐욕에 젖은 파계승이나 허위에 찬 고승이 있었다면 상당한 반감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동시에, 고려시대에 민중들이 입었던 피해의식의 잔재가 발생기의 ‘탈춤’에 반영되어 이어져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탈춤’에 있어서 불교에 대한 풍자는 노장과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과장은 해서 계통과 산대도감 계통의 ‘탈춤’에서는 아주 밀도있게 다루고 있으나, 오광대와 야유로 대표되는 ‘남부형 탈춤’에서는 간단하게 취급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최상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¹⁴⁾.

…… 중부 및 이북 지방보다는 이남 지방, 특히 대사찰이 많은 영남 지방에는 보다 불교의 영향력이 큰 데서 자연히 이와 같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중서부의 ‘탈춤’이 종교성이 강한 반면, ‘남부형 탈춤’은 사회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에는 위와 같은 종교적 요인과 동시에 사회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도시 탈춤’이 뿌리를 내린 조선 후기의 사회 상황을 보면, 수도권의 집권층 양반들에 비해 지방의 하급 관리나 향반(鄕班)들의 횡포와 부패가 더 심했다는 것이다. 당시에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변방에서의 탐관오리와 토착 양반들의 파행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오광대나 야유에 그려져 있는 양반들의 행위 묘사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부형 ‘탈춤’에 있어서 승려들보다는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줄거리가 아주 짧은 하지만 남부형 탈춤에 등장하는 승려들의 묘사는 대략 이러하다.

[고성 오광대] 장삼 차림에 고깔을 쓰고 염주를 목에 건 광대중이 등장하여 나와서 각시(기생)들과 어울려 논다.

[통영 오광대] 승복을 입은 상좌중 둘이 염주 대신 장구채를 들고 나와서, 작은 어미(첩)를 사이에 두고 희롱하며 논다.

이 정도의 묘사로도 승려들의 세계를 조롱하려는 의도는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사가 거의 없는데다 등장하는 중들이 젊고 신분이 낮다는 점 등을 볼 때, ‘중부형 탈춤’에 비해서 그 비판도가 낮은 것은 확연한 사실이다.

해서 계통과 산대도감 계통에서의 노장 과장의 전개 과정은 자못 과격하기까지 하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등장인물들이 제각기 노장에 대하여 일방적인 공격을 퍼붓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사건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젊은 중(목중)이 스승인 노장을 속세의 놀이판으로 불러 들인다.
2. 노장은 젊은 여자(소무)의 유혹에 빠져 환속의 길로 들어선다.
3. 노장은 소무를 유혹하는 신장수 등을 퇴치하고 소무와 즐긴다.
4. 소무를 두고 노장과 취발이가 싸움을 벌이고, 결국 패배한 노장이 도망친다.
5. 취발이가 소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춤을 추며 퇴장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노장이 제자격인 젊은 중의 꼬임에 빠져 환속하고 여인의 유혹에 넘어 가는가 하면, 급기야 파계승이자

14) 최상수『야유·오광대 가면극의 연구』서울: 성문사, 1984. p.86.

천하의 망나니인 취발이에게 조롱을 당하는 등, 굴욕의 연속이다.

특히 노장과 취발이의 갈등 구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먼저, 노장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 고승이고 취발이는 파계승이다. 또한 기력이 약한 노인인 노장과 힘이 세고 젊은 취발이를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탈의 모양이나 색깔에서도 상징적인 대비가 나타난다. 노장의 탈은 전체적으로 검은 색을 띄고 있는데 반해, 취발이는 붉은 계통이다.

마지막으로, 패배해서 사라지는 노장과, 젊은 여인(소무)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는 취발이를 대조시키고 있다.

노장: (취발이를 후려치고 벌떡벌떡 하면서 장삼을 벗고 소매를 걷는다)

(취발이가 노장 뒤에 가서 귀롱가지로 어깨를 딱 치니, 노장은 얻어 맞고 겁이 나서 소무 가랭이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

취발이: 이놈이 매를 맞고 어디로 달아났어. 중이란 절간에서 염불이나 하고 있지 뭘 하러 내려 왔어. 저년들은 내 계집이다.

노장: (화가 나서 소무 가랭이 속에서 반신을 내민다)

취발이: 이게 무슨 망령이시오.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 가지시오.

(하면서 귀롱가지로 땅을 친다) ……

그러면 그렇지. 중놈이란 뉘가 물르기가 한량없어.

노장: (할 수 없이 소무 하나를 데리고 퇴장한다)

「양주별산대놀이」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두 인물의 갈등 구조는 축제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울과 여름의 대립”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불교와 승려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측면과 동시에 “신구(新舊) 교체, 그리고 생산과 풍요의 세계”를 추구하는 제의적 요소 또한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장이 퇴장한 이후에 펼쳐지는 일련의 흐름은 그러한 제의적 요소가 한층 강화된다.

취발이와 소무의 성적 결합 ⇒ 아들의 탄생 ⇒ 임신양명을 위한 아들의 공부

결국 노장 과장에 있어서 최대의 갈등 관계인 노장과 취발이의 대립 과정은, 고승과 망난이 파계승의 대결이라는 측면 못지 않게, 늙음과 젊음, 비생산과 생산의 대비라는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서민의 수준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승의 정신적 경지를 탈판에서나마 허위와 위선이라는 명목으로 끌어 내리고, 이를 자신들의 무대인 현실 주의의 세계로 불러 들인 다음, 함께 어우러져 한바탕 놀이를 벌임으로써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일종의 “희극적 동일화 행위”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목중을 비롯한 승려들이 탈판에서 법도에 어긋나는 온갖 파행을 저지른 후, 결

국은 잘못을 뉘우치고 불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불교의 근본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 탈놀이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를 「봉산탈춤」에서 찾을 수 있다.

마부(목중): 사자야. 나의 하는 말을 자서히 들어 봐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

지금부터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 훌륭한 중이 될 터이니 용서하여 주겠느냐?

사자(부처님의 使者): (공정한다)

이상과 같이 ‘탈춤’의 노장 과장에서는 승려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치 않으면서도,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격하는 대결 자세를 취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 내려 놀이의 대상으로 삼아 마음껏 즐긴 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 놓는 민중의 지혜와 화합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2)‘교쟁’ : 승려와 야마부시에 대한 민중의 반감

중.근세 시대의 일본에 있어서 불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배층에게는 인정과 보호를 받으면서 민중들로부터는 깊은 신앙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쟁’에서는 승려들의 세계가 가장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인즉, 대부분의 경우가 무지와 탐욕, 호색에 관한 것이다. 그것도 신분이 낮은 중이나 시주로 연명하는 떠돌이 중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고, 주로 주지승과 같은 고승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교쟁’이 탄생한 중세 시대의 불교계와 승려들이 행해 온 무질서를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란기였던 당시에 종교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일수록 종교가 변성하는 예가 많듯이, 일본의 중세 시대 역시 불교의 수많은 종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였다. 동시에 기존의 종교적 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시대이기도 했다¹⁵⁾.

하지만 중세 시대 뿐만 아니라, ‘교쟁’의 정착기인 에도시대에 있어서의 사찰이나 승려에 대한 민중들의 반감 또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즉, 에도시대의 위정자들은 백성들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찰과 신사를 이용했고, 그 대가로 사원(寺院)에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그 특권 아래 불교의 권력 남용과 부패상은 한층 깊어져 갔다. 그러한 부패의 폐해는 결국 서민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급기야 위정자들도

15) 北川忠彦.安田 章 校注『日本古典文學全集 狂言集』東京: 小學館, 1972. p.24 참조.

손을 대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고, 지배층 역시 당시의 사원에 대해서는 점점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민중들과 지배층의 생각이 일치하면서, ‘교쟁’의 세계에서는 사원과 승려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따끔한 풍자가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주지승과 같이 사찰을 소유, 운영하는 고승들이 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사찰의 타락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승의 물욕(物慾)을 재미있게 풍자한「布施無經」라는 작품이 있다.

주지승이 어느 부자집에 지나는 길에 들른 것처럼 찾아 간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 이것 저것 듣기 좋은 말을 늘어 놓기도 하고 불경에 관한 이야기도 나눈 후 일어서는데, 주인이 좀처럼 시주를 할 생각을 않는다. ‘시주’라는 말을 여러 번 인용해 가며 설교를 해도 주인이 알아 듣지를 못하자 하는 수 없이 돌아선다.

하지만 장삼을 두고 간 것 같다며 다시 돌아와서는 또 다시 시주와 관련된 설교를 한다. 겨우 눈치를 챈 주인이 시주 돈을 들고 나오자, 그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며 사양하는 척 한다. 그러자 주인이 붓집 속에 시주돈을 억지로 집어 넣다가 그 안에 장삼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교쟁’의 풍자는 ‘탈춤’에 비해 결코 과격하진 않지만, 사건의 전개가 비교적 탄탄하고 풍자의 양태와 방법이 극중의 인물에 그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의 결점까지 건드릴 수 있는, “보편적 풍자”가 많다는 점이 강점이다.

승려와 함께 풍자의 대상이 되는 종교인으로 ‘야마부시’가 있는데, 그 이름(山伏)에서 알 수 있듯이 산 속에서 법력이나 신통력을 닦던 수도자들을 가리킨다. 종교적 번영기였던 중세 시대에는 불교와 더불어, 산악 수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험도(修驗道)가 매우 번성하였다.

당시 서민들의 세계에서는 수험자(修驗者)들이 나는 새도 주문을 이용해 떨어뜨릴 정도로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서민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한편, 어려운 때를 위하여 봉양을 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서민들의 복잡한 심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야마부시 교쟁’이다. 대표작 중의 하나인「柿山伏(감 야마부시)」를 예로 들어 보자.

야마부시: 나는 명산에서 오랜 수행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야마부시올시다.

…… 나는 날아 가는 새도 눈 앞에 떨어뜨릴 수 있는 법력을 닦았소.

…… 그런데, 배가 고프니 저기 감나무에 열려 있는 홍시나 하나 따 먹을까!

…… 수리 수리, 떨어져라. ……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떨어지지 않자, 급기야 나무에 올라가서 따 먹는다. 그런데 그때 감나무 주인이 나타난다.)

주인: (야마부시가 가지 뒤에 숨는 것을 보고)

저 나무 위의 잡것이 까마귀다냐?
야마부시: (까마귀 흉내를 낸다.) 까악 까악.
주인: 아, 그러고 보니까 원숭이구나!
야마부시: (필사적으로 원숭이 흉내를 낸다.) ……

이런 식으로 야마부시의 신통력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폭로하면서, 일반 서민들이 야마부시를 골탕 먹이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교쟁’에 등장하는 야마부시들이 한결같이 자신의 신통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주문이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는데도 지금까지의 수행을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법력을 닦았다고 외친다. 그러다 우연의 일치로 기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라도 하면 어린 아이처럼 즐거워한다. 이러한 묘사는,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 속에서 비현실적인 수행을 계속하는 야마부시들이 얼마나 자기 도취적이고 유치한지를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숫케 교쟁’에서 승려들이 보여 주는 자신감없는 행동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교쟁’에 그려져 있는 종교적 풍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나 사상에 대해 확신이 없이 설법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실수마저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기 도취적인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동시에 비판하는 높은 수준의 풍자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쟁’의 풍자는 지배층에 대한 내용보다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날카롭고 구체적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무로마치 시대부터 에도시대에 걸쳐서 쌓여 온 사찰과 승려에 대한 반감이 배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수도승들인 야마부시에 대한 불신이 겹쳐 있는 것이다.

하지만 ‘탈춤’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가르침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식의 과격한 비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교쟁’은 역시 “화락(和樂)의 희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5. 4. 계층 문제에 있어서의 갈등 구조

(1) 풍자의 주역 ‘말뚝이’와 ‘다로카자’

‘탈춤’과 ‘교쟁’이 지니고 있는 많은 유사성 중에서도 말뚝이와 다로카자의 역할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유쾌하게 펼쳐지는 풍자의 세계를 주도하며 양극을 가장 희극답게 이끌어 가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 성격과 언행, 복장 등에 있어서 등장인물중 누구보다도 희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코메디아 델라르테 (commedia dell'arte)에도 등장하는 피 많고 게으른 하인의 전형이다. 둘의 성격은 공통적으로 낙천적이며 놀이를 매우 좋아한다. 또한 중.근세의 엄격한 신분 제도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인에게 방자하

게 굴며 주인의 약점에 대해 매우 직설적인 지적을 서슴치 않는다. 이들은 주인에게 시중을 들면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주인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다 당연히 불만도 가장 많았을 것이다.

말뚝이와 다로카자가 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인물은, 권력과 권위의 상징이자 자신들의 주인인 ‘양반’과 ‘다이묘’이다. 당대의 특권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말뚝이와 다로카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항상 호위호식하며 괜한 허세만 부리는 인물로 비쳤을 것이다. 이렇게 권위의 뒷면에 숨어 있는 허세와 무지에 대하여 매서운 풍자의 화살을 던지는 것이다.

(2)‘탈춤’ : 양반에 대한 항거와 화해

민중 위에 군림하는 양반에 대한 통렬한 풍자는 탈춤을 가장 탈춤답게 해 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취발이가 민중의 입장에 서서 종교적 대선배인 노장의 허위를 비판하며 서민세계의 솔직하고 본능적인 세계로 끌어 내리듯이, 말뚝이는 자신의 상전인 양반의 허세와 무지를 폭로하여 놀이판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하인이 상전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것은 당시의 현실세계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탈판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공간에서만 가능한 통쾌한 역전인 것이다.

대부분의 양반 과장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전개된다.

1. 양반이 등장하여 자신의 위엄을 과시한다
2. 말뚝이의 도전과 비판에 의해 양반의 권위가 실추된다
3. 양반은 말뚝이를 몰아 세우면서 권위를 되찾으려 한다
4. 말뚝이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 놓는다
5. 양반은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안심한다

말뚝이는 양반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보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양반의 무지와 허점을 파고 든다. 양반의 말투를 흉내내거나 반어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양반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것을 양반은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고 말뚝이가 이끄는 대로 말장난에 말려든다.

말뚝이: 대부인 마누라가 말뚝이를 보더니 거부령 굽신 합니다.

원양반: 이놈 거부령 굽신이라니?

말뚝이: 눈이 그부령 굽신 하단 말이요.

원양반: …… 이놈 그래서?

말뚝이: 대부인 마누라가 말뚝이를 오르랍니다.

원양반: 이놈 말뚝아, 오르라니?

말뚝이: 마리 우로 오르란 말이요.

원양반: 해면 그렇지. 그래서?

「동래 야유」

결국 재치있는 말뚝이의 승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반은 말뚝이의 변명을 듣고 납득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상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어딘가 모자란 듯한 양반의 무지와 실수가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탈판에 등장하는 양반들은 신분에 걸맞지 않게 한결같이 무식한데다 권위와 체통을 지키지 못한다. 게다가 부도덕한 점까지 속속 드러난다.

이렇게 탈판에서 펼쳐지는 양반의 행동거지를 통하여 양반 풍자의 핵심적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민중들은 말뚝이라는 대변자를 통하여 양반들의 어떤 부분에 비판을 가하려 했을까.

무엇보다도 양반의 권위와 체통에 대한 도전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양반이라는 호칭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조차 한다.

「봉산탈춤」의 한 장면을 보도록 하자.

말뚝이: 쉬-, 양반 나오신다. 양반. 양반이라고 하니까 ……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재잘양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양반들: 이 이놈이 무엇이 어째?

말뚝이: 앗다. 이 양반.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 분이 나오신다 그리 하였소.

양반들: 이생원이라네.

두번째로 양반의 출신과 신분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말뚝이 자신의 조상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도 많다.

말뚝이: 소인의 근본을 들어 봅소. 우리 칠대 팔대 구대조께옵서는 남병사 북병사를 지내옵고, 사대 오대 육대조께옵서는 평양감사 마다하고 알성급제 도장원에 승지 참판을 지냈으니, 그 근본이 어떠하오.

양반: 이놈, 말뚝아. 네 근본 제쳐 놓고 내집 근본 들어 봐라. 기생이 여덟이요 내자가 열둘이요 능노군이 스물이요 마호군이 서른이라 그 근본이 어떠하노.

「고성 오광대」

위의 내용은 서로가 자신의 신분이나 근본을 내세우는 출신 논쟁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양반의 도덕적 타락상을 조롱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집안의 내력이나 조상 자랑을 하는 행위는 다분히 유교적 관습이라 할 수 있다. 말뚝이는 계층적 문제의 근본이 유교적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상류층인 양반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을 하면서도 자신도 양반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신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항거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불행한 입장에 대한 항변에 머물고 있다는 한계를 보

여 준다.

다음으로 민중들의 비판은 양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표적으로 한다. 본래 양반에게 있어서 가장 장기라고 할 수 있는 한문이나 시작(詩作)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며 하인인 말뚝이를 당해내지 못하고 찢쩍맨다.

끝으로 양반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판인데, 그러한 내용은 양반 과장 전체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지 못한 자신들보다 훨씬 학식이 높고 현명해야 당연한 양반들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작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다지도 한심한 양반들에게 어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지배자로 인정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항변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느끼게 한다.

한편 “4. 연극적 특성”에 있어서, 연극으로서의 ‘탈춤’이 지향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 또는 서양 연극식의 사실주의적 전개가 아니라는 것은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탈춤’의 미완성적인 구성은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양반 과장의 줄거리는 다른 갈등 구조에 비해 극적인 짜임새에 있어서 가장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양반 과장의 전개는 대부분의 경우 양반과 말뚝이의 느닷없는 싸움으로 시작되어 갈등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발전시키지 않고 끝을 맺는다. 특별한 상황의 전개나 연결성이 없이 화해로서 막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된 현실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그에 대한 극복까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 과장에서 묘사되는 내용이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최대의 항거였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존의 신분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일종의 하극상적인 사회 분위기를 그리고는 있지만, 아직은 민중 봉기가 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환경이 성숙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탈춤을 연희하고 관람하는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까지는 고양되지 않았던 것이다.

‘탈춤’에 대해, 양반을 향한 풍자를 넘어서 양반이 주도하는 현실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즉, 탈판의 분위기를 현실 세계에 적용시켜 지배층에 대한 직접적인 항거나 구체적인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이 ‘탈춤’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 쌓인 불만을 한바탕의 통쾌한 풍자와 웃음으로 발산하고, 다시 금 일상 속으로 돌아가 현실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견고한 봉건주의적 체제 속에서도 ‘탈춤’이 존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근세의 민중들이 지니는 한계임과 동시에 지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교경’ : 특권층에 대한 반발과 화락(和樂)의 웃음

‘교경’의 무대가 되는 중·근세 시대의 일본에 있어서 ‘다이묘’라고 하면 보통 일국의 통치자나 성주를 가리킨다. 하지만 ‘교경’에 등장하는 다이묘는 그렇게 대단한 신분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영주(領主)나 지주 정도의 신분이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전체적인 줄거리나 대사의 내용 뿐만 아니라 복장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主’라고 표시되는 인물은, 지역의 유지나 상업 세계의 점포를 소유하는 주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결국 다이묘는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주인(主)은 부(富)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다이묘는 항상 허세에 가까운 권위를 앞세우고, 주인은 어딘지 모르게 언행이 가벼워 보이면서 계산에 밝은 이미지가 느껴진다.

‘교쟁’에서 다이묘와 같은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풍자는 주로 ‘다이묘 교쟁’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묘 교쟁’의 대표작인 「二人大名」의 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두 명의 다이묘가 서울로 향하던 길에, 도중에서 동행하게 된 행인(다로카자와 동격)을 위협하여 하인처럼 부리면서 칼과 짐을 대신 들고 가게 한다. 그러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칼로 협박을 받게 되어, 입고 있는 옷까지 빼앗긴다. 게다가 닭 싸움과 개 울음 소리를 흉내 내는 등, 다이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행인: (다이묘의 등 뒤에서) 이 놈들, 당해 봐라. 둘 다 반으로 잘라 버리겠다.

다이묘 갑: 큰일 났네. 어쨌든 목숨만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행인: 이 놈, 목을 내리 치겠다.

다이묘 을: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지배층에 대한 이러한 통렬한 풍자는 현재의 ‘교쟁’에서는 그다지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 이는, 에도시대 이후 무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착하게 됨으로써 의식 예술로서의 축언성(祝言性)이 보다 중요시된 탓이다. 따라서 중세 격동기의 세태를 그린 통렬한 비판 의식은 약화되고, 그 대신 골계성과 화락(和樂)의 정신이 강화된 것이다.

이렇듯 ‘교쟁’의 풍자는, 비판이나 실패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은 축언과 화락으로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 「末廣がり(수에히로가리)」는 그러한 전개 양태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주인의 심부름으로 서울(京)에 ‘수에히로가리(끝이 펼쳐지는 부채)’를 사러 간 다로카자가사기꾼에게 속아 현 우산을 사오는 바람에, 주인은 화가 치밀고 다로카자는 곤경에 처한다는 이야기다. 다로카자는 처음부터 주인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 그리고 서울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인의 험담을 늘어 놓는다. 이렇게 엉뚱한 물건을 사오는 것으로 주인의 지시는 무시 당한 셈이 되고, 이에 주인은 대노한다. 하지만 결국은 두사람이 현 우산을 들고 함께 춤을 추며 끝을 맺는다.]

이렇게 하인이 주인의 말을 적당히 무시하고 지시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주인을 노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풍자의 전형인 반발의 표현이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비판이나 저항과 같은 강력한 풍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마지막에는 서로의 화를 가라앉히고 함께 춤을 추며 퇴장함으로써 화해의 분위기로 막을 내리는 것이다.

‘교갱’의 풍자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에는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약점과 부조리를 은근하고 유모러스하게 그리는 풍자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를 단지 풍자의 의미가 약해졌다고 비평하기 보다는, 보다 생명력있는 고도의 풍자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풍자의 목적이, 인간의 잘못과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쪽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엄격한 징벌의 결말을 요구한다면, ‘교갱’뿐만 아니라 ‘탈춤’의 풍자마저도 너무나 약한 것이며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는 셈이 된다.

풍자가 직접적이고 강력할수록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해받기 어려워지고 소멸되기 쉬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저항과 비판 정신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보와 화해의 결말을 이끌어내는 풍자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생명력 있는 풍자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갱’에서도 전국 시대라고 하는 하극상의 풍속을 배경으로 하는 지나치게 직접적인 비판극의 경우는, 에도시대에 그 수명을 다 하고 소멸되었던 것이다.

결국 ‘교갱’의 완성자인 ‘제아미(世阿彌)’가 웃음(희극)에 대해 정의한 바와 같이, “유현(幽玄)의 상류의 웃음, 얇은 미소 속에 즐거움이 스며 나오는 웃음”의 세계가 현재의 ‘교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제아미’가 표현한 웃음의 형태야말로 가장 일본적인 웃음의 전형이 아닐까 싶다.

이렇듯 ‘교갱’은 600여년 전에 ‘제아미’가 목표로 한, 고도의 인간 희극의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맺는말

이상 ‘탈춤’과 ‘교갱’에 관하여 그 “연극적특성”과 “풍자성”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 고찰해 보았다. 서로 다른 역사와 토양을 배경으로 발생한 두 연극이 이렇게도 다방면에 걸쳐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연극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지역과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경험의 한 실례를 보여 주는 듯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양극(兩劇)’의 기원이나 상호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유사성의 원인을 규명해 가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한 각도에서도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한편 유사성과 함께 많은 상이점도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발생 당시의 사회적

배경의 차이, 그리고 변천과정을 통하여 미친 영향의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교쟁’의 경우, 에도시대에 있었던 “무가(武家)의 보호”라는 특수한 경험이 현재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탈춤’은 지배층의 보호막 안에서 성장해 온 것은 아니지만, 양반과 민중의 사이에 암묵의 약속 내지는 최소한 묵인에 의해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축제나 희극사에서 그러한 예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탈춤’의 탄생과 발전이 민중의식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이거니와,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민중의 항거와 투쟁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편향된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탈춤’에서 볼 수 있는 갈등과 화해, 비판과 화합의 양면성이야말로 민중의 지혜라 할 수 있으며, 희극적인 생명력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교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쟁’은 중세의 혼란기인 하극상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 당시에는 ‘탈춤’과 비슷하게 직접적이고 과격한 풍자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에도시대를 거치면서 직접적이기 보다는 완곡하게, 특수한 대상보다는 인간세계 일반에 대한 비판으로, 풍자의 형태를 다듬어 온 것이다.

이번 논고에서는 한정된 지면에 많은 내용을 다룬 탓으로 각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양극(兩劇)’의 “연극적 특성”과 “풍자성”에 관하여 보다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한일간의 전통문화 교류의 일환으로서 ‘탈춤’과 ‘교쟁’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양극(兩劇)’의 현황과 역할, 이른바 “전통 희극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고찰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이다.

<주요참고문헌>

(한국문헌)

- 강용권 『한국의 민속극』 서울: 創作과 批評社, 1975.
강용권 『야유 오광대』 서울: 형설출판사, 1977.
김경태·신형식·이배용 공저 『韓國文化史』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6.
김광연 『한국의 민속놀이』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1982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서울: 일조각, 1971.
김열규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서울: 일조각, 1977.
김재철 『조선연극사』 서울: 학예사, 1939.
김택규 『한국민속문예론』 서울: 일조각, 1980.
박진태 『韓國假面劇研究』 서울: 새문社, 1985.
박진태 『탈놀이의 起源과 構造』 서울: 새문社, 1990.
서연호 『산대탈놀이』 서울: 열화당, 1987.
서연호 『황해도 탈놀이』 서울: 열화당, 1988.
서연호 『야유 오광대 탈놀이』 서울: 열화당, 1989.

- 송석하 「五廣大小考」 『朝鮮民俗』第一號 朝鮮民俗學會刊, 1933.
심우성 『韓國의 民俗劇』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5.
유승원 『朝鮮初期身分制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87.
이두현 『韓國의 假面劇』 서울: 일지사, 1979.
이두현 『韓國의 탈춤』 서울: 일지사, 1981.
이미원 「가면극과 제의」 『한국연극학』제2호, 1985.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집단과 탈춤의 연행」, 『七里 李光麟교수 퇴직기념 한국사 논문집』서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임재해 「민속극의 전개와 발전 과정」, 『한국의 민속 예술』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조동일 『탈춤의 역사와 원리』 서울: 흥성사, 1979.
최상수 『海西假面劇의 研究』 서울: 正東出版社, 1983.
최상수 『野遊.五廣大 假面劇의 研究』 서울: 成文閣, 1984.
최상수 『韓國民俗文化의 研究』 서울: 成文閣, 1988.
한국문화재보호협회 편 『중요무형문화재 탈춤대사집』

(외국문헌)

- 河出書房新社 編『世界の大思想 4.アリストテレス.詩學 他』, 東京: 河出書房新社, 1974.
北川忠彦.安田 章 校注『日本古典文學全集 狂言集』東京: 小學館, 1972.
小林 貢『狂言史研究』東京: わんや書店, 1974.
小林 貢.増田正造『能と狂言の世界』東京: 講談社, 1982.
小山弘志 校注『日本古典文學大系 42-43 狂言集 上,下』東京: 岩波書店, 1960.
小山弘志.北川忠彦『鑑賞 日本古典文學 第22卷 謡曲.狂言』東京: 角川書店, 1977
小山弘志 他『岩波講座 能.狂言 I ~ VII』東京: 岩波書店, 1987.
小山弘志 他『圖說 日本の古典12 能.狂言』東京: 集英社, 1980.
佐竹昭廣『下剋上の文學』東京: 筑摩書房, 1982.
杉森美代子『狂言研究 -考察と鑑賞』東京: 櫻楓社, 1969.
田口和夫『狂言論考 -説話からの形成とその展開』東京: 三彌井書店, 1977.
堂本正樹『能.狂言の藝』東京: 東京書籍, 1983.
鳥越文藏『歌舞伎の狂言 -言語表現の追求-』東京: 八木書店, 1992
野上豊一郎 編修『能樂全書 綜合新訂版 第三巻~第七巻』東京: 東京創元社, 1979.
林和利『能と狂言』東京: 世界思想社, 1994.
古川久 編『狂言辭典 (語彙編)』東京: 東京堂出版, 1963.
古川久 他『狂言辭典 (事項編)』東京: 東京堂出版, 1976.
山本東次郎『狂言のすすめ』東京: 玉川大學出版部, 1978.
Brecht, Bertold. "Alienation Effect in Chinese Acting" *Brecht on Theater*, Trans and Notes. John Willet. London: Methuen and Co, 1964.
Huizinga, Johan. *Homo Ludens: A Study of Play Element in Culture*, Boston: Beacon Press, 1955.
Turner, Victor.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The problem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as a national identity issue in contemporary South Korean popular historical writings

V. M. Tikhonov

1. Foreword.

Although more than five decades elapsed after the end of the nightmare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problem of position of the Koreans towards the "outer oppressing force" - i. e. the question of "the resistance and collaboration" - is steadily gaining more and more importance in popular consciousness as well as in the academia of South Korea. Manifold reasons for this seemingly "inappropriate" and "excessive" attention towards one of the features of the colonial society - the collus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various elites of the colonized people - can be found.

First, in ethnically homogeneous society still claiming to champion the Confucian values (the propriety of this claim should be discussed separately), prominently "the reverence towards the ancestors" and "fidelity towards the state", the question of to what degree the large part of the ancestors was loyal to the nation can not but receive special attention. In academia, which, in my personal opinion, remains the only almost totally Confucian part of the society, "national history" is still largely understood as the branch of learning aimed at separating "the sheep" of "fidelity" from "the goats" of "the treason" and consequently "meting out" of justice, if only through the historical text - the sacred "mirror" for the generations to come. It should be also added that in case of a frequently invaded country, much dwarfed by larger and not always peace-loving neighbours, the academic and public attention towards the question of racial loyalty (and disloyalty) in history can be really needed to mould the unconscious feeling of "blood unity" into the highly developed nationalistic consciousness necessary for the ultimate object of national survival. So, the minute attention many today's Korean historians pay to the attitude of their personages towards the Japanese can seem rather "unacademic" by Western standards but very well understandable from the insiders' point of view¹⁾.

Second, and most important, with the academical success and growing

popularity of *minjung* historiography (the term *minjung* literally means "people's masses" and usually designates the totality of the ruled as opposed to "the rulers") in 1980th, the problem of "collaboration" began to receive attention from new viewpoint. While for traditional historians the question of "pro-Japanese activities" was mainly personal ethical problem of "faithfulness" and "apostasy", *minjung* historiography adopted seemingly much more scholarly approach, attempting at analysis of socio-economical roots of Late Chosŏn and colonial elites' largely favorable attitudes towards colonization. Pointing out to the "dependent" and "peripheral" position of Korea from Kanghwa Treaty (1876) up to present days in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he progressive historians assume that in such cases local "comprador capital" (usually acting in collusion with almost omnipotent bureaucratic system) is mostly prone to collaborate with foreign capital (and his political agents - the colonizers) thus guaranteeing its privileged position locally. Regarding the "pro-Japanese elements" not as just "treasonous subjects" but as agents of "colonial capitalism" and "colonial bureaucracy" and proponents of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 *minjung* adepts emphasized also the "semi-colonial" and "dependent" nature of modern Korean capitalism as "successor" to the "deformed" bureaucratic capitalism of Japanese times, and the role of "people's masses" who had to fight against both colonizers and local compradors. In fact, it is hard to deny that Late Chosŏn bureaucratic and comprador elite, in complicity with Japanese military and bureaucratic capital, did guarantee its privileged position by reducing its country to the status of discriminated colonial periphery of capitalist world-system - the status divided Korea still can not fully free itself from. Still, it is not clear whether Late Chosŏn had enough resources and strength to renovate itself in a series of Meiji-like reforms which are thought to be the only viable alternative to colonization. It also still remains to be examined how clearly the members of late Chosŏn pro-Japanese elite could anticipate the harshness and hopelessness of colonial reality they actively helped to construct. It seems that, at least, some of the actively pro-Japanese members of former "Enlightenment Party" (the leaders of abortive 1884 coup) naively believed that annexation of Korea by Japan (1910) was a "temporary measure"

Vladimir. Tikhonov - South Korea, KyungHee University

- 1) On the validity of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history in modern Korean society cf.: Han Yŏngu, "Our history rethought" ("Tasi ch'annŭn uri yŏksa". Seoul, 1998, vol. 3, pp. 3-6).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progressive reforms" and that the freedom would be returned to Korea when it would become "reasonably developed". The agents of history are never fully aware of the all possibl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not only immediate material interests but also fallacious beliefs can sometimes account for the grossest of misjudgments in history.

Third, the reason the theme of "pro-Japanese activity" is so popular not only with professional historians but also in semi-academical historical writings can be found in some peculiarities of South Korea's social structure. For many years, many fields in policy, education, religion or arts in South Korea have been dominated by cliquish groups whose leaders usually wielded some influence before the Liberation and then reassured their status through the collusion with Rhee Syngman's regime (or, in some cases, through the leadership in anti-Rhee Syngman organizations). In fact, colonial technocratic elite was the only force Rhee, the politician who had no clear support base on his return to the country, could trust. In fact, in many cases, only client-patron relationship (of the type known in Japan as *oyabun-kobun* system) with such influential "leader of the field" whose prominent position dated back to colonial and Rhee Syngman period could make an individual a member of a given profession. For example, the influence of Cho Yŏnhyŏn (1920-1981) or Sŏ Jŏngju (b. 1915) in literary circles, Lee Byŏngdo's authority in the field of "national history", Yu Jino and his disciples' clout in the sphere of law, No Ginam (1902-1984)'s "lineage"'s "reigning" over the Catholic Church or Sin Hyŏnhwak's (b. 1920) prestige among the bureaucrats and industrialists hailing from Taegu region were almost unquestionable. Their dominance could not but affect negatively the young and aspiring members of the respective occupations, not affiliated with the "patriarchs" and thus unable to enjoy the benefits of their patronage. Being also much irritated by unabashed conservatism (or just apolitical attitude) of the "leaders", "young rebels" had to keep silence in the period of successive military dictatorships but seized the opportunity to vent themselves in the atmosphere of general liberalization following the start of Roh Tae Woo's presidential term in 1987. In still "patriarchist" society, the system of personal dependence on influential "leader" itself hardly can become an accepted target of criticism: so, many critics preferred instead to concentrate their fire on the feature all the "patriarchs" mentioned above share - the connections with Japanese authorities in colonial times. Interestingly, in most cases the criticism of "patriarchs"' "treacherous behavior" in Japanese times is followed by the

censure of their "reactionary" actions and views in periods of military governments. Such structure of criticism is connected with *minjung* historiographers' pet theory about the continuity between the colonial capitalism of Japanese times and "semi-colonial dependent" capitalism of post-Liberational period. In general, personal criticism of "pro-Japanese activities" of certain "leaders" of particular fields signals the potential for generational shift in those respective fields and should be understood functionally more than literally. Being doubtlessly connected with the *minjung* "wave" in politics and historiography, such kind of criticism still has more of personal attack than socio-political analysis. In my personal opinion, it is fully understandable that the rigidity of "apprenticeship system" typical for most elitist occupations in Korea can lead a person, alienated from the system for any reason, to personal attacks on the central figures of the system. Still, the sheer fact that certain person attempted to adapt himself to the given circumstances under the colonial rule hardly can constitute ground for accusations in "racial treason". High nationalistic consciousness is often very well compatible with close familiarity with metropolitan culture, as we can see in examples of M.K.Gandhi or J.Nehru.

For long period of dictatorial right-wing regimes (1948-1987) the theme of "collaboration" was largely tabooed - a lot of prominent figures of those regimes, including two Presidents, Pak Chŏnghee (1963-1979) and Ch'oe Gyuha (1979-1980), were themselves also among those tainted by "pro-Japanese" past, and all critical examinations into the matter were strongly discouraged²⁾. To some degree, we can agree with *minjung* adepts who regard the economic and socio-political system of post-Liberation South Korea as a whole as the continuation of colonial system, both in institutional and personnel terms, and see it as the basic reason why investigations into the question of "pro-Japanese activities" were almost impossible. But why the

2) Practically the only person who did write extensively on the "collaboration" issue during the Pak Chŏnghee period and afterwards in the 1980th was Im Chongguk, an independent literary critic, the author of the pioneer collection of materials, "Ch'inil munhaknon" ("On the Pro-Japanese Literature"; 1965). Unusually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ssue could also be found in outlined works of a progressive Protestant scholar, Song Gŏnho, such as "Han'guk hyŏndae sa ron"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Published by Korean Theological Institute in 1979). More systematic and academic analysis of the problem was conducted by Kang Dongjin in his "Ilche-ŭi Han'guk ch'imnyak chŏnch'aek sa" ("History of the Aggressive Policies of Imperial Japan in Korea"; Published by Han'gil-sa, 1980).

colonial careers of the many of the top cadres of the post-Liberation regimes had to be concealed so thoroughly? The main reason was that, according to the official version of history, South Korea inherited the legitimacy of Anti-Japanese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of which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Rhee Syngman, really was once a prominent leader) and the tradition of anti-colonial struggle of right-wing Korean exiles in China and the US. Keeping in mind the fact that "Northern enemies" of South Korean regimes claimed themselves to be legitimate successors to left-wing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Manchuria, we can understand how important the motif of "succession to the sacred war for Liberation" was in the context of the contest for legitimacy between the two peninsular rivals. The claims for nationalistic credentials on the part of the top echelons of Post-Liberation South Korean elite and, in general, the traditional Confucian idea that "civilized gentleman" should not serve "barbarous enemy" contributed together to the situation when any sincere attempt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olonial experience on South Korean reality could be labelled "seditionary". Only with the gradual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growth of left-wing *minjung* forces the idea of "existence of the remnants of colonialism in modern life" could be popularly accepted.

Today, as I could witness from discussions with many Korean intellectuals of younger generation, this idea, as well as many other basic theses of *minjung* worldview, is gradually becoming a commonplace of popular historical consciousness. Among other factors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colonial legacy" discourse was the proliferation of popular historical writings on the problem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 the thing I would like to focus on in this work. Authored mostly by professional historians of younger age group strongly influenced by *minjung* logic, these writings combine high level of historical "documentality" with relative simplicity of style and have much appeal to large segments of educated middle class.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underlying logic and main typological features of these writings can provide some clues for deeper understanding of mas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modern South Korea. As an intermediary between arcane world of professional historiography and profane interest of general educated public i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oints of contention in contemporary history, these writings also show how the cultural mechanism of "simplification" of special historical information works and how the "down-flow" of esoteric historical knowledge into the masses of

non-specialists becomes possible. To grasp what "popularization" means in the field of "collaboration" research in South Korea, I will begin with brief review of the existing few outlined academical writings concerning the issue and then will proceed to analysis of main idiosyncrasies of the authors of popular books on "collaboration" issue. For the limitations of space, only three most representative popular books were taken as the object of the present inquiry, and even the analysis of such a moderate number of sources can be neither full nor thorough. Being a complete novice in the field of contemporary Korean history, I hope to continue the work on the issue in future. In my understanding, this issue represent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aspects of the broad topic of mas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today's South Korea.

2. Introductory academic writings on Korean history and the "collaboration" issue.

For quite long period, the theme of pro-Japanese leanings among Late Chosŏn elite and mass transfer of colonial cadres, conventions and established practices into post-colonial institutions was shunned in the academia. South Korean state has been proclaimed the legitimate heir to the statehood of Chosŏn and the tradition of right-wing independence struggle, and any hints to the facts that large part of Chosŏn elite (especially the group centred around the Enlightenment Party, or *Kaehwa-dang*) surrendered to the Japanese voluntarily and that Rhee Syngman's regime mainly relied o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old colonial cadres hardly were acceptable for mainstream academics. At the same time, anti-establishmental *minjung* historians inherited and developed time-honoured theories of the leftists of the colonial period according to which the "parasitic" landlord class was effectively bribed by the Japanese safeguarding the former's rights and interests and the eventual surrender to the Japanese was only natural for the bourgeoisie interested mostly in profits and threatened by the labour movement. Defining wealthier classes as "basically anti-national", such theories completely denied the importance of the moderate nationalistic movements. The fact that those rather archaic and extremist views are usually the only response of *minjung* historiography to the lack of interest and structural approach to the "collaboration" issue on the part of mainstream academics shows how little progress the leftist discourse made in South Korea in post-Liberational period. Below I will attempt to briefly review the

"collaboration" issue-related parts of some standard outlined academic histories of Korea, both mainstream and *minjung*-oriented. Those outlined histories, in their turn, are based on more detailed research works.

a) "New History of Korea" ("Han'guk sa sinnon"; first published in 1967 by Ilchogak and then several times reprinted with additions and emendations; I used 1989's edition. The book was translated into Japanese, English, Chinese and Russian) by Lee Gibaek (disciple of Lee Byōngdo, "patriarch" of modern Korean mainstream historiography, known also as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does not devote any special part to the question of "collaboration". The question is usually treated in very brief way or just not addressed at all. For example, in the paragraph on "The reformist movement of the Enlightenment Party" ("Kaehwa-dang-ŭi kaehyōk undong"), Buddhist monk Lee Dongin (Japanese name: Asano Tōjin) is mentioned as a prominent member of the movement, but the fact that he secretly travelled to Japan in 1879, became a Jyōtō (Amidaist) Order's monk there and afterwards practically served as an agent of Japanese diplomacy in Korea³⁾ is omitted, although without knowing this it is almost impossible to grasp the real nature of the movement as a whole (p. 328). There is brief phrase that youthful elitist reformists wanted "to renovate Korean policies along Meiji lines" (p. 328), but from this sentence only it is quite hard to understand fully how intimate the "progressists" were with Japan's political circles and how strong their adoration of Japan was. And of course, there are no mentions that it were "Enlightenment Party" members who sought asylum in Japan after the Japanese-assisted abortive coup of 1884 (Pak Yōnghyo, Chōng Nangyo, Sin Ŭnghŭi, Lee Gyuwan and others) who later became the core of the group of Japanese-appointed local administrators in colonial Korea.

The word "pro-Japanese" ("ch'inil") is used very rarely in this book and only in regard to pre-colonial group of "progressist" noblemen (Kim Hongjip and others; p. 345), just as contemporary central bureaucrats of different diplomatical orientations are called "pro-Russian" or "pro-American". "Collaborators" of colonial period are referred to as "those who distinguished themselves in national treason" ("maegug-ŭi kongnoja"; p. 372) and also almost never mentioned. So, the reader is being given the impression that

3) Ch'oe Byōnghōn. "The intrusion of Japanese Buddhism and the nature of colonial Buddhism" ("Ilbon pulgyo-ŭi ch'imt'u-wa singminji pulgyo-ŭi sōng'gyōk"), - <The 3rd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KS). Collection of Papers on Korean Studies>. Sydney, 1996, 1-4 July.

"progressist" pro-Japanese inclinations on the part of many representatives of late Chosŏn's ruling class and the "collaboration" of colonial period are not organical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lthough a lot of prominent "collaborators" were driven not only by the "material temptations" but also by "enlightenment" ideology which theoretically accepted the idea of forced "colonial modernization" of "barbarous countries" by "civilized" metropolises⁴⁾.

Other omissions in the book are even more eloquent. In the paragraph on the signing of 1905's "Protectorate Treaty" ("Ŭlsa Choyak"), much is said about Japanese coercion and resistance of then Prime-Minister, Han Kyusŏl to this act of state-level gangsterism, but the active participation of five pro-Japanese members of the Cabinet (Lee Wanyong, Pak Chesun, Kwŏn Junghyŏn, Lee Chiyong and Lee Gŭnt'aek, better known as "five traitors"), all of whom later held offices in colonial administration, is not mentioned at all (p. 367). In the paragraph devoted to Minami Jirō's policy of forced assimilation of Koreas which included mandatory worship of Shintō deities, the author proudly tells us about Rev. Chu Gich'ŏl (1897-1944) who refused to bow to the "idols" and has been martyred, but does not mention that, organizationally, Catholic and Protestant Churches in Korea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idolatry" and many high-profile Church personalities (Catholic bishop No Ginam, Protestant Ministers Chŏn P'ilsun, Kim Gilch'ang and others) actively propagated the "Gospel" of the Tennō cult and "sacred war" against "American and British devils" (p. 415). On the whole, Lee Gibaek's book is giving the impression that Japanese colonization was nothing more than an external aggression, an accident not connected with socio-politic and ideological situation of Korea itself and that the whole Korean nation was united by the struggle with the enemy. The sad reality

4) In famous "Tongnip sinmun" ("The Independent") newspaper launched by Dr. So Chaep'il (1866-1951), formerly one of the leaders of 1884's abortive coup, it has been once stated that presence of Japanese troops in Korea is in fact a great boon for the latter: "When we are thinking how illiterate Korean people are, we understand that stationing of foreign soldiers is great luck. If not for the presence of foreign troops, the Tonghak ("Eastern Learning") and Ŭibyong ("Righteous Armies") rebels may have already entered Seoul (...). If foreign troops will leave, we afraid, dangerous things can happen in this country" (April, 14, 1898). For "progressive" members of late Chosŏn ruling minority, the "civilized" Japanese army was much more preferable that perceived "ochlocracy" of rebellious peasants and provincial Confucian scholars. It was such type of political consciousness that led those people to "pro-Japanese" activity in colonial times.

was that the enemy had internal as well as external character and colonial policy was realized largely by the hands of the higher stratum of the colonized themselves.

b) "The History of Korea" ("Han'guk t'ongsa"; by Han Ugŭn, also a historia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first published in 1970 by Ŭryu munhwa-sa and then several times reprinted with amendments and additions; I used 1988's edition; translated into English) basically takes the same stance as Lee Gi-baek's book in the question of collaboration but much richer in details and contains more information on pro-Japanese inclinations of Korean elite. For example, 4 paragraphs on the "Enlightenment Party" and its unsuccessful coup of 1884 not only strongly emphasize the youthful reformers' desire to emulate Japan's experience and utilize Japanese financial and military aid, but also shed light on Japan's plans to use the progressists' drive for power for its own ends. Unlike Lee Gi-baek, Han Ugŭn does not mention the Japanized monk Lee Dongin at all. It is justified, for Japanese agent Lee Dongin is known more in the context of diplomatic intrigues surrounding the dispatch of Korean "Courtiers' Observation Mission" ("Sinsa Yuram dan") to Japan in 1881 and following failed attempt to purchase a military ship from Japan than as an ideologue of any sort. Still, at least, brief explanation of his role as a middleman in contacts between one of the early centers of Japanese espionage in Korea - Japanese Buddhist temple in Pusan (est. in 1877 by Ōkumura Enjin) - and progressists' leaders would have only helped readers to correctly understand the essentially dependent nature of the whole "Enlightenment" movement (pp. 414-421)⁵). Han Ugŭn also gives much more vivid description of tragic events of June 21, 1894, when Japanese troops attacked Korea's Royal Palace (*Kyŏngbok-kung*), slaughtered more than 20 of its guardians, forced the establishing of pro-Japanese Cabinet and thus "helped" to start the so-called Kabo "Reforms" (p. 448). He devotes a special paragraph to the Japanese intervention in the process of Kabo "Reforms" and correctly points out that real reforms leading to the building of modern independent state were hardly possible in the country practically occupied by the Japanese troops (pp. 455-457). Then, unlike Lee Gi-baek, Han Ugŭn mentions the names of 5 Korean ministers responsible for the signing of 1905's "Protectorate Treaty", but writes that they only "agreed" to

5) Lim Hyebong. "Pro-Japanese groups in Buddhist circles" ("Pulgyo-gye-ŭi ch'inil inmaek"), - <Historical review> (<Yŏksa pip'ŏng>), vol. 22, 1993, pp. 82-83.

conclude it (although it is very well known that at least one of them, Lee Wanyong, himself actively promoted the idea of such treaty from the very beginning), and includes the mention of those indigenous champions of colon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story of Chosŏn patriots' terrorist acts against them, thus more accentuating the glory of sporadic anti-Japanese resistance than sorrowful reality of Late Chosŏn elite flocking into the pro-Japanese camp (p. 496). It is very encouraging that, describing the historiography of Late Chosŏn, Han Ugŭn indicates to what degree the most representative historical writings of ruling elite, Hyŏn Ch'ae (1856-1925)'s <Short History of the Eastern State> (<Tongguk saryak>, vol. 1,2, 1907) for example, had been influenced by works of Meiji historians, full of Japanese chauvinistic prejudices. Still, he fails to grasp the connection between the "historiographical mistakes" of Hyon Ch'ae and the general pro-Japanese atmosphere of "Enlightenment" Movement the latter was personally and ideologically close to (p. 506).

In the paragraph on the Japanese annexation and colonization of Korea, Han Ugŭn devotes half of a page to the "conciliatory measures" of the newly established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towards the "part of the ruling class". According to the author, those measures (offering of Japanese noble titles to the highest Chosŏn officials and pensions and stipends to the wider strata of bureaucracy, with more than 9000 beneficiaries) "opened the way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for the part of Chosŏn *yangban* elite. The role those measures, as well as the establishing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Chungch'uwŏn*) filled by the 71 most prominent "collaborators" played in the forging of allia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Late Chosŏn's *yangban* elite can not be denied. But the author should have mentioned that many Chosŏn bureaucrats prized with noble titles and positions in the Consultative Committee began their pro-Japanese careers long before the annexation; for them, the "conciliatory measures" were not the "opening of the way" to the collaboration but rather the "acknowledgment" of their "contribution" into the colonization. (p. 516). In the following paragraphs on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 are brief statements about Japanese "appeasement" of Confucian scholars (p. 523) or Korean officials of the Government-General (p. 534), but basically, the question of Korean elite's active participation in Japanese colonial apparatus and policies is not tackled. For all its factual richness, Han Ugŭn's book conceptually reduces the colonization to the "Japanese aggression", ignoring the role Late Chosŏn

landowners and bureaucrats, especially the youthful "Enlightenment Party" members in the building of the system of Japanese domination.

c) "Our History rethought" ("Tasi ch'annün uri yöksa", by Han Yöngu, a disciple of Han Ugün, vol. 1,2,3; Published by Kyöngsewön in 1998; Russian translation is currently underway), rather popularized outline of Korean history by the younger heir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tradition the two previous authors also belong to, went much further than Han Ugün in examining the character of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ed and high-positioned Korean gentry and the Japanese. On one hand, such attention to the question of "collabor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roduct of the author's interest in the revival of "correct" nationalism; on the other hand, more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pro-Japanese group" problem became necessary part of any introductory work on Korean history after the question was raised by various affiliates of *minjung* historiography movement and received too much publicity to be simply ignored. In vol. 3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his well-illustrated and relatively simply written book, Han Yöngu skillfully includes the question of "pro-Japanese activities" into the context of the narrative. Being openly more supportive of Kim Yunsik (1835-1922), Ö Yunjung (1848-1896) and other moderate reformers' "Eastern Way, Western Technique" gradual modernization drive, the author reminds us that the radical leaders of 1884's abortive coup were called "the Japanese party" ("Ilbon dang") by the contemporaries and states that their reliance on Japanese military force was tantamount to "national treason" (p. 54, 56). The dependent character of Kabo "Reforms" which, in result, only succeeded in "creating advantageous climate for further Japanese penetration" and were "met with mass resistance" is emphasized by Han Yöngu even stronger than by Han Ugün (p. 70-71). Han Yöngu's criticism of pro-Japanese inclinations of Yun Ch'ihö (1865-1945) shown already in the period of the "Independence Club" (1896-1898) activities is also praiseworthy for the whole clan of Yun Ch'ihö was the core of Chosön noblemen's pro-Japanese group (p. 82). Still, when it comes to the story of three treaties which formally made Korea a Japanese colony ("Protectorate" Treaty of 1905, "New Agreement" of 1907 and "Annexation" Treaty of 1910) the role of pro-Japanese Korean ministers who practically "legitimized" the gangsterist acts of the Japanese is much played down and notorious "Ilchinhoe" is mentioned only very briefly (pp. 85-88). Then, in the paragraph on "National educational and religious movements", the information on the pro-Japanese

Confucian organizations is given only in footnotes and pro-Japanese movements inside the Korean Buddhist clergy are not mentioned at all; there are only brief mentions of Japanese attempts to "induce Christians and Buddhist into the pro-Japanese religious activity" (pp. 102-106). There is the statement that pioneers of the so-called "new novel" ("sin sosŏl") movement "preferred the modernity over the independence and thus gradually moved into the camp of pro-Japanese literature", but it should have been also added that such leading figures of this movement as Lee Injik (1862-1916) who studied in Japan in 1900-1904 and later became the translator in Japanese Army and secretary to the chief "collaborator" Lee Wanyong, belonged to the pro-Japanese camp from the very beginning of their careers (pp. 107-108). Then the mentions about Japanese "appeasement" of the Confucians (p. 111) and pro-Japanese organizations of the proprietors, Confucianists and clergy of various religions (p. 124) are too brief and formal to make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essential character of the pro-Japanese stance of wealthy Confucian gentry. The "bad influence" of Lee Gwangsu (1892-1950) and Ch'oe Namsŏn (1890-1957)'s "national reconstruction" and "national malformation and incompleteness" theories on independence movement is mentioned but the fact that those two extremely influential thinkers were the ideologues of the growing and essentially pro-Japanese urban bourgeoisie is hardly can be understood from the text (p. 133-134). On the whole, Han Yŏngu gives much more information on the "collaboration" question than both previous authors, but he also essentially sticks to the theory that the colonization was nothing but an "invasion" with "invaders" bribing and browbeating local officials into obedience. The fact that numerically small but politically extremely influential strata of landed gentry, new urban bourgeoisie and intelligentsia largely favoured the Japanese on the ground of their own ideals and for their own interests is still being largely ignored.

d) "Modern History of Korea" ("Han'guk kŭndae sa") and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Han'guk hyŏndae sa") by the patriarch of *minjung* historiography, Kang Man'gil (first published in 1984 by Ch'angjak-kwa pip'yŏng and then several times reprinted), differs from all previously mentioned works by "traditional" historia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lineage" by its strictly analytical approach to the question of "collaboration" based on socio-economic research method. Still, basically negative position of the author in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oderate right-wing nationalists of 1920th of the gentry and bourgeois background really contributed to the

promotion of nationalistic consciousness and culture seems to be too close to the ill-balanced partisan approach of the radical leftists of the colonial period. At the same time, the author gives the impression of being willing to avoid focusing readers' attention on "pro-Japanese activities" question, preferring only to provide general fundamentals for socio-economic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Japanese period. In the introduction to the second book, the author points out that colonial period strengthened the tenant-farming system, made inevitable the subjugating of middle and large-sized local industry to Japanese capital and forming of cohesive ties between the businesses and omnipotent colonial bureaucracy (p. 11). The socio-political consequence of those basic characteristics of Japanese dominance was the pro-Japanese activity of the groups benefitting from such structure, i. e. landlords, bureaucrats and industrialists, but this logical conclusion has not been made.

In special paragraph characteristically named "Cultivating of pro-Japanese groups [by Japanese authorities]" (it means that possibility of spontaneous pro-Japanese activity is tacitly diminished), the author states that pro-Japanese activists of "pre-March 1 Movement" period - mostly Japanese-educated intellectuals or "progressist" exiles - were principally different from the "collaborators" of 1920th and 1930th, carefully "fostered" by the "cultural policy" of Governor-General Saitō Makoto and his successors. He also quotes the political document of Saitō administration where it is stated that Japan has to strengthen the group of "absolutely faithful" Korean colonial officials, form pro-Japanese organizations of landlords, industrialists, noblemen and clergy through the infiltration of "devotedly" pro-Japanese personages into those circles, foster pro-Japanese elements among religious activists and intelligentsia, connect more closely Korean landlords with Japanese capital, give certain privileges to pro-Japanese clubs of "influential people of the provinces" (Kor.: *yujŭ*) and so on. Along those lines, concludes the author, Japan fostered the ties of local landlords and compradors with Japanese bureaucracy and capital, thus succeeding in the realization of "divide and rule" policy (pp. 27-28). All this can make an attentive reader to think that Korean landlords, certain part of big-time industrialists and comprador traders were essentially passively, if not actively pro-Japanese even before the "cultural policy" was implemented: otherwise it hardly could be so successful. Still, the author prefers focusing more on Japanese policies than Korean response to them. Other important conclusions of Kang Man'gil are that Lee Gwangsu's "National Reconstruction" and "Korean Autonomy"

campaigns were essentially rather a part of Saitō's "cultural policy" than a component of national liberational movement (p. 31) and that in many cases pro-Japanese Korean intellectuals actively participated in forced assimilation campaign of late 1930th out of their own persuasions rather than under coercion only (p. 35). Basic historiographical position of the author is also reflected in his conclusion that the most important local backers of Japanese colonial regime were landlords, especially larger ones, who effectively benefited most from the Japanese-led campaig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pp. 93, 95). It is only logical that, as Kang Man'gil writes, Korean Buddhist monastic community, many of its temples being big landowners too, could not but pledge its allegiance to the colonizers who, in exchange for it, acted as guardians of monastic property. Almost the same, Kang states, is right in case of Christian churches too, and, for al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any Christian laymen and clergymen in independence struggle, the declarations of the churches' leadership about its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pure religious work" effectively meant the collusion with colonial authorities (pp. 144-147). All the above-mentioned theses of Kang would become, as we will see below, the starting point for the criticism of the "collaborators" in popular historical writings of the 1990th.

Kang Man'gil seems to have exerted decisive influence on the course of "Han'guk yōksa yōn'guhoe" ("Society for research on Korean History"; established in 1988) which published its own variant of the outlined history of Korea, "Korean History" ("Han'guk yōksa"; first printed in 1992 by Yōksa pip'ōng sa). Unlike all previously mentioned introductory books, this one is totally anonymous - the whole text is said to be a result of collective work routinely intermitted by thorough discussions (p. 4). It means that, to some degree, the book reflects the "commonsense" historical philosophy of the younger generation of scholars brought up in the atmosphere of the *minjung* struggle of the 80th. The text of the historical narrative itself much focuses on the socio-economic issues and *minjung's* "resistance"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ruling" and "invasive" forces, and mentions of "collaborators" are scarce, although both the "Enlightenment Party" and Independence Club are duly censured for "aiding" and "colluding" with "foreign aggressors" (pp. 248, 264) and main pro-Japanese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are briefly enumerated (pp. 330-331). Still, basic stance of the authors on the issue of "collaboration" can be fully understood from the Appendix 5, named "Modern Society and Imperialism" (pp. 343-361). There the "dual character" of the

middle-sized national capital of the colonies is explained: as the victim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part of the bigger metropolitan capital, national bourgeoisie of the colonized is inclined to lead nationalistic movements at the certain stages of their development, but when the threat of labour movement increases and collusive ties with colonial bureaucracy and capital become closer, national capitalists and bourgeois intelligentsia usually quit the nationalist ranks (p. 349). And in case of Korea, pro-Japanese big landlords and comprador capitalists were lost for nationalistic movement from the very beginning, while middle- and large-sized national capital which led the nationalistic movement of early 1920th, eventually had to compromise nationalistic ideas and forge close ties with colonial bureaucracy and Japanese corporations in pursuit of larger profits and out of the fear of Government-General's repressions and labour movement. Still, petty urban bourgeoisie remained partly anti-Japanese, while working class became the leader of liberational movement in which the influence of Socialist and Communist elements was constantly increasing (pp. 354-355). This rather simplistic scheme largely borrowed from Marxist ideologues of colonial period constitutes the theoretical basis of popular historical writings on the "collaboration" issue.

As we could see from the above examples, the question of the "collaboration" traditionally shunned by "serious" academic historians (especially the cohort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unwilling to touch the troublesome question of the historical identity of the South Korean statehood has the potential of being actively exploited by the radical leftists who are always more than willing to show that the proprietary classes have historically been essentially "anti-national". In fact, the "superposition" of Marxist ideology and all-important indigenous ethnic code used to be a trademark of the Korean leftism from the colonial times, and today's attention to the "collaboration" issue gives the *minjung* ideologues an additional chance to show that the two of their sacrosanct catchwords - *minjung* and "the ethnos" (*minjok*) - are basically synonymous. Below I will try to analyze some of the popular writings on the "collaboration" problem with a view to grasp the mechanics of the process of popularization and indigenization of leftist thought in Korea.

3. Popular historical writings on the "collaboration" issue.

a) "Personified History of Pro-Japanese Group" ("Inmul-lo ponŭn ch'inil-p'a

yōksa"; first published in 1993 by Yōksa Pip'ōng-sa) is a collection of lectures on the issue which were delivered in the "Institute of Historical Problems" ("Yōksa munje yōn'guso"), a private educational and publishing institution established and led by Lee I-hwa, a recognized unofficial historian of strong nationalistic persuasion. The introduction to the book is authored by Sō Jungsōk, a journalist-turned-Sōnggyun'gwan University professor and well-known left-wing historian. As the basic premise to the book, he stipulates that the dependence on "external forces" was almost inevitable for the large part of the ruling class of Late Chosŏn period, when general crisis of the "feudal" system and the consequent intensification of popular discontent effectively jeopardized the privileged position of metropolitan *yangban* elite (p. 23). One part of the Chosŏn ruling structure, the *chungin* class (literally "middle people", holders of technical and minor administrative positions in the government apparatus, inferior to the *yangban* but distinct from the plain commoners) was, according to Sō, especially active in forging the intimate relationship with "external invaders" for it was comparatively underprivileged under the *ancien regime* and at the same time needed the protection against popular resentment. The same was true in the case of the fledgling bourgeoisie of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 weak and constantly threatened by both the rapacity of the tyrannical and corrupt local bureaucracy and wrath of the impoverished populace, it desperately needed Japanese protection too (p. 24). And, certainly, large landowners of the colonial period were the "pro-Japanese elements" "by profession", for only oppressive Japanese power could keep intact the anachronistic "feudal" tenant farming system in the face of the growing dissatisfaction of the peasantry (p. 25). At the first stages, the ideology of pro-Japanese "progressive" elements was "the modernization and economical development at all costs", an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reer opportunities in the colonial government this "commercialist" philosophy degraded into the pure "careerism", so that many former native colonial bureaucrats and pro-Japanese intellectuals became ardently pro-American after the Liberation (pp. 30-31). Both the *chungin* intellectuals-led so-called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of the 1900th and bourgeoisie-led Korean Production and Nationalistic Cultural Movements are judged to be worthless for the nation (i. e., the *minjung*), for most of their leaders were heavily tarnished by the active cooperation with the Japanese (pp. 35-37). And after the Liberation the wealthier classes of the colony politically represented by pro-Japanese intellectuals chose the

pro-American ultra-rightist orientation which suited best their "class interests" (pp. 39-41).

The main content of Sō's introduction is a standard Marxist scheme, where national bourgeoisie of a colony as a force laying claim to the leadership in nationalist movement is accused of being "inconsistent", "double-faced" and "inclined to the compromise with the colonizers". But the detail of the introduction which also deserves notice is its language of description. Pro-Japanese Korean bureaucrats are described as "ingratiating themselves" into their Japanese masters' favour (pp. 20-21), "totally obsessed with their career advancement and acquisition of wealth" (pp. 24-25), "extreme egotists ready to destroy moral (*illyun*) and sell off their ethnos for monetary gain" (p. 30) and so on. We can witness here that, to make his totally negative judgment of Pro-Japanese bureaucracy and bourgeoisie better understood, the author is appealing to the popularized Confucian moral standard, according to which the "profound person" should put the utmost value at the "moral" and pay little attention to career and wealth let alone flattering the powerful⁶⁾. The author also points out that the "Pro-Japanese activists" should have been deprived of their civil rights for some period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to give them the chance for "critical self-examination", or *pansǒng* (p. 31). It is well-known that ethical complex connected with the "self-criticism" concept plays important role in the Confucianism too⁷⁾. So, as we can see, Sō intermingles the Marxist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the "national capital" and traditional Confucianist criticism of "immoral careerism and greed". Still, in my perception the introduction as a whole is rather a Marxist discourse "seasoned" with Confucian moralizing for the sake of better popular understanding that sincere Confucian interpretation of Marxism: basic objective of the author seems to be the exposing of "collaborationist" roots of ultra-rightist anti-Communist ideology of South Korean military dictatorships.

Unlike scholarly theoretician Sō Jungsōk, Lee I-hwa, the editor of the book

6) It is well-known that Confucius (552-479 B. C.) was said to have taught: "To offer sacrifices to the other's spirits is flatter, to see the Justice and not to act is lack of bravery" ("非其貴而祭之諂也 見義不為 無勇也"; "Lun yü", §2.24). It means that in his philosophy flattering is equated with the worst of all sins - lack of due observance of the rituals.

7) It is well-known from "Lun yü" that one of Confucius' best disciples carried out critical appraisal of his thoughts and actions three times a day ("日三省吾身"; §1.4). The Master himself was concerned about his own perceived "inability to right [his own] wrongs" ("不善不能改"; §7.3).

and the author of the chapter on Lee Wanyong (1858-1926) and Son Byŏngjun (1858-1925), is more inclined to popular "moral criticism" much resembling pre-modern historiography, than to strict "class analysis". He begins his criticism from Lee Wangyong's foster-father, Lee Hojun, who allegedly abused his father-in-law's high position to make "undeserved career", and points out that it gave an impetus to Lee Wanyong's careerism (p. 63). At the same time, he praises Lee Hojun's concubine's son, Lee Yunyong, for "truly brotherly" support he always rendered to his foster-brother (p. 64). Noting that during the fire set on Lee Wanyong's house by the "masses" (*minjung*), his ancestral tablets were completely burned down, he moralizes that "on account of the descendant's immorality his ancestors were deprived of the due sacrifices" (p. 77). In the end of the chapter Lee I-hwa tells us the stories of the broken lives of the son of an important pro-Japanese activist Lee Yonggu (who became a pauper in Japan), grandsons of Son Byŏngjun (who live in extreme poverty in South Korea eking out their scanty livelihood as drivers), and great-grandson of Lee Wanyong (who could not get married for no clan would accept such a son-in-law), and concludes that it will become "the mirror of history [for future generations]" (pp. 84, 90-91). The idea that the whole clan of a "traitor" is somehow connected to or affected by his act of "treason" - the ancestors being unduly deprived of the sacrificial rituals, the foster-father who is presumed to be guilty for imbueing the would-be "traitor" with careeristic inclinations instead of Confucianist moral, the descendants who are "punished by the Heaven" for their ancestor's sin - is deeply ingrained in traditional Confucian historiography⁸⁾.

As we could see, Sŏ's introduction to the book shows us an example of leftist narrative with traditionalist overtones, and Lee's chapter epitomizes the Confucian moralistic line. Other chapters of the book seem to be an amalgam of those two types, but mostly with strong leftist emphasis. For example, the basic stance of Lim Hŏnyŏng, the author of chapter on Lee Gwangsu

8) In the chapter 50 of the earliest extant Confucian history of ancient Korea,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1145, compiled by the committee headed by Kim Busik), two "villainous retainers", Kungye (?-918) and Kyŏn Hwŏn (?-936) are described as unfilial son (Kungye) and father of unfilial, evil and unlucky children (Kyŏn Hwŏn). In Confucian worldview, the family and the state were essentially the same entities and "national traitor" hardly could be imagined to be a happy father.

(1892-?) and Ch'oe Namsŏn (1890-1957), is that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Enlightenment" ideology in Korea can be divided into 3 stages: first was that of "Enlightenment Party" and Independence Club, ideologically represented by "naive" and "awkward" - and already grossly dependent upon Japan or Christianity - progressivism of Yu Giljun (1856-1914) or Yun Ch'ihŏ (1865-1945); second was that of An Ch'angho (1878-1938) with its emphasis on Western-centered education and capital-led Production Enhancement Campaign; third was that of Lee Gwangsu and Ch'oe Namsŏn (both are claimed by Lim Hŏnyŏng to have worked as An Ch'angho's secretaries for some time) when utilitarianist progressivism completely united itself to the Japanese colonial policies (pp. 108-110). Fiercely censuring An Ch'angho for his "adoration of American civilization and Christianity" (suggesting that An's pseudonym, "Tosan", literally meaning "the mountain on the island", has been taken under the impression of Hawaiian landscape, Lim criticise An's "lack of patriotism"; p. 110), the author proclaims that from the very beginning the "Enlightenment" ideology and its "heir", moderate cultural nationalism of colonial period were essentially "anti-national" (pp. 110-113) and that the only "real" liberational struggle was that orchestrated by Comintern and its local followers (p. 134). All this is the orthodox leftist scheme, but severe criticism of Lee Gwangsu's "excessive interest" to the sexual problems, his alleged homosexual inclinations (pp. 118, 120) and his extramarital affair with Hŏ Yŏngsuk (p. 129) is closer to Confucian ethical puritanism than rather free-wheeling European leftist tradition. In the same way, the author of another chapter elucidates in details the collusive ties between one of very few really prosperous Korean businessmen of colonial period, Mun Myŏnggi (1878-?; the owner of P'ohang Soju Company and director of Yŏngdŏk Electrical Company), and the colonial masters - explaining to what degree the big local capital was dependent on colonial bureaucratic system - and at the same time points out that his personage was "inclined to flatter superiors", "full of vanity and greed" and "cruel" (pp. 154-159). All those qualities are usually ascribed to "cruel officials" and "treacherous courtiers" in traditional dynastic histories⁹⁾.

b) "The uncleared history" ("Ch'ŏngsan-haji-mothan yŏksa", by

9) For example, "Samguk sagi"'s biography of Koguryŏ's Yŏn Gaesomun (?-655), who, as the leader of the successful coup of 642 (when Koguryŏ's King Yŏngnyu was assassinated) was thought to be the model "villainous retainer" of ancient Korea, emphasize the "traitor"'s cruelty and "flattering habits" (chapter 49).

Ch'ongnyŏn-sa Publishers: 1994; vol. 1-3) is compiled and edited by the "Institute of Anti-National [Activity] Problems" ("Pan-minjok munje yŏn'guso"; later was renamed into "Institute of National Problems"), a private research and publishing institution specializing in "collaboration" issue. The book consists of separate small chapters on 60 alleged "collaborators", most of them being the core members of various elite groups who, by and large, retained or even increased their social influence after the Liberation. The real agenda of the book is not just to shed light on pro-Japanese Koreans' activiti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to prove that post-colonial anti-Communist and pro-American authoritarianism had inherited basic structures, core cadres and engrained mores of the colonial system and its claims to anti-colonial and nationalistic legitimacy are completely false. The object of the critical attack is not only post-Liberational governmental structures but "bourgeois" democratic opposition too: first chapter of the second volume is devoted to Chang Myŏn (1899-1966), the politician whose name became a symbol of anti-Rhee Syngman struggle. The subtitle of the chapter - "The truth-seeker who sided with the haves" - clearly shows the gist of the author's position: everybody somehow "disgraced" by the contacts with wealthier classes should be stripped of religious and nationalistic legitimacy. Interestingly, the author even has to confess that all "pro-Japanese" activities one could incriminate Dr. Chang - participation at the Korean Branch of the League for the General Mobilization of National Spirit (1938-1945) in the capacity of the Catholic school principal, Japanization of his name (more than 80% of Korean populace were forced to change their names into Japanese style names and surnames) and propagandist lectures in support of the "sacred war" against the U.S. and U.K. - would rather fall under the category of "passive" than "active" collaboration and to some degree were inevitable for the person of Dr. Chang's position (p. 18-20). Characterizing Dr. Chang as a "vacillating intellectual keen to avoid fierce battle and seek his egotistic well-being" (p. 16, 27), "scion of a wealthy family who enjoyed many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comparatively smooth career" (p. 28), the author went on to proclaim that Dr. Chang-led New Faction inside the oppositional Democratic Party (founded in 1955) consisted mostly of "opportunistic former collaborators" whose "so-called oppositional struggle" was driven by the "egotistic desire" to recover the high positions they once had held in first years of Rhee Syngman government (p. 25). Followers of both Chang Myŏn and Rhee Syngman are seen by the author as

belonging to the same category of "bourgeois anti-national collaborators", who ultimately should be thrown off the pages of national history (pp. 28-30). As we can see, the "collaboration" issue gives the radical leftist theoreticians good chance to establish the synonymity of "pro-Japanese" (= "anti-national") and "bourgeois" and question the legitimacy of "bourgeois" South Korean state from its very roots.

Another important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s New Faction, Han Dongsök (1909-1956), is being lambasted too as a "cat's paw of Japanese imperialism, running after the authorities" (p. 104). Having begun his career as a provincial police officer in colonial Korea, an ambitious graduate of Keijō Imperial University (predecessor of today's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inued to be in charge of price regulation policy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and advanced to the post of a department manager in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Ch'ongmuch'ö) in 1951 under Rhee Syngman's patronage. From the viewpoint of the chapter's author, the fact that the same bureaucrat could first "suppress the liberational struggle of Communists" as a Japanese police officer, then "faithfully enforce U.S.-dictated price policies which aggravated people masses' economic plight", and after all transform himself into "blind follower of Rhee Syngman's anti-Communist dictatorial clique" means that all three regimes basically received support from the same stratum of the society and carried out very similar anti-Communist elitist policies (pp. 106-109). Politically, the enterprising bureaucrat first was a core member of the group of Rhee Syngman's supporters but switched sides in favor of the Democrat's New Faction in 1955 when Rhee Syngman-sponsor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ermitting the President to remain in office for 3 consequent terms) has been railroaded through the legislature by highly suspicious trick of "rounding-off" the number of votes. Noting that, unlike the Old Fraction mostly composed of big landlords, the New Fraction embraced so many former colonial provincial officials that even was popularly dubbed "The county magistrates party" ("kunsudang"), the author concluded that the membership in the "anti-Communist", "pro-American" and "ultra-rightist" New Fraction was "logical end" for former high-level collaborator (p. 113).

Other characteristic chapter of the book is devoted to Lee Chaehak (1904-1973), a professional bureaucrat of juridical background who succeeded in transforming himself from a county magistrate of Japanese times into one of the heads of the group of "moderates" inside the dictatorial Liberal Party

of the 1950th (he played the decisive role in forming Hō Chōng's interim government immediately after the April 19's revolution of 1960). Acknowledging Lee's visible liberalism, both political and personal, and his undeniable successes in hunger prevention at his post of a magistrate in Japanese times (pp. 150-151), the author of the chapter still wants to emphasize how typical was the transformation of a "flunky" of Japanese imperialism into a mainstream "bourgeois" politician of post-Liberational times and how decisive was the role of Japanese-trained elite cadres in the establishment of Rhee Syngman government (p. 159). The author also rebukes Lee for the latter's habit of frequently going around fishing, for such leisureful hobby is not permissible in the situation when "plain people are poor and suffering" (pp. 149-150). Here the old Confucian idea that a ruler can rest only if people are affluent and happy can be seen¹⁰).

Prof. Sō Chungśōk, whose writings on "collaboration" issue has been mentioned above, authored the chapter on Han Hūisōk (1908-1983), a Japanese-appointed county magistrate-turned-Liberal Party's "bigman", for the book. Sō's motive in taking the issue apparently was to show that former pro-Japanese collaborators who later constituted the greater part of the Liberals' leadership and Rhee Syngman's governmental ministers (Han Hūisōk, Lee Chaehak, Chang Gyōnggūn, Kim Chōngryōl, Ch'oe Sunju, Lee Gapsōng, Sin Hyōnhwak and others) had virtually reproduced the cardinal features of colonial bureaucratic "anti-national" capitalism under the cover of anti-Communist and "democratic" phraseology of Rhee Syngman dictatorship (pp. 205-206). But, commenting on his personage's character, Sō cannot help to fiercely censure him for "blind obedience" to the authorities, "lack of self-critical abilities" and "egotistic careerism" (pp. 192-194), all covered by "hypocritical gentlenes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 192). Sō practically described the despised "collaborator" in the manner model villains used to be depicted in standard Confucian writings: an unprincipled hypocrite keen on currying favour with the powerful.

Among other heroes of the book are "domineering persons" of various fields of post-Liberational South Korea whose authoritarian or/and ultra-rightist actions and attitudes can be, from the younger *minjung* intellectuals'

10) In "Samguk sagi", it is stated that 3rd King of Silla, Yuri (r. 24-57), personally fed and consoled the hungry commoners and then authored a joyful melody for them when their life improved (chapter 1). The historical validity of this statement can be doubted, but it reflects very well the Confucianist ideals of the chronicle's compilers.

viewpoint, logically explained by their pro-Japanese stance in the past: former presidents Pak Chŏnghee and Ch'oe Gyuha, artist Lee Sangbŏm (recognized "patriarch" of Oriental style painting; 1897-1972), politicians Lee Gapsŏng (one of the key figures of the Liberal Party; 1889-1981) and Paek Tuji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upporters of the "Yusin" dictatorship; 1908-1993), journalist Yu Gwangryŏl ("godfather" of ultra-conservative journalist circles, editorial writer of the "Han'guk Ilbo" Daily; 1889-1981), poet Sŏ Jŏngju (former head of the Korean Literary Men's Association and the most influential poet of post-Liberational period; b. 1915), bishop No Ginam (in 1942-1967 was the leader of Korean Catholics; 1902-1984) and many others. Seeing the re-emergence of fiercely reactionary and anti-Communist former "collaborators" in the highest ranks of bureaucracy and political class as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subsequent bitter ideological conflict and the eventual partition, the authors of the book, in the best traditions of Confucian historiography, characterize their heroes as "unworthy subjects" - disloyal, unfilial, pusillanimous, sycophantic, greedy and cruel. Emphasizing the "law moral standard" - more precisely, the alleged absence of any moral - of post-Liberational ruling class, with its roots in Chosŏn landlordism and colonial collaboration, the authors effectively challenge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n statehood by evoking the Confucian idea of the "ethics as pre-condition for governing".

c) "The 99 Pro-Japanese Collaborators" ("Ch'inil-p'a kusipku in"; vol. 1-3; published by Tolpegae in 1993) was also compiled and edited by the above-mentioned "Institute of Anti-National [Activity] Problems". The figure "99" has, as one associate of the institute explained to me, deep symbolical meaning - it implies that the complete list of the "traitors" still has not been finished and lot of people whose "pro-Japanese" past also deserves "moral punishment" has not been included into the book. Still, the book is widely recognized as the most comprehensive and representative of all existing popular writings on the issue. Symbolically, the first chapter, on "arch-traitor" Lee Wanyong, was authored by the "patriarch" of *minjung* historiography, Kang Man'gil. But the fact that, in their ideologized re-interpretation of colonial problem, younger *minjung* adepts associated with the Institute went much further then their mentor is evident from the introduction to the book (subtitle: "Reconsidering the Question of Pro-Japanese Collaboration") written by Kim Bongu, the director of the Institute (vol. 1). The introduction begins with a provocative question - why the much-touted "democratization" still

falls short of even the most rudimentary standards (pp. 15-16)? The answer offered by the author is astonishingly simple and brief: the American imperialism, willing to utiliz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 as its strategic base, united and organized all anti-national and pro-Japanese forces to create a puppet state of South Korea. All "truly national liberational fighters" had to continue their struggle with the U.S. "neo-colonialism" - successor to Japanese colonialism - and many of them had to cross the 38th parallel and unite themselves with the North thus making the confrontation of two Koreas "the struggle between true nationalism and puppets of external forces" (pp. 16-17). Being turned into totally dependent "semi-colony", "a field branch office [of the U.S. Inc.]" (p. 18), with truly nationalist forces ruthlessly persecuted and the concept of "nation" itself denied, South Korea has to recover its "independence" from "imperialism" to have democratic ideals realized (p. 17). So, from this "nationalist left" viewpoint, the "pro-American anti-national ruling forces" - practically almost all elite groups of South Korea are implied - are nothing more than "heirs" to the collaborators of colonial times who merely changed the object of their "flunkeyism" with their "slavish nature" basically unchanged (pp. 18-19). And real underlying agenda of *minjung* investigations into the colonial past is to make clear the "dependent and toadyist" character of the ruling class of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 as a whole, thus attaching "arcane" Marxist goal of class liberation to popular and easily understandable nationalist (especially anti-Japanese and anti-American) rhetoric.

Then Kim proceeds to "establish the true identity" of today's South Korean intelligence (pp. 18-20), police (pp. 20-22), army (pp. 22-24), bureaucracy (pp. 24-27), the bench and bar (pp. 27-29) and political class (pp. 29-30) as the "successors to the legacy of pro-Japanese treason". Suggesting that "army now is thought to be the main physical obstacle on the democratization's way" (p. 22) and "bureaucracy is still carrying out pro-Japanese policies aggravating the evils of the past instead of liquidating them and intensifying our dependence [on the external forces]" (p. 27), he proclaims that almost all imaginable vices in the plain South Korean intellectuals' lives - police violence, militarization of civil life, high-handed and corrupt bureaucratism, severe anti-Communist laws and so on - are caused by the "pro-Japanese superstructure" of colonial times which successfully "regenerates itself" up to today. Besides, Kim contends, South Korean education is nothing more than "anti-national oppressive mechanism" nurturing anti-Northern feelings,

"egoistic careerism" and elitism through cramming methods in teaching. A teacher in South Korean school, Kim maintains, is a mere "gangster", "obstructing the national unification" through authoritarian infusing of anti-Communist ideas (pp. 30-32). Concerning the higher education, Kim claims that "studying abroad is of no avail for our nation" for it generates the self-humbling of the Koreans in contacts with foreign world and the atmosphere of "[Western-style] useless theorizing" and "toadyism towards the West". Consequently, today's South Korean academia with its strong emphasis on proficiency in foreign languages and studying abroad is just the "realm of anti-national elements" (p. 33).

Historically, Kim explains, pro-Japanese group began with the "Enlightenment Party" (which organized the abortive 1884 coup) and its younger or less prominent *yangban* and *chungin* supporters who mostly studied in Japan or lived there in exile (Cho Chungŭng, Chang Sŏkchu, Cho Hŭiyŏn, Chŏng Nan'gyo and others). Then, with the economic and political penetration of Japanese forces on the steady increase, broader circles of the ruling class, including the highest strata of *yangban* nobility became involved in pro-Japanese activity. Their alliance with Japan was institutionalized after the 1910's annexion when most of them received noble titles, pensions or honorary appointments. And with the enactment of "cultural policy" of Saitō, when wealthier classes, "bourgeois intellectuals" and most religious activists were deliberately separated from the "toiling masses" by the crafty "appeasement measures". Finally, by 1945 Korea was already a divided society where almost completely Japanized well-positioned and well-off collaborators helped the Japanese to exploit the "people's masses". The logical conclusion is that the only force able to de-colonize the society was the uncompromising anti-establishmentarian Communist movement (pp. 39-41).

As we could see, Kim's introduction is an emotional apologetics of Communist movement with all non-extremist forces being labelled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To make his criticism of "neo-colonial bourgeois society" more appealing and better understandable, Kim, in accordance with the best traditions of *minjung* propaganda, evokes mighty Confucianist symbolics too, characterizing the persecutions of leftists as "detrimental to the system of moral" and general social atmosphere in South Korea as "totally egoistic, for nobody wants to sacrifice oneself for the nation" (p. 44). Pro-Japanese Korean cadets who studied in Japanese military schools in 1880th, are labelled "ungrateful" to the country which sent them to

study at the state expense (p. 39). We should remember how important place the concept of "gratitude" occupies in Confucian value system¹¹⁾.

By and large, the book as a whole reflects the position of Kim Bongu, and the desire to establish the connection between the "pro-Japanese" inclinations of the "Enlightenment Party", "treacherous nature" of the moderate nationalism of the 1920th and "pro-American anti-national policies" of modern South Korean elite is felt in many chapters. For example, Pak Yŏnghyo's activities in moderate "cultural" nationalistic circles in 1919-1924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Koreans' Industrial Association, The Korean Economical Society and many other "gradualist" organizations and for some time was the director of newspaper "Tonga Ilbo") are described as simply "Japanese manoeuvres and intrigues" aimed at splitting, weakening and eventually putting under Japanese control the nationalistic movement (vol. 1, pp. 124-125). The possibility that Pak Yŏnghyo could cherish certain nationalistic ideas himself is totally denied by the author of the chapter in question who wants to see the creator of Korean national flag, *T'aegukki*, as a plain Japanese agent. The author of the chapter on Yun Ch'ihŏ turns reader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mong the grandsons of Yun Ch'ihŏ's uncle, Yun Yŏngryŏl, were President Yun Bosŏn (r. 1960-1961) and Rhee Syngman's confidant Yun Ch'iyŏng previously known for his pro-Japanese activities in 1941-1945 (vol. 1, p. 166). So, readers are being persuaded that the collaborators and their scions retained and even raised their positions in the post-colonial society. Doing certain justice to great Enlightenment thinker and activist, Yu Giljun (1856-1914), the book points out the "ambivalence" of his attitudes - being a "West and Japan-oriented personage neglectful of national problems and lacking in patriotic spirit", he still did "keep Japanese occupational authorities at a distance" (vol. 1, pp. 247-249). But Yu Giljun's son, Yu Ōkkyŏm (1895-1947), educationalist, Christian activist and one of the Sin'ganhoe (New Korea Society) leaders who had to formally apostatize from nationalist ranks in 1938 under enormous Japanese pressure and then participate in some war-time government-sponsored campaigns, is branded "active collaborator", with particular attention being paid to the fact that he was appointed the director of Educational Department by American Military

11) In his "historical comments" (*saron*) to the above-mentioned biography of "mutineer" Kyŏn Hwŏn in "Samguk sagi" (chapter 50), Kim Busik emphasize the "ungratefulness" of the "rebel", who once "used to eat Silla's ration of rice (祿)", and then became Silla's bitter enemy.

authorities (vol. 1, pp. 252-256). Due attention also paid in the book to the "colonial" type of capitalism, with its system of bureaucratic "protection" and monetary "gratitude" of enterprisers, all-important war supplies and consequent flourishing of a few well-connected "elect" companies: special chapters are dedicated to such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patronized capital as Han Sangryong (director of Hansŏng Bank in 1903-1928, known afterwards as a successful middleman in connections between Korean business aspirants and omnipotent colonial authorities; 1880-?), Chang Chiksang (a landlord-turned-banker whose younger brother, Chang T'aeksang, played the leading role in oppositional politics of Rhee Syngman period; 1883-1947), Pak Yŏngch'ŏl (a provincial governor-turned-banker, known for his "production enhancement first, equality with the Japanese second" stance; 1879-1939), Pak Sŭngjik (the founder of today's Tusan Corporation, one of the biggest producers of food in South Korea; 1864-1950) and others (vol. 2, pp. 131-204). For educated South Korean urbanites, the revelations about pro-Japanese activities of the two much-revered pioneers of "new literature", novelist Kim Dongin (the founder of the first Korean "pure literary" magazine, "Ch'angjo"; 1900-1951) and poet Chu Yohan (traditionally known as the "father" of Korean free verse; 1900-1979), could sound quite shockingly (vol. 3, pp. 34-49). Still, in many chapters traditional moralizing rhetoric of "the trial of the history" overwhelms leftist socio-economic analysis.

As it could be expected, the popular criticism of colonial and post-colonial ruling system brims with Confucian "righteous wrath". The chapter on Lee Chiyong (known for his role in concluding the ill-famed "Protectorate Treaty" of 1905; 1870-1928), for example, is almost entirely based on the motif of "total immorality" of this negative personage - characteristically, he is accused of being an inveterate gambler and avaricious bribe-taker, and his wife is portrayed as a light-o'love keen on taking to amours with Japanese officers. Both are described as object of popular hatred and derision and royal censure. Lee Chiyong's refusal to sign the "Treaty of Annexation" of 1910 is interpreted as caused only by the fear of possible mob violence or assassination, and hi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 for redemption of the national debt in 1907 is not satisfactorily explained at all (vol. 1, pp. 69-76). On the whole, the "traitors" are pictured as normal "villainous retainers" of dynastic histories: corrupt lechers leading a voluptuous life, distrusted by the ruler and despised by the ruled¹²⁾. In the same manner, Cho

Chungŭng (known for his consistent anti-Russian, pro-Japanese and pan-Asianist stance and role in forcing Kojong to abdicate in 1907: 1860-1919) is severely censured for having two wives, a Japanese and Korean, at the same time (vol. 1, p. 139). Quoting the contemporaries' criticism, the author calls his "hero" "a frivolous fellow who forsook the ethic and moral in pursuit of personal [career] advancement" (vol. 1, p. 143)¹³. In the chapter on the head of Min's clique, Min Yŏnghŭi (a high-ranking official in 1877-1894, known for acquisition of wealth through extorting unjust taxes: 1852-1935), it is mentioned that the "hero"'s son, characterized as "dissolute lecher" and "niggard" at the same time (those two attributes are to some degre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but for the narrator it was important to disgrace the personage with all negative attributes possible in the Confucianist historical writing), curried favour with the Japanese by donating them money economized on his father's funeral ceremony (vol. 1, p. 229).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unfilial son" is possibly the worst characteristic in the Confucian world. The other important type of unduteousness known in the Confucian tradition is that towards one's teacher, and that is what Chŏng Manjo (a pro-Japanese Confucian scholar who was appointed the principal of the Korean National Confucian Academy in 1929: 1858-1936) is being accused of: he was the only disciple of famous Kang Wi (a progressive Confucianist, who inherited Kim Chŏnghŭi's tradition: 1820-1884) to serve "the illegitimate rulers", the Japanese (vol. 2, p. 235).

12) For example, T'ang Kao-tsu's Heir-Apparent, Chien-ch'eng (太子 建成) and his younger brother and supporter, Li Yüan-chi (李元吉) who were slain by Li Shih-min (T'ai-Tsung) in the famous "Hsüan-wu Gate Incident" (626) were afterwards portrayed in "Chiu T'ang Shü" (chapter 69) as "model villains", treacherous, greedy, lascivious and sadistic. Those portraits are hardly historically true, but the method of "character assassination" employed by dynastic historian itself can become an object of research.

13) It is well-known that in canonical Confucian works the faithfulness to the principles of Justice (義) or Benevolence (仁) immanent to the Profound Persons (君子), is contrasted usually with the attachment to material life normal for Shallow Fellows (小人). For example, one of the most well-known of the saying ascribed to the Master (which actually became a popular proverb in Korea) reads: "The men of principles and benevolent persons never pursue the [material] life doing harm to the principle of Benevolence. [They] rather sacrifice themselves to attain the [perfection] in Benevolence"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Lun yü", §15.9).

4. Conclusion.

As it could be seen from the texts analyzed above, the "pro-Japanese collaboration" issue was traditionally shunned in outlined academic writings on Korean history, for the basic concept of contemporary history as that of "nationwide fight against the foreign aggressor" was beyond doubt and criticism. Then, the mention of the fact that large group of Chosŏn noblemen-landlords and *chungin* intellectuals enjoyed prosperity throughout the colonial times to become the backbone of the new ruling class of post-colonial period, could contradict the conception of "anti-colonial nationalistic legitimacy" on which South Korean official state ideology is based. Principally, leftist "contra-elite" and its ideologues - *minjung* historiographers - agree with traditional nationalist concept of state legitimacy in that the anti-colonial struggle and solid nationalistic credentials only can make the state power legitimate. But, unlike their opponents, they contend - partly in unison with North Korean propaganda - that only extreme leftists (mostly Communists) conducted real and meaningful anti-Japanese fight, and South Korean state is not legitimate, for it was founded and ruled by either pro-Japanese or pro-American "anti-national" elements. This question of state legitimacy seems to be the main reason of the enormous attention the leftists pay to the issue of "collaboration" in their popular propaganda. Their popular and easily comprehensible historical writings full of Confucian moralizing attractive for mass reader are portraying the history of Korean contemporary ruling elite as that of "treason and immoral anti-national behaviour", revealing to what extent today's "haves" of South Korea are connected with the despised "collaborators" of the past.

The undeniable service *minjung* "prophets" did render to Korean historiography is the impetus they gave to the traditional academical historians - as we could see, newly-written outlined history by Han Yŏngu explains the issue of "collaboration" in much more detailed way than that by his teachers. Still, from any objective point of view, the anti-elite bias of *minjung* adepts amounts to the outright distortion of Korean history. First, the pro-Japanese position of many prominent *yangban* and *chungin* reformers of Late Chosŏn period (members of the so-called "Enlightenment Party" and activists of moderate enlightenment movement of 1910th) was indeed a grave miscalculation. Still, it is understandable to some degree that the progressive-minded Korean who witnessed the defeats and humiliations experienced by Ch'ing China, aggressiveness and backwardness of Tsarist

Russia and cynical indifference of America could be easily psychologically "overpowered" by the tangible successes of Meiji reforms. Then, after the tragedy of the annexation it was quite clear to the people of Ch'oe Namsŏn or Rhee Syngman's calibre that as far as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ower around the Peninsula remained stable with no mighty neighbour challenging Japan, the prospects for immediate independence could be only very bleak: desperate acts of terrorism hardly could seriously weaken Japan's positions. So, the logic of "production enhancement", "improvement of nation" or "independence through diplomacy could indeed be very attractive: it was possibly the only real productive service Korean intellectuals could render to their country under those gloom circumstances. The collusive ties between Korean capital and the colonial authorities - the phenomenon which contributed much into the shaping of today's *chaebŏl* system - only copied the situation in Japan itself, and to some degree can be viewed as a "necessary evil". It is complete absurdity to accuse Korean businessmen of Kim Yŏnsu type of "flattering the Japanese" - the dependence of capital on bureaucrats was cultural and social norm in imperial Japan, and Korean capitalists had no choice if they wanted to survive. Finally, it is undeniable that collaboration of almost all prominent members of bourgeois educated society in pro-war propagandist efforts in 1938-1945 constituted an anti-national crime. At the same time,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llaborators" themselves, mobilizational activity could be the price they thought they had to pa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ultural fabric of the society - schools, churches and so on.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the circumstances of this sort hardly can any right to judge the "collaborators". And the prominence of most former "collaborators" in post-colonial times is easily explainable given their administrative and cultural experience and Rhee Syngman's urgent need to build base of support in the country he returned to after so long time of exile.

Second, we should not overestimate the degree of independence and maturity of leftist extremists. Most of them were completely dependent on Moscow or Chinese communists both psychologically and materially and could not went further than Stalinist "military socialism" ideologically. In the impoverished country separated from Europe culturally, politically and spacially critical and democratical approach to socialism of social-democratic revisionist type hardly could find its place in real politics.

Third, further study of the issue of "collaboration" - in fact, the broader

question of political behaviour of colonial local elite - are indispensable for fuller understanding of today's South Korea which indeed remains much influenced by the colonial legacy. But we should focus our attention on complex logic of motives and cultural impulses rather than brand "pro-Japanese" any person influenced by imperial modernization project of Meiji. Ways of history are not always straight, and we can not demand from the past to adapt itself to our norms and perceptions.

Main References:

1. Ch'inil-p'a kusipku in ("The 99 Pro-Japanese Collaborators"). Vol. 1-3, Tolpegae Publishers, 1993.
2. Ch'oe Byōnghōn, Ilbon pulgyo-ūi ch'imt'u-wa singminji pulgyo-ūi sōng'gyōk, ("The intrusion of Japanese Buddhism and the nature of colonial Buddhism") - <The 3rd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PAKS). Collection of Papers on Korean Studies>. Sydney, 1996, 1-4 July.
3. Ch'ōngsan-haji-mothan yōksa ("The uncleared history"). Vol. 1-3, Ch'ōngnyōn-sa Publishers, 1994.
4. Inmul-lo ponūn ch'inil-p'a yōksa ("Personified History of Pro-Japanese Group"). Yōksa pip'ōng-sa Publishers, 1993.
5. Kang Man'gil, Han'guk kūndae sa ("Modern History of Korea"), Han'guk hyōndae sa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 Ch'angjak-kwa pip'yōng Publishers, 1984.
6. Lee Gibaek, Han'guk sa sinnon ("New History of Korea"). Ilchogak Publishers, 1989.
7. Lim Hye bong. Pulgyo-gye-ūi ch'inil inmaek ("Pro-Japanese groups in Buddhist circles"), - <Historical review> (<Yōksa pip'ōng>), Vol. 22, 1993.
8. Han Ugūn, Han'guk t'ongsa ("The History of Korea"). Ŭryu munhwa-sa Publishers, 1988.
9. Han Yōngu, Tasi ch'annūn uri yōksa ("Our History rethought"). Vol. 1, 2, 3, Kyōngsewōn Publishers, 1998.
10. Han'guk yōksa ("Korean History"), compiled by Han'guk yōksa yōn'guhoe ("Society for research on Korean History"). Yōksa pip'ōng-sa Publishers, 1992.

學部 編纂 國語 教科書와 修身.倫理 教科書의 指示語에 대하여

佐野 三枝子

1. 머리말

開化期는 한글體와 國漢文 混用體가 併用된 時期였다. 1894년부터 1904년까지는 한글體와 國漢文體의 競爭期이고 1904년부터 1910년까지는 國漢文體의 定着期라고 한다.¹⁾ 開化期에 編纂된 教科書는 國漢文 混用體를 主流로 하였다.²⁾ 學部 編纂의 세 가지 國語 教科書는 1895년부터 1896년까지, 修身 教科書는 1907년에 編纂되었다. 이 네 가지 學部 編纂 教科書에는 指示語를 비롯하여 漢字語와 그것에 該當되는 固有語의 두 形態로 表記한 낱말이 많이 보인다. 이 글에서는 學部 編纂의 네 가지 教科書에 나타난 指示語에 관해서 漢字語와 그것에 該當되는 固有語가 共存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2. 學部 編纂 教科書

教科用 圖書 編纂 事業³⁾은 대략 學部를 中心으로 하는 政府 官署의 圖書 編纂 事業과 獨立 精神을 鼓吹시키고 反日 思想을 복돋우기 위하여 나선 民間 團體, 즉 教育會 및 學會와 個人들을 中心으로 한 民間의 教科用 圖書 編纂 事業이 있었다. 學部에서 編纂한 國語 教科書와 修身.倫理 教科書의 編纂에 대하여 簡略하게 整理해 보기로 한다. 資料는 亞細亞文化社에서 發刊한 『韓國 開化期 教科書 叢書』를 使用한다.

.國語 教科書의 編纂

1894年 甲午改革의 基本 精神인 自主獨立과 歷史的 主體性을 教育하기 위하여 學部에서 教科書를 發刊하였다. 變貌하는 世界 情勢, 時事, 科學 등 近代的 知識의 普及과 受容에 力點을 두고 編纂되었다. 初期의 여러 教科書 가운데에서 國語 讀本은 가장 精髓이며 基本的인 教科書였다.

.修身.倫理 教科書의 編纂

1895年 7月 公布된 「小學校令」에서는 小學校에서 履修해야 할 教科目 중 修身을 우선 科目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1895.1896년에는 「小學校 教則 大綱」에 提示된 教授 要目과 內容을 갖춘 修身.倫理 教科書가 學部에서는 刊行되지 못했

佐野三枝子 - 同志社大學 非常勤講師

1) 閔賢植(1993) 參照.

2) 金億洙(1979ab), 閔賢植(1993), 沈在箕(1992a), 李基文(1970) 參照.

3) 康允浩(1973)와 「韓國 開化期 教科書 叢書」(1977) 參照.

고 臨時로 『夙惠記略』이 教科書로 쓰였다. 그 後 1907年에 『修身書』가 學部에서 發刊되었다. 그 教育 目標나 內容은 國民의 基本 精神 教育, 특히 愛國, 愛族 思想과 純粹한 人間 教育 完成에 重點을 두었다.

各 教科書의 性格과 內容은 다음과 같다.

『國民 小學 讀本』

1895年 梧秋에 學部에서 最初로 編纂 刊行한 新教育用 國語 教科書이다. 國漢文 混用體이며, 모두 三十一課 57張으로 되어 있으며 比較的 長文型을 이루고 있다. 內容은 國家.歷史 등을 中心으로 하여 比較的 水準 높은 漢字가 많이 使用되어 있다.

『小學 讀本』

1895年 仲冬에 學部 編輯局에서 新刊한 教科書이다. 國漢文 混用體이며 모두 五單元 30張으로 되어 있다. 『國民 小學 讀本』보다도 難解한 漢字가 많이 使用되어 있다. 內容은 主로 歷史的 名賢의 行蹟을 中心으로 한 修德 中心의 倫理用 教科書의 性格을 풍기고 있다.

『(新訂)尋常 小學』

1896年 2月 學部 編輯局에서 新刊한 國語 教科書이다. 「新訂」으로 되어 있으나 序의 「建陽 元年 二月 上澣」이란 刊記는 初版本 尋常 小學에 실렸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國漢文 混用體이다. 모두 三卷 三冊이며 卷一은 字母配合表 1張, 序 2張, 目錄 3張, 本文 28張, 卷二는 目錄 3張, 本文 38張, 卷三은 目錄 3張, 本文 49張으로 되어 있다. 內容은 生活 中心.家庭 中心.社會 中心 등 比較的 平易한 單元 中心으로 엮어져 있다. 日本人 補佐官 高見龜, 麻川松次郎가 編纂에 參與한 것이 序에 記錄되어 있다. 編製上 새로운 技術的 面을 開拓하였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1907年 2月에 學部에서 直接 發刊한 것이다. 印刷는 日本의 三省堂 書店으로 되어 있다. 4卷 4冊이며 卷一은 48張, 卷二는 58張, 卷三은 48張, 卷四는 44張이다. 國漢文 混用體이다. 內容은 徹底的 個人 處身, 家庭 生活, 社會 生活를 主題로 한 單元으로 構成되어 있다.

開化期 國語 教科書에 대해서 조문재(1986)는 文學的 教材를 重要視하고 그것을 通하여 個人, 家庭, 社會, 國家 등 네 面에서 다음과 같은 價值觀을 기르고자 하였다고 指摘하였다. 먼저 個人에는 勤學, 清廉, 참된 삶, 正直, 深思熟考, 努力, 誠實, 勤勞, 責任 完遂, 勇氣, 報恩, 辭讓之心, 約束 嚴守, 實踐, 忍耐, 謙遜, 決斷心, 擇交, 短點 是正, 淳朴, 惻隱之心, 節制, 禮節, 貯蓄, 衛生, 機智 등이다. 다음에

家庭에는 孝道, 順從, 和睦, 生業에 專念, 友愛 등이며, 社會에는 協助, 人格 尊重, 救援, 慈善, 協力, 和合 등이다. 그리고 國家에는 產業 開發, 團結, 愛族 등이다. 修身.倫理 教科書도 그 內容을 알아보면 이들과 거의 같은 價値觀을 가지고 編纂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指示語

各 教科書에는 漢字語와 그것에 該當되는 固有語가 나타남을 到處에서 確認할 수 있다. 여기서는 指示語 중 指示 冠形詞와 指示 代名詞에 대하여 漢字語 ‘此, 其, 彼’와 그것에 該當되는 固有語 ‘이, 그, 저’의 用例를 살펴봄으로써 漢字語와 固有語가 共存하는 樣相을 밝히기로 한다. 各各 (1)漢字語 ‘此’와 固有語 ‘이’ (2)漢字語 ‘其’와 固有語 ‘그’ (3)漢字語 ‘彼’와 固有語 ‘저’의 順序로 알아보기로 한다. 네 가지 教科書에서는 綴字法에 統一性이 보이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漢字語와 固有語의 問題를 對象으로 하기 때문에 綴字의 차이에 대하여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네 가지 教科書의 用例를 刊行 年度 順으로 提示하되, 같은 낱말을 漢字語와 固有語로 쓴 것이나 綴字를 달리하는 것, 助詞를 수반한 形態인 것은 { }안에 쓴다. < >안에 用例 數를 記入한다. 또 目錄의 낱말에는 *표를 친다. 아울러 ‘是’의 用例도 確認하였으나 ‘本是, 亦是’ 등 熟語로 쓰이는 낱말은 除外하였다. 또 ‘이것, 그것, 저것’은 한 單語로 보는 見解와 두 單語로 보는 見解가 있다. 여기서는 두 單語로 보고 指示 冠形詞에서 다루기로 한다.

3.1. 指示 冠形詞

(1)漢字語 ‘此’와 固有語 ‘이’

『國民 小學 讀本』

①‘此’의 例<5>

此交易(26ㄱ)此國(63ㄴ)此民(37ㄱ)此三隻(47ㄱ)此世(70ㄱ)

②‘이’의 例<21>

이櫃(11ㄱ)이나라(7ㄴ, 62ㄴ, 63ㄱ)이두말(43ㄴ)이짜(3ㄱ, 7ㄴ, 8ㄱ, 50ㄱ)이찌(28ㄴ, 56ㄱ)
이마음(53ㄴ)이貧寒한地境(35ㄱ)이섬(47ㄴ)이일(18ㄴ, 43ㄱ)이한싸흙(29ㄴ)이化合物
(65ㄱ)이{後(71ㄱ)후(49ㄱ)}이거시(13ㄱ)

指示 冠形詞의 用例 중 漢字語 ‘此’의 被修飾語는 모두 漢字語이고 固有語 ‘이’의 被修飾語는 76%가 固有語이다. ‘此國’이라는 例에 대하여 ‘이나라’라고 指示語와 被修飾語가 固有語인 例가 3例 보인다. 그 중 2例는 ‘此國’의 앞 쪽, 같은 單元에 나타난 것이다. ‘이後’에 대하여 ‘後’를 한글로 쓰고 ‘이후’로 한 例가 1例 보인다. 固有語 ‘이’의 用例가 漢字語 ‘此’의 用例보다 壓倒的으로 많다.

‘此’와 ‘이’의 用例의 分布를 보겠다. 『國民 小學 讀本』은 一卷으로 構成되므로

10張마다 알아보기로 한다. ‘此’의 用例는 1張~20張과 51張~60張을 除外하고 한 예씩 보인다. 한편 ‘이’의 用例는 1張~10張에 4例, 그 다음부터는 ‘3, 2, 1, 5, 2, 3, 1’이라는 數値가 된다. 41張~50張이 가장 많고 5例이다. ‘此’와 ‘이’의 用例의 分布에 關聯性은 보이지 않는다.

『小學 讀本』

各 教科書의 張數는 『國民 小學 讀本』 『小學 讀本』 『(新訂) 尋常 小學』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順序로 各各 57張, 30張, 115張, 96張이며 거의 2 : 1 : 4 : 3의 比率이 된다. 『小學 讀本』은 그 分量이 가장 적고 指示 冠形詞의 用例 數도 其他 教科書에 비하여 약간 적다. 漢字語 ‘此’의 用例는 없다. ‘이’의 被修飾語는 漢字語뿐이다.

② ‘이’의 例<3>

이變(14ㄴ)이實地(7ㄱ)이學問(15ㄴ)

『(新訂) 尋常 小學』

① ‘此’의 例<16>

此十二箇月(三36ㄴ)此鳩(三43ㄴ)此故로(三39ㄴ)此等軍士(三47ㄴ)此三德(二9ㄱ)此獸(三41ㄱ)此時(二37ㄱ)此亦(三26ㄴ)此外(一3ㄱ三45ㄴ)此日(三1ㄱ,23ㄴ)此中(三47ㄱ)此地球(三35ㄴ)此後(三11ㄱ,30ㄴ)

② ‘이’의 例<81>

이가마귀(二28ㄴ)이리구리(二12ㄴ)이개(一17ㄱ)이景致(二17ㄴ)이곳치(二6ㄱ)이軍士들(二18ㄴ)이그림(一7ㄴ三41ㄱ,46ㄱ)이글쭈(二13ㄴ)이農夫(二37ㄱ)이다리[脚](二35ㄴ<2>)이다리[橋](一22ㄱ)이찌(一15ㄱ)이돈(一10ㄴ<2>)이도고마흔집(一26ㄱ)이두{籠(三10ㄴ)마리(一22ㄴ)아히(三10ㄱ)}이말(三40ㄴ)이말슴(一23ㄱ)이無識흔스름(二30ㄴ,31ㄱ)이버러지(二22ㄴ)이法(三30ㄴ)이{비들기(一12ㄱ)비들기(三43ㄱ)}이썰(二35ㄱ,36ㄱ)이沙場(二11ㄴ)이山應聲(二34ㄱ)이三件(二37ㄱ)이商估(一20ㄱ)이受苦흔(一7ㄴ)이水朴(三10ㄱ,ㄴ)이時針(二25ㄴ)이{스름(二29ㄴ,30ㄴ三6ㄱ)스름들(二3ㄴ)}이식(一9ㄱ二16ㄴ三25ㄴ,43ㄴ)이아리(二18ㄴ)이아우(一18ㄱ)이{兒孩(一4ㄱ<2>二20ㄱ三11ㄱ)아희들(一26ㄱ)}이良日(三23ㄴ)이女子(三17ㄱ)이褥(三14ㄴ)이{이옴기(三9ㄱ)이이기(一11ㄴ)}이일(二34ㄱ)이잔납이(一19ㄱ,ㄴ)이正直흔말(一15ㄴ)이地方(一11ㄴ)이집(一17ㄴ,18ㄱ)이冊床(三28ㄱ)이큰쥐(三12ㄴ)이葡萄田(一26ㄴ)이華盛頓(三9ㄱ)이{거슨(二10ㄴ,12ㄴ,14ㄴ,30ㄱ)것슨(二27ㄱ)}이{거술(一21ㄴ三34ㄱ,36ㄱ)것슬(三37ㄱ)}이{거시(一17ㄴ)것시(二24ㄴ)}

‘此’와 ‘이’에 共通되는 用例는 ‘此鳩, 此時’와 ‘이비들기(비들기), 이찌’의 2例이며 이 ‘이’의 2例의 被修飾語는 모두 固有語이다. ‘이비들기’는 ‘此鳩’와 같은 쪽에

보인다. ‘이아히들’, ‘이두아히’에 대하여 ‘이兒孩’라고 漢字로 쓴 例가 1例 보인다. ‘이’의 被修飾語는 固有語가 72%를 차지한다.

‘此-이’ 順序로 各 卷의 用例 數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27, 2-31, 13-23’ 이다. ‘此’는 卷三이 가장 많고 ‘이’는 卷三이 가장 적음을 알 수 있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① ‘此’의 例<6>

此等事業에(四25)此世(三33,43)此豎子(三29)此外(四21)此際(三26)

② ‘이’의 例<113>

이곳(一3<2>6)이工事(二52)이그림(一3)이急報(四15)이두兒孩(一14)이{새(一21,23)찌(二17)}이마을(三17,18,20)이말(一22二5,28,34,45,53三10,23,30,47四31)이貌樣(二2)이武將(二29)이木枝(三37)이病(四17)이棒子(四8)이사름(三15,20)이세兒孩(一9)이少年(三17,19,20<2>)이小兒(一33<2>37,41)이松板(四8)이兒童(二13,14)이兒孩(一26,31<2>37,39,41二42,44<2>45<2>46)이惡性(三16)이우에(一26)이일(二21三19,28,47)이戰爭(四32)이中(一5)이親舊(二20<2>)이큰돌(一12,13)이學校(一1四40)이{學徒(一3,5)學徒들(一4,5)}이화살(二28)이後(二45)이것(一34<2>35,41二1,8,10<2>13,22,25,26<3>37,41<2>42,43,44,51,55,56,57三2,3,7<3>26,35,37,41,46四17,34,41,42)

‘此’와 ‘이’에 共通되는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이’의 被修飾語의 73%가 固有語이다. ‘此’와 ‘이’의 分布를 보겠다. ‘此는’ 卷三에 4例, 卷四에 2例 보인다. ‘이’의 用例 數는 卷一부터 ‘32, 41, 28, 12’이고 卷三과 卷四是 적다.

以上으로 指示 冠形詞 ‘此’와 ‘이’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네 가지 教科書에서는 固有語 ‘이’의 用例가 많음을 알 수 있다. 『小學 讀本』에는 漢字語 ‘此’의 用例가 없고 『國民 小學 讀本』은 19%, 『(新訂) 尋常 小學』은 16%,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은 5%를 ‘此’가 차지한다. 그리고 固有語 ‘이’의 被修飾語도 『小學 讀本』을 除外하고 固有語의 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小學 讀本』에서 ‘이’의 被修飾語는 모두 漢字語이다. ‘이’의 被修飾語 중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率은 『(新訂) 尋常 小學』이 28%,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가 27%, 『國民 小學 讀本』이 24%이다.

『國民 小學 讀本』에는 ‘此國’에 대하여 ‘이나라’가 3例 보이고 『(新訂) 尋常 小學』에는 ‘此鳩’에 대하여 ‘이비둘기(비둘기)’, ‘此時’에 대하여 ‘이찌’가 보인다. 이 두 教科書는 指示 冠形詞뿐만 아니라 같은 낱말에 대하여도 漢字語와 固有語가 共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漢字語 ‘其’와 固有語 ‘그’

『國民 小學 讀本』

① ‘其’의 例<43>

其間(35ㄴ, 67ㄱ)其國(6ㄴ)其多(43ㄱ)其數(19ㄱ, 24ㄱ, 65ㄱ)其詩(29ㄴ)其分量(20ㄴ)其人(2ㄴ<2>3ㄱ)其餘(4ㄱ, 19ㄱ, 27ㄴ, 44ㄴ, 54ㄴ, 55ㄴ, 64ㄴ, 65ㄱ)其外(63ㄱ)其子(61ㄱ)其族(67ㄱ)其中(1ㄱ, 4ㄱ<2>20ㄱ, 23ㄴ, 30ㄴ, 41ㄴ, 42ㄴ, 59ㄴ, 62ㄱ, 64ㄴ, 66ㄱ)其次(36ㄴ)其他(15ㄴ, 51ㄴ, 65ㄴ, 70ㄴ)其害(17ㄱ)其形(1ㄱ)其後(38ㄱ)

①-1 ‘爾’의 例<1> 爾後(50ㄴ) ①-2 ‘之’의 例<1> 例之 ㅎ면(60ㄱ)

②‘그’의 例<281>

그街衢(20ㄱ)그建築費(27ㄴ)그것히(41ㄴ, 45ㄱ, ㄴ, 67ㄱ, ㄴ)그輕艇船頭(31ㄱ)그膏脂(31ㄴ)그故鄉(40ㄴ)그곳스로(48ㄴ)그功(67ㄴ)그公園(28ㄱ)그敎(36ㄱ)그球(58ㄴ)그九月(41ㄱ)그舊恩(41ㄱ)그求흥(7ㄴ)그櫃(12ㄱ)그勤勞(32ㄴ)그近方(39ㄴ)그近處(2ㄴ)그글(54ㄱ)그機械(13ㄱ)그氣息(43ㄴ)그羈絆(54ㄱ)그길(10ㄱ)그나라(16ㄱ, 18ㄱ, 36ㄱ, 61ㄴ)그나라스름(14ㄴ, 30ㄱ, 37ㄱ, 57ㄱ)그老農(33ㄴ)그圖式(5ㄱ)그다리(13ㄱ)그大學(40ㄱ)그度支大臣(34ㄱ)그篤志(40ㄱ)그돈(11ㄱ<2>)그東(27ㄱ)그東方(27ㄱ)그동안(22ㄴ)그{짜(18ㄱ)짜흐로(54ㄴ, 62ㄴ)짜흘(70ㄱ)썻흘(68ㄴ)}그재{(11ㄴ)찌(11ㄴ, 18ㄱ, 31ㄱ, 34ㄴ, 37ㄴ, 38ㄱ, 40ㄴ, 41ㄱ, 48ㄴ, 49ㄱ, 54ㄴ<2>57ㄱ<2>60ㄴ, 61ㄴ<2>67ㄱ<2>ㄴ, 69ㄱ)고찌(68ㄴ)}그쫓슬(39ㄱ)그{마음(23ㄱ)ㅁ음(2ㄴ)}그말(3ㄱ, 12ㄱ, 34ㄱ, 38ㄴ)그맛당흥(36ㄱ)그머리(64ㄴ)그{먹을거슬(60ㄴ)먹을바(60ㄴ)}그媒(26ㄱ)그明年(41ㄱ)그{貌樣(13ㄱ, ㄴ)모양(44ㄱ, 45ㄱ)}그木石(5ㄱ)그木手(5ㄱ)그몸(32ㄱ, 58ㄴ)그物質(64ㄴ)그尾(30ㄴ, 58ㄱ, 61ㄱ)그蜜(23ㄱ)그밋히(12ㄱ)그發明(66ㄴ)그發明 ㅎ던일(12ㄴ)그半(63ㄱ)그밤(49ㄱ)그房中(44ㄴ)그房內(42ㄴ<2>, 44ㄴ)그方向(21ㄴ, 22ㄱ, 58ㄴ)그背後(41ㄱ)그蕃民(70ㄴ)그法(12ㄱ, 56ㄴ)그邊(23ㄴ)그訃聞(41ㄴ)그北(27ㄴ)그北東(27ㄱ)그뿐(5ㄱ)그保驗證書(40ㄱ)그本國都城(19ㄴ)그俸祿(56ㄱ)그府(28ㄱ)그不足 ㅎ物件(7ㄴ)그費用(51ㄱ)그鼻(61ㄱ)그卑屈흥(48ㄱ)그四肢(57ㄴ, 59ㄴ)그스름(2ㄴ, 11ㄱ, 12ㄱ, 34ㄱ, 35ㄱ)그思想(10ㄱ)그山脈(62ㄱ)그酸素(45ㄴ)그産出(7ㄴ)그三分一(63ㄱ)그三子(11ㄱ)그三種(61ㄴ)그上唇(13ㄴ)그西邊(27ㄱ)그性(59ㄴ)그姓名(10ㄴ)그性質(65ㄴ)그소리(60ㄴ)그水桴(14ㄱ<2>)그水中(31ㄱ)그手中(31ㄱ)그膝(13ㄱ)그時間(33ㄴ)그植物(46ㄱ)그失計(55ㄴ)그스이(21ㄴ, 38ㄴ)그牙(59ㄴ, 60ㄴ)그아닌 일(17ㄱ)그兒孩(16ㄴ)그惡習(42ㄱ)그압히(18ㄴ)그野蠻人(3ㄱ)그어릴재(24ㄱ)그言行(10ㄱ)그業(5ㄱ, 9ㄱ, 30ㄴ, 31ㄴ)그力(31ㄴ)그役事(38ㄱ)그緣由(21ㄱ, 45ㄴ)그悅心(2ㄴ)그染料(66ㄴ)그葉(9ㄴ)그外(62ㄴ, 63ㄴ)그勇猛(68ㄴ)그勇將(69ㄴ)그{우혜(22ㄱ)우희(5ㄴ)}그胃(60ㄱ)그{危殆 ㅎ물(30ㄴ)危殆 흥을(12ㄱ)}그危殆 ㅎ찌(61ㄱ)그危險(31ㄴ)그流動(20ㄴ)그遺言(70ㄱ)그肉塊(13ㄴ)그義兵(40ㄴ)그意外(60ㄴ)그利(30ㄴ)그翌年(40ㄴ)그翌月(55ㄴ)그일(11ㄱ, ㄴ, 65ㄱ)그一片(12ㄱ)그일 ㅎ물(23ㄴ)그일 흥(64ㄱ)그입(13ㄴ, 45ㄴ, 58ㄱ<3>)그雌蜂(24ㄱ)그雌雄(24ㄱ)그長(62ㄴ)그長短廣狹(17ㄴ)그長子(11ㄱ)그裝載(52ㄴ)그才略(71ㄱ)그材料(23ㄴ)그錢(25ㄴ)그精密 ㅎ觀察(3ㄱ)그精神(53ㄴ)그諸島(50ㄱ)그鳥(58ㄱ)그爪(59ㄴ, 60ㄴ)그條約國(14ㄴ, 15ㄱ)그助暴흥(52ㄴ)그種類(23ㄴ)그罪(52ㄴ)그中(24ㄱ, 27ㄴ, 32ㄱ)그中學校(39ㄱ)그脂肪質(13ㄴ<2>)그地位(20ㄴ)그職工(63ㄴ<3>)그眞否(49ㄴ)그進航 ㅎ닌(48ㄱ)그質(65ㄴ)그집(11ㄴ, 32ㄴ)그次(46ㄴ<2>)그冊(10ㄴ)그天

性(61ㄴ)그燭불(43ㄱ)그總督(69ㄴ)그齒(60ㄱ)그親愛한情誼(41ㄱ)그侵地(55ㄴ)그炭(63ㄱ)그털(13ㄱ)그土人(50ㄱ)그틈(61ㄱ)그平生(59ㄱ)그品別(32ㄱ)그學校(37ㄴ)그限(24ㄱ)그銜轡(17ㄱ)그港口(28ㄴ)그히(55ㄴ)그幸福(6ㄱ, 33ㄱ)그虛實(29ㄱ)그海岸(46ㄱ)그害(59ㄱ)그赫赫한(57ㄴ)그形容(12ㄴ)그形狀과性品等(2ㄱ)그火(43ㄴ)그歡喜흥(49ㄴ)그後(5ㄴ, 39ㄴ, 41ㄱ)그後裔(72ㄱ)그後足(61ㄱ)그힘(2ㄱ)그것슬(59ㄴ)

『國民 小學 讀本』은 歷史, 地理, 時事, 植物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漢字語가 많다. 固有語 指示 冠形詞 ‘그’의 被修飾語도 그러하다.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率은 66%이다. ‘爾’와 ‘之’는 1例씩 보인다. ‘其’의 用例 17날말 43例 중 8날말 ‘其人, 其國, 其中, 其間, 其次, 其後, 其外, 其害’(21例)에 대하여는 ‘그’의 用例 중에 對應되는 用例가 보이나 ‘其中, 其次, 其後, 其外, 其害’는 ‘그中, 그次, 그後, 그外, 그害’라고 漢字語로 表記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쪽 안에 ‘其人을(2例)’와 ‘그스름몸이’라는 漢字語와 固有語의 두 가지 形態가 보이는 例가 있다. 以外에도 ‘그’의 用例에는 쪽을 달리하나 ‘錢’과 ‘돈’, ‘力’과 ‘힘’과 같이 漢字語와 固有語의 두 形態가 쓰인 例가 있다. 이것은 『國民 小學 讀本』이 全體的으로 보면 漢字語가 많으나, 漢字語에서 固有語로 變化해 가는 樣相을 反映하고 있다고 본다. 또 ‘그明年’-‘그翌年’과 같은 類義語가 보이는 例나 ‘그貌樣’-‘그모양’과 같이 漢字語와 한글로 달리 表記한 例도 보인다.

‘其’와 ‘그’의 分布를 보겠다. ‘其-그’ 順序로 10張마다 用例 數를 提示하면 ‘9-27, 6-48, 5-34, 3-43, 4-38, 4-44, 12-45, 0-2’가 된다. ‘其’의 用例는 61張~70張에 ‘그’의 用例는 11張~20張에 많음을 알 수 있다.

『小學 讀本』

①‘其’의 例<13>

其人(6ㄱ<3>)其心上(18ㄱ)其意中(18ㄱ)其政(6ㄱ<2>)其魄(18ㄱ)其命(4ㄴ)其衷(18ㄱ)其夫(29ㄴ<2>30ㄱ)

②‘그’의 例<42>

그距(7ㄴ)그工夫(20ㄱ)그光彩(20ㄱ)그根(29ㄱ)그祿(8ㄴ)그鍛鍊(25ㄱ)그德(2ㄴ, 12ㄴ)그道(22ㄱ<2>)그吝(26ㄴ)그名(8ㄴ, 21ㄱ)그房(7ㄴ)그병(6ㄱ)그貧(26ㄴ)그勢(14ㄴ)그壽(8ㄴ)그始(23ㄱ)그身(10ㄴ)그實(21ㄱ)그心(6ㄴ, 21ㄱ)그福(13ㄱ)그言(21ㄱ)그緣由(30ㄱ)그材(5ㄱ)그位(8ㄴ)그自防함(7ㄴ)그自養함(7ㄴ)그躁함(20ㄱ)그凋萎함(29ㄱ)그前(23ㄱ)그弟子(22ㄴ)그才(9ㄴ)그終(22ㄴ)그糟(7ㄴ)그澤(13ㄱ)그偏(20ㄱ)그翮(7ㄴ)그惠(26ㄴ)그後(23ㄱ)

‘其’의 用例는 모두 8날말 13例이나 第一(첫 張~4張 뒤 5行) 4張 뒤에 1例, 第二(4張 뒤 6行~6張 뒤 8行) 6張 앞에 5例, 第四(11張 뒤 8行~20張 뒤 4行) 18張 앞에 4例, 第五(20張 뒤 5行~30張 뒤 5行) 29張 뒤에 2例, 30張 앞에 1例이며 세

張에 集中되어 있다. 第三(6張 뒤 9行~11張 뒤 7行)에는 用例가 없다. ‘그’의 用例는 第五와 第三에 많다. 各 單元마다 用例 數를 提示하면 ‘1, 3, 12, 4, 22’이다. ‘그’의 用例가 ‘其’의 用例의 세 배 이상이 된다.

『(新訂) 尋常小學』

其內(一13ㄱ)其實(三35ㄱ)其餘(一10ㄴ三35ㄴ)其餘月(三38ㄴ)其人數(一23ㄱ)其巢(三25ㄱ)其恩澤(三23ㄴ)其中(二28ㄴ三25ㄱ)其冊數(三4ㄴ)其親(三13ㄱ)其他(一20ㄴ三6ㄱ27ㄴ)其後(二13ㄱ三7ㄱ30ㄱ)其回轉후(三35ㄱ)

그가(二24ㄴ)그가을(一26ㄴ)그가지(二12ㄴ)그居留地(三29ㄴ)그{것테(三27ㄴ)것테(二14ㄴ)그것히(一18ㄴ)}그景致(二17ㄴ)그고기(一25ㄴ)그苦狀(一2ㄴ, 8ㄴ<2>二31ㄴ) 그곳에서(三33ㄴ)그管轄되느(三5ㄴ)그教育흥(三22ㄴ)그구경흥(三17ㄴ)그구멍(一13ㄴ二3ㄴ)그國政(三23ㄴ)그썰(三32ㄴ)그섬(三11ㄴ)그그림(三29ㄴ)그글썽(二13ㄴ)그기름(二8ㄴ)그깃(二13ㄴ)그끗치(二24ㄴ)그나무(一18ㄴ, 24ㄴ)그날(三23ㄴ)그農夫(二36ㄴ)그늬은父母(二31ㄴ)그다리(一16ㄴ)그{째(二25ㄴ)찌(一16ㄴ二21ㄴ, 32ㄴ, 35ㄴ三1ㄴ, 2ㄴ, 13ㄴ)}그독(二20ㄴ)그同居ㅎ든(二4ㄴ)그同生(二36ㄴ三29ㄴ)그뒤(二14ㄴ三12ㄴ)그등(三41ㄴ)그뜻(二13ㄴ三27ㄴ<2>)그마음(二5ㄴ)그말(二33ㄴ三6ㄴ, 44ㄴ)그말[馬](二25ㄴ三34ㄴ)그말슴(一26ㄴ)그밍그논法(二11ㄴ)그面(二24ㄴ)그蔑視ㅎ논줄(二33ㄴ)그母(三13ㄴ)그모리(二11ㄴ)그몸(一19ㄴ<2>*二5ㄴ, 36ㄴ<2>三4ㄴ)그無禮흥(三18ㄴ)그文字(三27ㄴ)그물(二3ㄴ)그바늘(二24ㄴ)그바탕(三10ㄴ)그撲火ㅎ고조흥(一21ㄴ)그밝은편(三35ㄴ)그方法(二37ㄴ, ㄴ)그培養(三22ㄴ)그벗(一15ㄴ<2>)그뼈(三41ㄴ)그부엌아귀(二15ㄴ)그불(二15ㄴ)그빈조리(二7ㄴ)그썰이(二7ㄴ, 22ㄴ, 35ㄴ)그비들기(三43ㄴ<2>44ㄴ)그{빋(三20ㄴ)빋슨(一7ㄴ)}그辭義(三27ㄴ)그事蹟(三27ㄴ)그스름(一7ㄴ二27ㄴ三8ㄴ, 10ㄴ, ㄴ)그시(二16ㄴ)그식기(三12ㄴ)그生覺(三26ㄴ)그生鮮(一24ㄴ)그書生(二5ㄴ)그세物件(三29ㄴ)그世上(二9ㄴ)그巢口(三25ㄴ)그소곰(二11ㄴ三33ㄴ)그소리(二16ㄴ三41ㄴ<2>)그小斧(三8ㄴ)그속(一17ㄴ, 18ㄴ二6ㄴ, ㄴ, 24ㄴ, 28ㄴ三25ㄴ, 32ㄴ)그속음(一25ㄴ)그손가락썩(一20ㄴ<2>)그숫(二14ㄴ)그송니니던(二33ㄴ)그아리(二28ㄴ)그兒孩(一4ㄴ)그알(二15ㄴ)그옹들(二31ㄴ)그櫻木(三8ㄴ)그어머니(二33ㄴ)그業(二27ㄴ)그여호(三6ㄴ)그연[鳶](一10ㄴ)그緣故(三17ㄴ)그外(二24ㄴ)그料量(三34ㄴ)그褥(二33ㄴ三14ㄴ)그慾心(一21ㄴ)그用力(三21ㄴ)그우논소리(三41ㄴ)그異同(三27ㄴ)그이이기(二11ㄴ)그임(一2ㄴ三8ㄴ, 9ㄴ)그一分(一4ㄴ)그잇튼날(一19ㄴ)그

仔細히理致(三36ㄴ)그子孫되느 者(二32ㄱ)그잘못 함(三8ㄴ)그塵舖(一19ㄴ)그貞姬(三20ㄱ)그제기(二3ㄱ)그젓슨(一5ㄴ)그祖父(二14ㄴ)그種類(二7ㄴ三20ㄴ)그左方(三46ㄴ)그中心(二7ㄴ)그{중(二3ㄱ)中(二22ㄱ)}그職分(三6ㄱ)그職業(二27ㄱ)그짐(三33ㄴ)그집(一19ㄴ二6ㄱ三25ㄱ<2>)그冊(三27ㄴ,28ㄱ<2>)그冊모퉁이(三28ㄱ<2>)그冊床과交椅(三29ㄱ)그簷牙(一17ㄱ)그親切히야(二10ㄱ)그큰쥐(三12ㄴ)그香氣(三20ㄴ)그賢明함(三17ㄴ)그兄(二23ㄴ,24ㄱ)그形狀(二6ㄱ)그형적(二33ㄴ)그후(二15ㄱ,26ㄱ)그힘(三41ㄴ)그{거슨(二15ㄱ)거슨(三38ㄱ)것슨(一13ㄴ)}그{거슬(二11ㄱ,12ㄴ)것슬(三9ㄱ)}그것(一21ㄴ)

‘其中, 其他, 其後’에 對應되는 ‘그’의 用例가 보이거나 같은 單元에 보이는 例는 없다. ‘其他’는 現代語에서 그대로 쓰이는 낱말인데 ‘그外’가 이것에 該當된다. ‘其中’에 대하여 ‘그’의 用例는 2例 있으며 모두 漢字語이나 한 例는 ‘中’을 한글로 ‘중’이라고 쓴 것이다. ‘其後’에 該當되는 例는 ‘그후’라고 한글로 쓴 것이며 2例 있다. ‘그’의 用例 중 63%가 固有語이나 ‘母’-‘어머니’, ‘文字’-‘글썽’, ‘力’-‘힘’과 같이 漢字語와 固有語의 두 가지 形態가 보이는 例도 있다. 여기서도 漢字語가 固有語로 代替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此中’과 ‘其中’, ‘此後’와 ‘其後’ 등 ‘此’와 ‘其’가 對應되는 例도 있는데 ‘此後’와 ‘其後’의 用例 중 한 例는 서로 같은 單元的 前後하는 쪽, 즉 三卷 30張 앞과 뒤에 보인다. 이러한 例는 其他 部分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其’의 分布를 보면 卷一이 4例, 卷二가 2例, 卷三이 13例이고 ‘그’는 各各 37例, 79例, 80例이다. 이 教科書는 大部分의 單元에 插畫가 있고 文章도 比較的 平易하고 前述한 두 教科書에 비하여 固有語가 많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①‘其’의 例<17>

其獨(三3)其數(四40)其時(二4,23三40)其臣(四28)其子女(四19)其中(二38ㄴ三25)其次(三25)其他(二15,43三27,35四12)其後(四37)適其時(四30)

①-1 ‘厥’의 例<1> 厥後(四27) ①-2 ‘之’의 例<1> 猶恐失之히거늘(三31)

②‘그’의 例<125>

그가마귀(三7,8)그家事(二55)그舉動(四35)그것헤(三15)그苦痛(四34)그故鄉(四26)그曲直(二36)그功勞(四32)그過失(一24)그官位(三30)그寬大함(三30)그歸路(二8)그根本(三35)그祈禱者(三36,38)그날밤(一45)그能力(三27)그말(一46四15)그母親(一31二8,54)그物件(二53)그모임(一43)그博愛心(四32)그뵈(一35)그伯父(二55)그父母(二13三41,42)그婦人(二43<2>)그父親(一20,23,24,44<2>)그朋友(二16,21)그사과임(三6)그사름(三17<2>18<2>33<3>45,46<2>四6,15)그姓名(三30<2>)그少年(四2)그正木(二42)그所以然(三31)그속(三37)그身命(四38)그兒童(二13)그兒孩(一13<3>18<2>19,40,41<2>43<2>)그良人(三40)그女兒(三43)그緣由(二35,44)그禮容(二13)그우(四8<2>9)그憂

苦(四42)그友人(三33)그恩惠(二53四35,37)그理致(三39)그翌朝(二52)그子息(二30,42)
 그箴文(三15)그寂寞함(二7)그適任者(四28)그塵(一41二42,44)그傳染함(四17)그朝士(三29)
 그主人(一36,41,42三31)그地方(三40)그집(二34)그徽章(四39)그親흔것(三6)그親切함(二17)
 그破碎(二9)그風俗(二33四30)그行爲(三2)그後(一18,26,40,43三19)그花園(三1)
 그畫帖(一45,46)그黃犬(四33,35)그喜樂(四41)그것(一35二4三6,7)

‘其’와 ‘그’에 共通되는 用例는 ‘其後’, ‘그後’의 1例뿐이다. 國語 教科書처럼 漢字語와 固有語가 共存하는 例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의 被修飾語는 漢字語가 많고 모든 用例의 69%를 차지한다. ‘厥, 之’의 例가 1例 보인다. ‘其’와 ‘그’의 分布를 보겠다. ‘其-그’ 順序로 用例 數를 比較해 보면 ‘0-33, 5-29, 6-40, 6-23’이 된다. 여기서도 關聯性은 보이지 않는다.

指示 冠形詞 ‘其’와 ‘그’에 관하여도 ‘此’와 ‘이’의 樣相과 거의 그 傾向을 같이한다. 모든 教科書에서 漢字語 ‘其’보다 固有語 ‘그’의 用例가 많다. 모든 用例 중 ‘其’가 차지하는 比率은 『小學 讀本』이 가장 높고 24%이다. 그리고 『國民 小學 讀本』이 13%,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가 12%, 『(新訂) 尋常 小學』이 9%이다. 固有語 ‘그’의 被修飾語를 보겠다. 『小學 讀本』은 모두 漢字語이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漢字語의 比率이 69%이고 『國民 小學 讀本』은 66%이고 『(新訂) 尋常 小學』은 37%이다.

세 가지 國語 教科書에는 적어도 한두 例씩이기는 하나 한 낱말을 漢字語와 固有語로 表記한 例가 보인다. 이 點으로써도 ‘其’와 ‘그’에 관하여 漢字語에서 固有語 使用으로 變化해 가는 狀態임을 알 수 있다.

(3)漢字語 ‘彼’와 固有語 ‘저’

漢字語 ‘彼’의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또 『小學 讀本』에는 固有語 ‘저’의 用例도 없다.

『國民 小學 讀本』

②‘저’의 例<2>

저나라(7ㄴ)저자(7ㄴ)

『(新訂) 尋常 小學』

②‘저’의 例<11>

저나무(二22ㄴ)저물엿든고기(一17ㄱ)저房(二4ㄱ)저사슴(二35ㄴ)저兒孩(三10ㄴ)저羊들(一22ㄱ)저나무입히(二23ㄴ)저두바늘(二24ㄴ)저거슨(二24ㄱ三13ㄱ)저것슬(二23ㄴ)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②‘더’의 例<6>

더可憐한女兒(三42)더乞兒(三42)더사름(二40)더櫻花나무(一22)더증싱(一16)더學徒들(一7)

『國民 小學 讀本』에서는 ‘저’의 被修飾語는 모두 固有語이다. ‘나라’는 앞에서 (1)‘此國’-‘이나라’와 (2)‘其國’-‘그나라’와 같이 漢字語와 固有語의 두 形態가 보인 것이다. 『(新訂) 尋常 小學』에서는 ‘저’의 用例는 固有語가 11例이고 漢字語는 2例뿐이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에서는 固有語는 ‘더’뿐이며 6例 중 4例가 漢字語이다.

指示 冠形詞 全體에 대하여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小學 讀本』은 其他 教科書에 비하여 本文의 分量이 적고 指示 冠形詞의 用例도 적다. ‘此’, ‘彼’와 ‘저’의 用例는 없다. 指示 冠形詞 ‘其’와 ‘그’를 보면 漢字語 ‘其’가 차지하는 比率은 24%이며 其他 教科書에 비하여 높다. 固有語 ‘이’와 ‘그’의 被修飾語도 모두 漢字語이다. 『小學 讀本』은 그 內容을 보아도 難解한 漢字語가 많고 그것이 指示 冠形詞에도 反映되어 있다고 본다.

其他 教科書에 관하여 漢字語 指示 冠形詞과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樣相을 보겠다. 其他 教科書에도 漢字語 ‘彼’의 用例는 없다. 모든 教科書에서 指示 冠形詞 ‘此’와 ‘이’, ‘其’와 ‘그’의 用例 중 81%~95%를 固有語가 차지한다.

各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被修飾語 중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率을 보겠다. ‘이’는 『(新訂) 尋常 小學』이 가장 높고 28%이다. 다음은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27%, 『國民 小學 讀本』 24%이며 세 가지 教科書의 比率에 큰 차이는 없다. ‘그’와 ‘저’는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가 가장 높다. ‘그’는 69%이고 그 다음은 『國民 小學 讀本』이 66%, 『(新訂) 尋常 小學』이 37%이다. ‘저’는 各 教科書의 用例 數가 11 以下이기는 하나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가 67%, 『(新訂) 尋常 小學』이 27%이다. 『國民 小學 讀本』은 모두 固有語이다. ‘저’는 各 教科書의 比率에 큰 차이가 난다.

세 가지 國語 教科書는 거의 半年 사이에 編纂된 책이고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그보다 11年 後에 編纂된 것이다. 『小學 讀本』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編纂 年度에 12年の 차이가 난다. 『小學 讀本』은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被修飾語는 모두 漢字語이고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其他 두 教科書에 비하면 ‘이’의 경우를 除外하고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被修飾語 중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率이 약간 높다. 한편 세 가지 國語 教科書 중에서 몇 달 차이이기는 하나 가장 뒤에 編纂된 책인 『(新訂) 尋常 小學』은 ‘이’를 除外하고 其他 教科書보다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比率과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被修飾語 중 固有語가 차지하는 比率이 높다. ‘이’의 경우도 두 번째로 比率이 높은 教科書와 큰 차이는

없다. 張數와 用例 數를 알아보면 『(新訂) 尋常 小學』이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보다 張數가 많고 指示 冠形詞의 用例 數도 ‘이’의 用例만 除外하고 『(新訂) 尋常 小學』이 많다. 各 教科書는 編纂 年代와 編者, 其他 事情 그리고 內容과 分量을 달리하고 그것이 指示語의 表記에도 反映되므로 單純하게 다룰 수는 없으나 『小學 讀本』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에 漢字語 用例가 많고 『(新訂) 尋常 小學』에 固有語가 많다는 것은 編纂 年代의 前後보다 教科書 本文의 內容과 크게 關聯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小學 讀本』도 그 內容으로 判斷한다면 修身 教科書라고 할 수 있다. 『小學 讀本』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必然的으로 漢字語가 많이 使用되고 『(新訂) 尋常 小學』은 內容이 家庭이나 生活에 관한 平易한 것이므로 固有語가 많이 使用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注目할 만한 것은 『國民 小學 讀本』과 『(新訂) 尋常 小學』에는 指示 冠形詞 ‘此’와 ‘이’에 指示 冠形詞와 그 被修飾語를 漢字語로 表記한 例와 固有語로 表記한 例가 한두 例씩 보이며 固有語의 用例 중 한 例는 用例 數가 2, 3例 있다는 것이다.⁴⁾ 또 이 두 教科書에는 ‘그’의 用例에 한 낱말을 漢字語와 固有語 두 形態로 쓴 것이 있다.⁵⁾ 以上으로써 固有語가 使用되게 되어 있는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3.2. 指示 代名詞

(1) 漢字語 ‘此’와 固有語 ‘이’

『國民 小學 讀本』

① ‘此’의 例<4>

此는(6ㄴ, 36ㄱ)此를(29ㄴ)此에(30ㄱ)

①-1 ‘是’의 例<10>

是等을(9ㄴ)是等事實을(17ㄱ)是等은(60ㄱ)是等機關은(60ㄱ)是等動物은(60ㄴ)是等の智能(60ㄴ)是等鑛物은(63ㄴ)是等の物質은(64ㄱ)是等の所謂鍊金家라稱하던者는(65ㄱ)是等事에(70ㄴ)

② ‘이’의 例<26>

이는(8ㄱ, 25ㄴ, 30ㄱ, 35ㄱ, 37ㄱ<2> 41ㄴ, 42ㄱ, 43ㄴ, 44ㄱ, ㄴ, 45ㄱ, 47ㄴ, 50ㄱ, 51ㄱ, 54ㄱ, 56ㄴ, 58ㄴ, 61ㄱ, 70ㄱ)이를(22ㄴ, 29ㄴ)이에(41ㄴ, 54ㄴ, 56ㄴ)이갓치(33ㄱ)

‘是’의 用例가 보이며 ‘此’의 用例보다 많다. ‘此는(2例), 此를, 此에’에 對應되는 例는 ‘이’의 用例에도 보인다. ‘이는’은 20例, ‘이를’은 2例, ‘이에’는 3例 있다. 漢字語 全體와 比較해 보면 固有語 ‘이’의 用例가 ‘此’의 두 배 정도가 된다.

『小學 讀本』

4) 5쪽 參照.

5) 7쪽과 9쪽 參照.

①‘此’의 例<4>

此는(25ㄴ<2>)此예(2ㄴ,19ㄴ)

①-1 ‘是’의 例<6>

是는(13ㄴ,14ㄱ,17ㄱ<2>)是ㅣ(12ㄱ<2>)

②‘이’의 例<1>

이도(28ㄴ)

‘此’의 用例보다 ‘是’의 用例가 많고 ‘是는, 是ㅣ’가 各各 複數 보인다. 이에 대하여 固有語 ‘이’의 用例는 ‘이도’ 1例뿐이다.

『(新訂) 尋常 小學』

①‘此’의 例<2>

此를(三38ㄴ)此예(三47ㄴ)

②‘이’의 例<18>

이는(一12ㄱ,16ㄴ,20ㄱ二21ㄴ三4ㄱ,9ㄱ,13ㄱ,26ㄱ,36ㄱ)이를(三36ㄴ,46ㄱ)이에(二4ㄱ,28ㄴ)이갓치(二5ㄱ三13ㄴ,41ㄴ)이원말이나(一13ㄴ)이처럼(一26ㄱ)

漢字語 ‘此’는 2例인데 ‘此를, 此예’에 대하여 固有語 ‘이를, 이에’가 2例씩 보인다. 固有語 ‘이’도 9例 보인다. 固有語가 90%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①‘此’의 例<1>

此를(四33)

②‘이’의 例<30>

이(二33,46三13,23,24,32,34,35,45四6,17,18)이(三12四39)이에(三37)이에서(一28)이로부터(一39)이와(一19二58三29)이와갓치(一19,58四9)이와갓흔(三38四9)이만갓지 못하(三30)이갓치(二9,18三13)이보담(一28)

‘此’의 用例는 1例뿐이나 ‘이’의 用例는 30例가 된다. 固有語가 全體의 99%를 차지한다. 漢字語 ‘此를’에 該當되는 固有語 ‘이’는 2例 있다. 또 固有語 ‘이’와 ‘이에’도 보인다.

모든 教科書에는 ‘此는, 此를, 此예’이라는 用例 중 적어도 한 가지가 各各 한 두 例씩 보인다. 『小學 讀本』에는 固有語의 用例가 적고 이들 漢字語에 該當되는 固有語의 用例는 보이지 않으나 其他 教科書에는 이들 漢字語에 該當되는 固有語의 用例와 ‘이갓치’도 보이며 특히 『國民 小學 讀本』은 ‘이’가 20例나 보인다. 指示 代名詞도 漢字語에서 固有語로 交替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民 小學 讀本』과 『小學 讀本』에는 ‘是’의 用例가 보이며 ‘此’보다 ‘是’의 用例가 많다. 『小學 讀本』에는 ‘此는’이 2例, ‘是는’이 4例 보인다. 漢字語 ‘此, 是’의 用例數와 固有語 ‘이’의 用例數의 比率을 比較해 보겠다. 『國民 小學 讀本』은 모든 用例의 35%, 『小學 讀本』은 99%를 漢字語가 차지한다. 『(新訂) 尋常 小學』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는 漢字語 ‘此’의 用例는 한두 例뿐이며 固有語 ‘이’가 차지하는 比率은 各各 90%와 97%이다. 壓倒的으로 固有語가 많음을 알 수 있다.

(2) 漢字語 ‘其’와 固有語 ‘그’

漢字語 ‘其’의 用例는 없다. 『小學 讀本』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에는 固有語 ‘그’의 用例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固有語의 用例가 적다.

『國民 小學 讀本』

② ‘그’의 例<5>

그는(11ㄴ, 17ㄱ<2>) 그를(14ㄱ) 그와(7ㄱ) 그와(7ㄱ) 그와(12ㄱ)

『(新訂) 尋常 小學』

② ‘그’의 例<4>

그는(233ㄴ) 그가(224ㄴ) 그뒤인지물으거니와(一7ㄱ) 그처럼(一16ㄴ)

(3) 漢字語 ‘彼’와 固有語 ‘저’

固有語 ‘저’의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또 『(新訂) 尋常 小學』에는 漢字語 ‘彼’의 用例도 없다. ‘彼’의 用例도 적다.

『國民 小學 讀本』

① ‘彼’의 例<3>

彼를(48ㄴ) 彼の命(48ㄴ) 彼等の約束(49ㄱ)

『小學 讀本』

① ‘彼’의 例<1>

彼에(19ㄴ)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

① ‘彼’의 例<1>

彼等은(436)

‘彼’의 用例는 『國民 小學 讀本』이 약간 많다.

指示 代名詞에 대하여 整理하였다. 指示 代名詞의 用例 數는 指示 冠形詞의 用例의 12%이다. 漢字語 ‘其’와 固有語 ‘저’의 用例는 없다. 『(新訂) 尋常 小學』에는 ‘彼’의 用例는 보이지 않는다. 『小學 讀本』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에는 固有語 ‘그’의 用例는 없다.

『小學 讀本』은 指示 代名詞에 관하여도 用例가 적다. ‘此, 是’와 ‘이’ 그리고 ‘彼’의 用例만 보인다. 漢字語 ‘是’의 用例는 『國民 小學 讀本』에도 보이며 用例 數는 『國民 小學 讀本』이 약간 많다. 그리고 두 教科書에서 ‘此’의 用例보다 많다. ‘彼’는 1例뿐이다. 『小學 讀本』은 用例가 적고 漢字語 指示 代名詞가 많은 點, 其他 教科書와 傾向을 달리한다.

其他 教科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此’와 ‘이’의 경우 固有語 ‘이’가 用例 全體에 차지하는 比率이 높고 그 比率은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가 97%, 『(新訂) 尋常 小學』이 90%, 『國民 小學 讀本』이 87%이다. ‘이논, 이룰, 이에, 이갓치’는 모든 教科書에 보인다. 漢字語 ‘此논, 此룰, 此에’는 그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가 보일 정도이다. 固有語 ‘그’의 用例는 『國民 小學 讀本』이 3날말 5例이고 『(新訂) 尋常 小學』이 4날말 4例이다. 漢字語 ‘彼’의 用例는 모두 5例이다. 이 세 가지 教科書에서는 固有語 ‘이’와 ‘그’의 例가 많다.

『國民 小學 讀本』에는 ‘是’와 ‘彼’의 用例가 보이므로 『(新訂) 尋常 小學』과 『普通 學校 學徒用 修身書』에 비하면 指示 代名詞 중 漢字語가 차지하는 比率이 약간 높다.

指示 代名詞에 관해서는 固有語 ‘이’가 많이 使用되어 있고 固有語 ‘그’와 ‘彼’의 用例가 약간 있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學部 編纂 네 가지 教科書에 나타난 指示語 漢字語 ‘此, 其, 彼’와 固有語 ‘이, 그, 저’의 用例 중 指示 冠形詞와 指示 代名詞를 살펴보았다. 다음에 그 結果를 簡略하게 提示하겠다.

먼저 指示 冠形詞의 경우 어느 教科書에서도 ‘此’와 ‘이’, ‘其’와 ‘그’ 그리고 ‘彼’와 ‘저’의 分布에 關聯性은 보이지 않는다.

指示 冠形詞는 教科書마다 약간 그 用例 數나 比率에 차이가 나나 固有語 指示詞가 많다. 固有語 指示 冠形詞의 被修飾語도 一部 教科書의 ‘그’와 ‘저’의 경우를 除外하고 固有語가 많다. ‘此’와 ‘이’의 경우 『國民 小學 讀本』에는 ‘此國’-‘이 나라’(3例), 『(新訂) 尋常 小學』에는 ‘此鳩’-‘이비둘기{비둘기}’이라는 漢字語와 固有語 두 形態가 보인다. 그리고 固有語의 用例는 複數 보이며 漢字語보다 약간 많이 使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其’와 ‘그’의 경우 ‘그’의 用例에 『國民 小學 讀本』에는 ‘錢-돈’, ‘力-힘’, 『(新訂) 尋常 小學』에는 ‘母’-‘어머니’, ‘文字’-‘글썽’, ‘力’-‘힘’과 같이 漢字語와 固有語의 두 가지 形態가 보인다.

指示 代名詞 ‘此’와 ‘이’의 경우 모든 教科書에 ‘此논, 此룰, 此에’이라는 用例 중

적어도 한 가지가 각 각 한두 例씩 보인다. 『小學 讀本』을 除外하고 固有語 ‘이논, 이룰, 이에’, 그리고 ‘이갓치’이라는 例가 보이며 많은 것은 20例이나 있다. 固有語 ‘이’가 壓倒的으로 많고 ‘그’도 약간 보인다.

이 點으로써 指示 冠形詞와 指示 代名詞는 漢字語에서 固有語로, 文語體에서 口語體로 徐徐히 交替해 가는 過程에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으로 1900年을 前後해서 學部에서 編纂된 네 가지 教科書는 한글體와 國漢文 混用體가 併用된 時期에 있어서 從來의 漢字語가 固有語로 代替되어 가는 樣相임을 알 수 있다. 이 點으로써도 開化期 教科書는 語彙史 研究의 貴重한 資料이라고 말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康允浩(1973), 開化期の 教科書用 圖書, 教育出版社.
- 金相泰(1991), “開化期の 文體 一變異 過程을 中心으로”, 한국 문화 연구원 논총 59-1, 梨花女子大學校.
- 金億洙(1979), “開化期の 國語教育 實態와 國語教科書 分析 考察”, 中央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 (1979), “開化期の 國語 教科書 考察”, 語文論集 14, 中央大學校 國語國文 學科.
- 김종훈 (1987), 개화기 교과서 어휘 소고, 한실 이상보 박사 회갑 기념 논총, 형설출판사.
- 南廣祐(1992), “中世國語 漢字語에 대한 基礎的 研究”, 한국 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柳汶秀(1974), “語彙上으로 본 韓國開化期 文章의 文體論的 考察 一定期刊行物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閔賢植(1986), “開化期の 國語의 語彙에 대하여 一 사라진 고유어·한자어를 중심으로”, 국어생활 4호, 국어 연구소.
- (1993), “開化期 國語 資料에 대하여”, 安秉禧 先生 回甲 記念 論叢 國語史 資料와 國語學의 研究, 文學과 知性社.
- 朴英燮(1995),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 (1996), 開化期 國語 語彙資料集 3(教科書·新聞篇), 박이정.
- 朴仁權(1980), “開化期の 國語 教材 研究 一初等 讀本 教材를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宋敏(1989), 開化期 新文明語彙의 成立 過程, 語文學論叢 8 國民大學校.
- 沈在箕(1989), “漢字語 受容에 關한 通時的 研究”, 國語學 18, 塔出版社.
- (1992), “開化期の 教科書 文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 (1992), “開化期 文體 樣相에 關한 研究”, 韓國文化 13,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李基文(1970), “開化期の 國文 研究, 一潮閣.
- 李相五(1986), “舊韓末 開化期の 日本語 流入 過程에 對하여”, 인문연구 8, 嶺南大學校.
- 이응호(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성정사.
-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 研究, 新丘文化社.

- 정길남(1997), 개화기 교과서의 우리말 연구, 박이정.
조문재(1986), “개화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교재에 관한 연구(1) -문학적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생활 4호, 국어 연구소.
崔範勳(1986), “國語의 漢字系 歸化語에 대하여”, 無涯梁柱東博士 古稀紀念論文集.

『倭語類解』의 口訣과 그 쓰임에 대하여¹⁾

정 승 혜

1. 緒 言

『倭語類解』는 司譯院 倭學에서 日本語 學習을 위하여 편찬한 역학서로서 朝鮮 朝 후기의 왜학 역관들이 참고한 일본어 語彙集이다. 이 책은 2권 2책의 목판본으로, 上卷에 目錄과 本文, 下卷에 目錄과 本文, 口訣 2葉이 있고, 卷尾에 讐整官, 書寫官, 監印官의 관직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國立中央圖書館과 일본의 駒澤大學 金澤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和語類解』 역시 유해류 왜학서로서 필사본이 京都大學에 2권 2책이 소장되어 있다. 上卷 40張 (17.6 × 26.4Cm), 下卷 40張(17.5 × 26.3Cm)으로 되어 있으며, 下卷 77장부터 ‘幹旋口訣’이란 題下에 吏讀로 된 口訣과 그의 한글 표기가 있다. 마지막 第 80張에는 ‘天保八年 酉 十月吉日 寫之也 朴伊圖 道存’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天保8年(1837년) 10월에 苗代川の 壬辰 被擄 朝鮮人 陶工의 後裔인 朴伊圖이 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幹旋口訣’ 다음에는 衙前들이 사용한 ‘吏道’ 69항을 필사해 놓았는데, 이들은 “小田幾五郎이 쓴 『象胥記聞』(1794)²⁾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것을 필사해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여, 『象胥記聞』의 것을 옮겨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필사된 吏讀들은 『倭語類解』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수 있다(정승혜:1998 참조).

이 자료는 조선 후기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연구에 이용되어 왔으나, 뒤에 부재된 이두 및 구결에 관해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은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 자료의 각 판본 간에 나타나는 구결 및 이두의 차이점, 그리고 일본어 번역의 차이점을 통한 양자의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간에 오

정승혜 - 수원여자대학교

1) 이 논문은 1998년 구결학회 겨울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2) 『象胥記聞』(1794)은 小倉進平의 『朝鮮語學史』(增訂版 1964:144-5)에 의하면, 이 책은 대마도의 譯官 小田幾五郎이 저술한 책이다. 上卷은 歷世, 朝儀, 道里, 中卷은 節序, 人物, 官制, 禮俗, 下卷은 戶籍, 文藝, 武備, 刑律, 度量, 服色, 飲食, 第宅, 物産, 雜聞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 小倉進平(1964 : 311-2)에서는 이 책의 ‘吏道’가 李義鳳의 『古今釋林』(1789)의 ‘三學譯語’ 中の ‘倭語口訣’에 기초하였다고 여겨지는 日本語對譯의 吏讀 69종을 들었다고 하였다. 『象胥記聞』은 筆寫本으로 여러 異本이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 참고한 것은 日本 天理大學圖書館 所藏本(黑川眞賴 · 眞道藏本)이다. 그의 아들 管作이 修補를 加한 『象胥記聞拾遺』(3권. 1841)도 있다.

고 간 문서상에 나타나는 구결 자료를 통하여 왜어학습 책자에 구결이 부재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倭語類解』와 『和語類解』 口訣의 비교

	倭語類解 口訣	和語類解 口訣	和語類解 附 吏道
① 隱 은	○ ワ ¹⁾	○ ワ	○ ハ
② 萬 만	○ バカリ ²⁾	○ バカリ	○ バカリダケ ³⁾
③ 伊 이	○ 가 ⁴⁾	○ 가	○ 카
④ 也 야	○ ヌ ⁵⁾	○ ヌ	○ ヌ
⑤ 可 가	○ 카 ⁶⁾	○ 카	○ 카
⑥ 乙 을/을/늘 ⁷⁾	○ ㄱ ⁸⁾	○ ㄱ	○ ㄱ
⑦ 厓 이	○ 二 ⁹⁾	○ 二	○ 二
⑧ 五 오	○ ㄷ ¹⁰⁾	○ ㄷ	○ ㄷ

1) は ㄱ …は. …은, 는. / 주제의 제시, 강조, 다른 것과의 구별, 습관적인 동작 등에 쓰이는 助詞.

2) ばかり(許り) ㄱ …ほど (…만). …ぐらい, …ごろ. 정도, 범위를 나타내는 말.
…だけ. …のみ. 限定을 나타내는 말.

cf) ばかり vs. のみ : 사물을 한정하는 데 쓰인 것은 마찬가지이나, 'ばかり'는 대체적인 정도, 범위를 표시하였으며, 그 사물과 유사점이 많은 것 중의 하나를 들어서 그 정도, 범위가 뛰어남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였고, 'のみ'는 다른 것과 구별하여 그것만 강하게 한정하는 데 사용했다. 中古(日)이후, 'のみ'는 口語에 주로 사용되었고, 'ばかり'가 'のみ'에 대체되어 많이 사용되었다.

3) だけ ㄱ <근세일본어> …만(限度를 표시).

4) が ㄱ …の. …가. 동작,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 / …を. 욕망, 가능, 기호등의 대상을 나타내는 말.
/ 소유, 관계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ㄱ ㄱ 中古(日) 말기 이후의 용법. …가. …(する)と. 단순 접속을 표시하는 말.

…けれども. …のに. 역접의 확정조건을 표시하는 말.

5)こそ ㄱ …は. 강조의 표시. / …ならば. 순접의 가정조건이나 확정조건인 표시.

…야말로 / 참으로 / …할지언정 / (실로) …이다

6) か ㄱ 의문을 나타내는 말. / 반문을 나타내는 말. / 감동을 나타내는 말.

ㄱ …은 아니고, …는 커녕.

7) 사선 ‘ / ’을 경계로 하여, 가장 왼쪽은 국립도서관본 『倭語類解』에 필사된 표기이고, 두 번째는 駒澤大學本 『倭語類解』에 필사된 표기, 세 번째는 『和語類解』에 필사된 표기임. 기본적으로는 『倭語類解』(국립도서관본)의 것을 따랐으며,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밝혀 놓았음.

8) を ㄱ …を. …을, 를 / 체언에 접속해서 동작과 작용의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

9) に ㄱ …에. 장소, 때, 경우 등을 나타내는 말. 목적, 원인, 수단을 나타내는 말.

10) ぞ ㄱ …は. 強意, 強調를 표시하는 말.

…だ. …である. 指示, 斷定을 나타내는 말.

…か. …なのか. …か. いや…てわない. 강한 의문이나 反語를 나타내는 말.

㉠ 臥 와	○ ド 11)	○ ド	○ テ
大 디/대/대	○ ヨツ 12)테 13)	○ ヨツテ	○ レバ 14)*
刀 도	○ モ 15)	○ モ	○ モ
代 디/디/되	○ トモ 16)	○ 토모	○ ト ヌロ 17)
能 쏜/쏜/분	○ ノミ 18)	○ 노미	○ 노미
羅隱 란은/라은/라는	○ ニワ	○ 니와	○ 레바*
乙奴 으로/을노/으로	○カラ 19)	○ 카라	○ 테 20)*
刀泉 도록	○ ホト 21)	○ 호토	○ 호도*
爲尼 히니	○ タガ 22)	○ 타가	○ 요리 23)*
爲也 히야	○ シテ 24)	○ 시테	○ 시테*
爲面 히면/히면/히명	○ 스레바 25)	○ 스레바	○ 스레바
爲古 히고	○ トテ 26)	○ tote	○ 시테*

- 11) と ㉠ …와. 동작을 함께 할 때 쓰이는 말. / …に…と. 변화의 결과를 표시하는 말.
 …と…と. 병렬, 대등의 관계를 표시하는 말. / …라고. 말이나 생각을 인용할 때 쓰이는 말.
 …와 함께. 동작을 함께 할 때 쓰이는 말.
 ど ㉡ …가. …けれども. 逆接의 確定條件을 표시하는 말.
 …ても. 逆接의 恒常的 條件을 표시하는 말.
- 12) 밑줄은 본문에서 짧은 세로줄로 표시되어 있음. 이곳에서는 가로쓰기를 하였으므로, 편의상 밑줄로 처리하였다. 두 음절을 붙여 읽으라는 표시이다. 이하 동일. <원문참조>
- 13) よって(因って・仍って) ㉢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 14) cf. すれば ㉣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 15) も ㉤ …も. …でも. 병렬, 열거, 첨가, 최소한의 희망을 나타내는 係助詞.
 …も. 강조의 표시.
 …けれども. 역접의 확정조건을 표시하는 接續助詞.
 …ことよ. 감탄을 표시하는 終助詞.
- 16) とも : 接續助詞 ‘と’에 係助詞 ‘も’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도. 역접의 가정조건이나, 현재의 사실을 역접하는 가정조건을 표시.
- 17) ところ(所, 處) : 곳, 디, 장소를 나타냄./ 口訣로서보다는 吏讀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해독이다. 즉 단순히 토로시의 역할이 아니고, 의미까지 전면적으로 표기하는 吏讀의 성격을 보여준다.
- 18) のみ ㉦ …만, …뿐 (한정을 나타내는 말). / 강조하는 말.
- 19) から ㉧ …으로, …부터. 이동, 경과하는 장소를 표시. 동작이나 작용의 시간적 공간적 기점을 표시. 이동의 수단을 표시.
- 20) ‘カラ’보다는 더 문장, 문맥적 의미를 고려한 해석으로 보임.
- 21) ほど ㉨ …정도, …함에 따라서, …할수록. 분량·정도의 한정, 비교의 정도,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나타낸다.
- 22) だが ㉩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 23) より …보다, …부터, …에서. …하니. 동작·작용의 기점과 비교의 기준, 이유등을 나타낸다.
- 24) して : 하고, 하여, 하여서, 하다가. cf. て(で) ㉪
- 25) すれば ㉫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祿 爲料	호료/호료/호려	○ 세우조 ²⁷⁾	○ 세우조	○ 슌카 ²⁸⁾ *
祿 爲那	호나	○ 슌트모 ²⁹⁾	○ 슌트모	○ 시테모 ³⁰⁾ *
祿 爲厓	히/히/히 ³¹⁾	○ 야 ³²⁾	○ 야	○ 테고살 ³³⁾ *
祿 爲羅	호라	○ 세이 ³⁴⁾	○ 세이	○ 세이
畠 乎代	호디/호디/온디	○ 시테모 ³⁵⁾	○ 시테모	○ 토모 ³⁶⁾ *
祿 故奴	고로	○ 유에 ³⁷⁾	○ 유에	-----
祿 爲隱只	흔지/흔은지/흔은디	○ 슌야라 ³⁸⁾	○ 슌야라	○ 신타야라 ³⁹⁾ *
祿 爲乙可	홀가/홀가/홀가	○ 세우카 ⁴⁰⁾	○ 세우카	○ 슌카 ⁴¹⁾ *
祿 爲乙也	홀야/홀야/홀야	○ 슌카 ⁴²⁾	○ 슌카	○ 마이카 ⁴³⁾ *

26) 因 …ど. …라고 해서. 인용할 때의 조사(강조용법). ‘…라고 말해서’의 축약형.

27) せうぞ (=しょうぞ) …할 것이다. ‘う’는 의지, 추량 등을 나타내는 조동사, 이때 ‘ぞ’는 의문 종결의 의미로도 쓰인다. …할까?

28) 합니까?(의문) : 日本語의 古語에서는 판정의문문에서 ‘…카(か)’, 설명의문문에서는 ‘조(ぞ)’를 사용했다.

29) すれとも ㉔ ㉔ …とも : 비록 …할지라도, …지만, …하여도.

30) しても …해도. …ても ㉔ …이어도, …일지라도. ㉔ 그래도, 그렇지만 ‘すれとも’보다는 ‘しても’가 더 古型이다.

31) 『和語類解』에서 ‘히’로 쓰인 것은 아마도 필사자가 ‘히외’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한다. 즉, ‘でござる’의 의미에 해당하는 ‘히외’가 아닌가 한다. 일본어는 ‘외’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으므로, 비슷한 음을 가진 ‘이’를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는 ‘외’의 단 모음화를 전제한다.

32) や ㉔ …か. …のか. 의문을 나타내는 말. / …か, いや …ではない. 반문하는 말(係助詞, 終助詞).

…よ. だなあ. 영탄, 강조를 나타내는 말.

㉔ ㉔ …하자 곧. / … 할 때에 cf. 현대어에서는 격조사로 쓰여 ‘…랑, …이나’의 뜻으로도 쓰임.

33) …で ござる(御座る) : ① ‘行く’(가다), ‘来る’(오다)의 존경어 ; 가시다, 오시다.

② ‘有り’(있다)의 존경어 ; 계시다.

③ ‘有り’(있다)의 丁寧語 ; 있습니다.

④ ‘あり’(-이다)의 丁寧語 ; …입니다.

34) せい ㉔ …하라. 명령형 어미. 일본 관서 지방 사투리라고 함.

35) しても …해도. …ても ㉔ …이어도, …일지라도. ㉔ 그래도, 그렇지만

36) とも : 接續助詞 ‘と’에 係助詞 ‘も’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㉔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도. 역접의 가정조건이나, 현재의 사실을 역접하는 가정 조건을 표시.

37) ゆゑ(故) ㉔ 원인, 이유, 사정. 緣故(ゆかり).

㉔ ㉔ …のために, …によって. 원인, 이유를 나타냄. / …なのに. にもかかわらず. 역접을 표시.

38) するやら : 하는지.

…やら ㉔ …인가, …인지, …이랑, …하기도 하고(副助詞).

…인지, …는지(終助詞). 불확실한 추측.

39) …한지(과거). ‘する’에 과거의 의미가 첨가되었음. 보다 정확한 의미를 보여준다.

40) せうか(=しょうか) : 할까? 의지가 개입된 의문형. / 古今釋林 : 세우카

41) ‘するか’보다 『倭語類解』의 ‘せうか’가 더 古語的 표현임.

𪛗	爲乙西	홀서/헝을서/홀서	○	スルナラ ⁴⁴⁾	○	スルナラ	-----
𪛗	爲加尼	헝더니/헝더니/헝가니	○	シタニ ⁴⁵⁾	○	シタニ	○
𪛗	爲多可	헝다가	○	イタシテ ⁴⁶⁾	○	イタシテ	○
𪛗	爲巨乙	헝거를/헝거늘/헝고늘	○	イタシタヲ ⁴⁸⁾	○	イタシタヲ	○
𪛗	爲巨等	헝거든/헝거든/헝고튼	○	シタラバ ⁴⁹⁾	○	シタラハ ⁵⁰⁾	○
𪛗	爲刀多	헝도다	○	シマシタ ⁵²⁾	○	シマシタ	○
𪛗	爲巨那	헝거나/헝거나/헝고나	○	ナリトモ ⁵⁴⁾	○	ナリトモ	○
𪛗	爲里五	헝리오	○	スルゾ ⁵⁵⁾	○	スルゾ	-----
𪛗	爲里羅	헝리라	○	スルトナリ ⁵⁶⁾	○	スルトナリ	○
𪛗	爲時多	헝시다	○	ナサレタ ⁵⁷⁾	○	ナサレタ	-----
𪛗	爲時古	헝시고	○	ナサレテ ⁵⁸⁾	○	ナサレテ	-----
𪛗	爲時尼	헝시니	○	ナサルニヨリ ⁵⁹⁾	○	ナサルニヨリ	-----
𪛗	爲時那	헝시나	○	ヲヲヤラレテモ ⁶⁰⁾	○	ヲヲヤラレテモ	-----

42) するか : 할까? 의지가 개입되지 않음.

43) まいか : …하지 않을까!? / 의미의 강조, 반어적 표현.

44) するなら : 한다면.

…なら ㉔ '다(이다)'의 가정형. ㉔ 그러면, 그렇다면면.

45) したに : 했더니

46) いたして : …하고, …해서. いたす(致す) : 'する'의 공손한 말.

47) …했다가. …했지만.

48) いたしたを : 한 것을(했다(NP)를).

49) いたらば : 하면. 미래, 추측, 가정의 의미(未然型).

50) 『倭語類解』의 'は'가 여기서는 탁음의 'ば'로 필사되어 있음.

51) いたれば : …하니(已然型).

52) しました : 했습니다.

し-(する) + -ました(ます ㉔ 동사에 붙여 경의를 표하는 말. 과거). / 古今釋林 :

シマシヲ

53) ジャ : …다. 공손이 의미가 없음.

54) なりとも ㉔ …든지, …라도.

55) するぞ : 할까? (반어, 의문의 'ぞ')

56) するとなり 한다고 하다. …なり ㉔ …という. …라고 하다. ㉔ …하면 곧, …인 채로.

'するとなり'는 漢文訓讀體 문장이다. 즉 일본어에서 한문을 읽을 때 투식적으로 붙이는 口訣 (입결)로써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和語類解』吏道の 'まいか'는 반어, 의문, 불가능을 나타내는 어미로써 쓰인 것이다. 일본어에는 'するとなり'말고도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 이는 우리 국어에서도 한문을 읽을 때 투식적으로 붙이는 구결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和語類解』안에서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口訣'과 '吏道'로 구별하여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57) なされた : 하셨다.

なさる(爲さる) : 하시다. '爲す(하다)'의 높임말.

58) なされて : 하시고

59) なされにより : 하시므로, 하신고로.

…より ㉔ …에 따라서, …하므로. 이유를 나타내는 말.

…보다, …부터, …에서. 동작이나 작용의 비교, 기점을 나타내는 말.

爲巨飛 ㅎ거늘/ㅎ거날/ㅎ고늘 ○ シタヲ⁶¹⁾ ○ シタヲ -----

爲小西 ㅎ쇼셔/ㅎ소셔/ㅎ쇼셔 ○ ナサレマヤイ⁶²⁾ ○ ナサレマヤイ -----

爲邑所 ㅎ읍소 ○ サツ シヤレイ⁶³⁾ ○ サツシヤレイ -----

爲五里 ㅎ오리 ○ イタシマヤウ⁶⁴⁾ ○ イタシマヤウ -----

伊於乙 이어를/이어늘/이늘 ○ スルヲ⁶⁵⁾ ○ 스루ヲ -----

爲時隱大 ㅎ신디/ㅎ시는데/ㅎ시는다
○ナサルルトユロニ⁶⁶⁾ ○ ナサルルトユロニ⁶⁷⁾ -----

爲時巨乙 ㅎ시거를/거늘/고늘 ○ ナサルルヲ⁶⁸⁾ ○ ナサルルヲ -----

爲時刀伊 ㅎ시되/되/도이
○ ヲヲセラレマスレトモ⁶⁹⁾ ○ ヲヲセラレマスレトモ -----

爲邑加尼 ㅎ읍더니/더니/카니
○ イタシマシタニヨリ⁷⁰⁾ ○ イタシ마シタニヨ리⁷¹⁾ -----

爲乙士伊 ㅎ을시/을식/을스이 ○ シテユソ⁷²⁾ ○ シテユソ -----

爲也叱多 ㅎ얏다/ㅎ야또다/ㅎ헝다 ○ イタシ타⁷³⁾ ○ イタシ타 ○ シ타*

爲也時尼 ㅎ야시니 ○ イタシ타ニヨ리⁷⁴⁾ ○ イタシ타ニヨ리⁷⁵⁾ -----

爲乙注乙 ㅎ줄 ○ 슌ワケヲ⁷⁶⁾ ○ 슌ワ케ヲ ○ 슌ワ케ヲ

60) おおせうれても : 말씀하셔도., 말씀하시나.

おほす(仰す) ‘いう(言う/言ふ<古>) 말하다’의 존경어.

でも ㉔ ...라도, ...이든(지).

61) したを : 한 것을(했다(NP) + 을 / 과거, 공손법)

62) なされませい : 하십시오. (명령, 존경)

63) さっしやれい : 하소. 앞의 なされませい보다 신분이 낮은 경우에 사용하는 명령문.

64) いたしませう(=いたしましょう) : 하겠습니다.

いた(공손) + しませ(존경) + う(의지) / 古今釋林：いたしまぜう

65) するを : 한 것을, 하는 것을.

66) なさるるところに : 하시는 데에. なさる(爲さる) + ところ(所, 處) + に

67) 순서가 바뀜.

68) なさるるを : 하시는 것을.

69) おおせられますれとも : 말씀하십니다만.

とも : 接續助詞 ‘と’에 係助詞 ‘も’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

☐ 하지만, 그렇지만, ...하여도. 역접의 가정조건이나, 현재의 사실을 역접하는 가정 조건을 표시.

70) いたしましたにより : 하셨습니다으로.

いた(공손) + しました(존경, 과거) + により(이유)

71) 순서가 바뀜.

72) してこそ : 하셔야(강조).

こそ ㉔ …は. 강조의 표시. / …ならば. 순접의 가정조건이나 확정조건의 표시.

...야말로 / 참으로 / ...할지언정 / (실로) ...이다

73) いたした : 하였다(공손, 과거). / 古今釋林 スルワケヲ(するわけを)

74) いたしたにより : 하였으므로(공손, 과거, 이유).

75) 순서가 바뀜.

76) するわけを : 할 도리를.

용문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한글 옆에는 일본어로 그 뜻을 해석하여 달아놓고 있다. 그 중 일부를 전재한다.

[壬申年(1872) 正月 14日 : 都幹傳 · 幹傳官으로부터 訓導 · 別差에게 보낸 편지]

訓導 令監前 上

春日穩和_히온디(ゴサル處)

公候平安_히시다 _히오니(ニアラレマシテ) 慰喜不已오며(存ジマスル)

僕等有_二公幹_一_히여 渡泊_히엿스오니(イタシマシタニツキ)

반가히(ウレシウ) 面晤_히가_히이다(イタシタク存ジマスル) 餘都ヲ留ム 暫上

壬申 正月 十四日 都幹傳
幹傳官

別差 公前 入納

年久보옵지 못_히엿습더니(ヲ目ニカ、リ 不申處)

公候平安_히시다 _히오니(ニアラレマシテ) 多幸(ニ)_히오며(存ジマスル)

僕等有_二公幹_一_히여 渡泊_히엿스오니(イタシマシタニツキ)

반가히(ウレシウ) 뵈올가_히이다(ヲ目ニカ、リタク存ジマスル) 餘都ヲ留ム 暫上

壬申 正月 十四日 都幹傳
幹傳官

< () 안은 일본어가 병행하여 쓰인 것을 나타냄 >

위의 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과 조선의 외교관계에서 쓰인 문서는 한문만이 아닌 국한문혼용의 문장도 사용하였으며, 일본인이 한글을 익히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토(어미, 조사)를 익히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倭語類解』類의 구결(또는 이두)은 비록 한자로 쓰였지만, 옆에 달아놓은 토를 보고 한글의 글자체를 익힌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학습자료가 되었다.

4. 日本 島根縣立圖書館藏 『朝鮮人見聞書』

일본 島根縣立圖書館에 所藏된 『朝鮮人見聞書本』 1冊(8張)에서도 일본인이 베껴 놓은 한국 관련 기사가 보인다. 이 책은 맨 뒷장에 ‘依布智村 高見臺次郎藏本 寫之’라는 寫記가 있어서, 高見臺次郎이라는 사람의 藏本을 베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운데 文化7年(1810)의 기록은 漂流 朝鮮人と 관련된 내용이라 흥미롭다⁸⁶⁾. 여기서도 구결이 보인다.

2b 文化七年(1810년) 十月 二十八日 田儀浦ニテ

漂流船?郡 奉行松山長菴徳門様御向

客徒 何 處 漂 流 來 乎

カク ト イツレトコロヘウ リウ キタル ヤ

朝鮮人ヨム(讀ム)

カク カ ハ ツ チ ハ ア ヨ ニ ヤ ウ シ (客이(가) 어찌하여 요리에 오시?)

答

朝鮮國 慶 尙 道 蔚 山 府下府內面居船主

キヤン シヤン ダイ ヲル シヤウ プ ハ ブ ナ メユ セン ジュ

徐以文 年四十九 金春奉 年三十八

金聖三 年四十四 朴大元 年六十二

金學水 年六十三 裴才三 年三十八 (日本語注音 略)

3a

鄭 此字未ノ死人則?ニテ出スヤ

(中 略)

右九名生

鄭云 年 三十三

水中死 云コトカ

他國身故

朝鮮國 慶尙道 蔚山 城惶堂 皇居 船主亦以

十月二十四日 大風捧日本國海 今度泊爲也 二三日間 飢以小食無

水中三人六地來吾可 (吾多可?) 一人鄭云水中死故 身體無乙士

官德宅 今日 推量爲也 回還去以(尼의 誤寫? /커니)

< ? 표는 안 보이는 글자. () 안은 필자 삽입 >

5. 結 語

86) 여기서 일일이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한자로 쓴 부분에 대하여 각각 일본어 轉寫를 해 놓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왜어유해』 및 『화어유해』에 부재된 구결 및 이두는 매우 특이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판본별 국문 표기를 살펴보면, 국립도서관본과 駒澤大學본은 표기상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나, ‘大 디-대’, ‘爲巨飛 헝거닐-헝거날’과 같이 ‘-’의 비음운화 현상을 보여주는 예가 있고, ‘爲隱只 헝지-헝은지’, ‘爲乙可 훌가-헝을가’, ‘爲乙也 훌야-헝을야’, ‘爲乙西 훌서-헝을서’와 같이 駒澤大學본에서는 어간의 고려 없이 한 문자에 한 음절을 대응시키려는 노력을 읽을 수 있다. 『和語類解』의 구결은 앞의 두 간본과는 달리 필사된 것인데, ‘爲隱只 헝지-헝은지-헝은디’와 같이 구개음화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爲畚加尼 헝읍더니-헝읍더니-헝읍카니’, ‘乎代 호디-호디-온디’와 같이 보수적인 독법을 취하고 있는 것도 있다.

세 책에 쓰인 구결과 이두의 쓰임을 보면, 같은 표기라도, 구결로서 쓰일 때와 이두로서 쓰일 때의 의미차를 일본어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代 디’의 경우, 구결로 쓰였을 때는 ‘トモ(하지만, -하여도)’의 뜻이지만, 이두에서는 ‘トコロ(곳, 장소)’의 뜻으로 나타나며, ‘爲尼 헝니’는 구결에서는 ‘タカ(그러나, 그렇기는 하지만)’으로, 이두에서는 ‘コリ(-부터, -하니)’로 나타난다.

특기할 만한 형태는 ‘爲里羅 헝리라’인데, 이것은 국립도서관본과 구택대학본에서 ‘するとなり’한다고 하다.’로 나타난다. 이 ‘するとなり’는 漢文訓讀體 문장이다. 즉 일본어에서 한문을 읽을 때 투식적으로 붙이는 口訣(입결)로써 쓰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和語類解』 吏道の ‘まいか’는 반어, 의문, 불가능을 나타내는 어미로써 쓰인 것이다. 일본어에는 ‘するとなり’ 말고도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 이는 우리 국어에서도 한문을 읽을 때 투식적으로 붙이는 구결이 있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和語類解』 안에서 같은 형태를 가지고서 ‘口訣’과 ‘吏道’로 구별하여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위의 구결과 이두 자료들은 언어습득의 현실적인 요구에 의하여 어휘 학습서에 부재되었으며, 이것은 실제로 한일 양국의 문서 교환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밖의 문서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후고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資料

<刊 本>

倭語類解 : 木板本 (1780년대초):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2卷 2冊 (古 00793)

太學社 影印 (1988)

日本 駒澤大學 金澤文庫 소장 2卷 2冊 (金澤舊藏本)

京都大學 文學部 國語學國文學研究室 影印 (1958)

<寫 本>

和語類解 : 寫本(1837 ?): 京都大學 所藏 2卷 2冊

‘天保八年酉十月吉日寫之也朴伊圖道存’이라는 識語가 있음.(苗代川本)

太學社 影印 (1988)

韓國往復書類 : 寫本(1872): 釜山廣域市立市民圖書館 所藏本 1冊

象胥記問：寫本(1794년): 日本 天理大學圖書館 所藏本(黑川眞賴・眞道藏本) 2卷 1冊.

朝鮮人見聞書：寫本. 日本 島根縣立圖書館 所藏本 1冊(8張).

맨 뒷장에 '依布智村 高見臺次郎藏本寫之'라는 寫記가 있음.

<冊 板>

倭語類解：D-1001 ~ D-1019 (고대박물관 소장)

2. 目 錄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9) 『高麗大學校 博物館 創設 55周年紀念 博物館 收藏品 目錄』.

國立 中央圖書館 (1970) 『國立中央圖書館 古書目錄』 (1-4). 서울: 同圖書館.

釜山廣域市立市民圖書館 (1995) 『古書目錄』, 부산: 釜山廣域市立市民圖書館.

李相殷 (1987) 『古書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鄭亨愚,尹炳泰 共編 (1979)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前間恭作 編 (1944) 『古朝鮮譜 (第三冊)』, 東京: 東洋文庫.

3. 其他 參考 資料

『鏤板考』, 徐有渠 編纂 (寶蓮閣 影印本:1968)

『譯科榜目』, 奎章閣 所藏 (民昌文化社 影印本:1990)

『通文館志』, 奎章閣 所藏 (景仁文化社 影印本:1973)

4. 논문 및 저서

金義煥 編 (1969) 『부산시립도서관소장귀중본 도서해제』, 부산시립도서관.

金炫榮 (1987) “조선 후기 中人의 家系와 經歷 -譯官 川寧 玄氏家 古文書의 分析-.” 『한국 문화』 제8집.

南豐鉉 (1996) “古代國語의 吏讀.” 『古文書研究』9·10.

吳昌命 (1995) “朝鮮前期의 吏讀項目 정리(1).” 『古文書研究』7.

吳昌命 (1996) “朝鮮前期의 吏讀項目 정리(2).” 『古文書研究』8.

李元植 (1984) “朝鮮通信使に隨行した倭學譯官について -捷解新語の成立時期に關する確證を中心に-.” 『朝鮮學報』 제111호.

李元植 (1991) 『朝鮮通信使』, 서울: 민음사.

李俊杰 (1986)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研究』, 서울: 弘益齋.

李姬載 譯 (1994) Courant. 『韓國書誌』, 서울: 일조각.

장지영, 장세영 (1976) 『이두사전』, 서울:정음사.

鄭 光 (1978) “類解類 譯學書에 대하여.” 『國語學』 7.

鄭 光, 韓相權 (1985) “司譯院과 司譯院譯學書의 變遷 研究.” 『덕성여대논문집』 제14집

鄭 光 (1987) “倭語類解의 成立과 문제점 -國立圖書館本과 金澤舊藏本과의 비교를 통하여-.” 『덕성어문학』 제 4 집.

鄭 光 (1988a) 『諸本集成 倭語類解(解說, 國語索引, 本文影印)』, 서울: 태학사.

鄭 光 (1988b) 『司譯院 倭學 研究』, 서울: 태학사.

鄭 光 (1989) “譯學書의 刊板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제 4 집.

鄭 光, 尹世英, 宋基中 (1992) “高麗大學校 博物館 所藏 司譯院 冊板.” 『省谷論叢』 23.

趙學允 譯(1994) 三宅英利. 『近世日本과 朝鮮通信使』, 서울: 景仁文化社.

千惠鳳 (1983) 『書誌學 概論』, 서울: 성균관대학교.

千惠鳳 (1991a)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千惠鳳 (1991b) 『韓國 書誌學 研究 : 古山 千惠鳳教授 停年紀念選集』, 서울: 삼성출판사.

千惠鳳 (1991c)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洪允杓 (1993) 『國語史 文獻資料 研究』 [近代篇 I]. 서울: 태학사.

洪允杓 (1994) 『근대 국어 연구 (I)』. 서울: 태학사.

Courant Maurice(1894) Bibliographie Coréenne. Paris: Ernest leroux, éditeur.

李姬載 譯(1994) 『韓國書誌』. 서울: 일조각.

小倉進平 (1964) 河野六郎 増訂補注 『朝鮮語學史』. 東京: 刀江書院.

田代和生 (1982) 對馬藩과 倭館貿易. 『朝鮮通信使』. 서울: 東湖書館.

中村幸弘 編 (1996) 『ベネセ全譯 古語辭典』. 東京: 株式會社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

濱田敦 (1970) 『朝鮮資料による日本語 研究』. 東京: 岩波書店.

투 고 규 정

1. 『국제고려학』(이하, 본지)은 코리아학에 관한 논문, 서평 등을 게재, 발표함으로써 코리아학의 발전에 기여한다.
2.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1) 국제고려학회(이하, 본학회)의 회원
 - (2) 본학회가 투고를 의뢰한 사람
3. 논문, 서평의 심사는 본지편집위원회가 위임한 심사위원이 하며 채용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4. 한글로 쓴 원고는 정서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로 쓴 원고는 타자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한글일 경우는 “아래아 한글”, 영어일 경우에는 “Word Perfect”로 입력한다.
5. 원고의 분량은 다음과 같다. 한글 원고일 경우 논문은 16,000자 정도로 하며 서평은 2,000자 정도로 한다. 또한 영문 원고일 경우 그 분량을 각각 10,000단어, 1,200단어를 기준으로 한다.
6.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7. 원고는 다음 주소에 보내야 한다.

〒581-8511 日本 大阪府八尾市樂音寺 6-10 大阪經濟法科大學內
國際高麗學會 「國際高麗學」編集委員會
TEL : 0729(41)8211 FAX : 0729(41)4665

8. 게재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모집 요강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otes for Contribu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IJKS) i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 Studies through the publication of articles and book reviews on Korea.

Contributors are Limited to:

- (1) members of ISKS; and
- (2) those who are asked to contribute by ISKS.

All manuscripts submitted will be referred to editorial advisers for careful review. The Editorial Board, however, has the say in those selec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typed by “아래아 한글” or "Word Perfect"

Articles should not exceed 16,000 characters in Korean and 10,000 words in English; book reviews should not exceed 2,000 words in Korean and 1,200 words in English.

Proofs will be sent to authors for correction before final publication.

All contributions to the journal should be sent to: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6-10, Gakuonji , Yao, Osaka, 581-8511, Japan

국 제 고 려 학

발행일 : 1999년 3월 31일

편집인 : 「국제고려학」편집위원회

발행처 : 국제고려학회

〒581-8511 日本 大阪府八尾市樂音寺6-10

大阪經濟法科大学内 國際高麗学会 本部事務局

TEL : 0729(41)8211 (ex.221,222)

FAX : 0729(41)4665
